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21-04

연구보고 07-R12-3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책임연구원 : 김현철(한국청소년개발원 · 연구위원)

김은정(한국청소년개발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최연혁(남스톡홀름대학교 · 교수)

윤인진(고려대학교 · 교수)

정재영(Core Research & Consulting)

임창규(고려대학교)

이선이(아주대학교 · 교수)

김현주(중앙대학교 · 교수)

이여봉(강남대학교 · 교수)

박천식(부산인적자원개발원 · 연구위원)

배지혜(Keio University)

Gudrun Quenzel(Institut für Soziologie

Universität Duisburg-Essen · 교수)

Katherine Conway-Turner(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Geneseo · 교수)

Hideki Watanabe(Keio University · 교수)

Shigeki Matsuda(Dai-ichi Life Research

Institute Inc.)

연구보조원 : 안혜원(숙명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이소화(숙명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신정민(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7-21-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부모자녀 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7-21-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동덕여대, 이화여대, 델라웨어대학, 뒤스브르크에센대학, 게이오대학, 남스톡홀름대학
07-21-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델라웨어대학, 뒤스브르크에센대학, 게이오대학, 남스톡홀름대학
07-21-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델라웨어대학, 뒤스브르크에센대학, 게이오대학, 남스톡홀름대학
07-21-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슬로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은정 연구위원	민경석(세종대학교, 전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게이오 대학교 (일본)	Hideki Watanabe 교수	Shigeki Matsuda (다이이치세메 경제연구소) 배지혜 (게이오 대학) Yasuaki Aota(게이오 대학) Masayuki Ozawa(게이오대학)
	델라웨어 대학교(미국)	Bahira Sherif Trask 교수	Melina McConatha Rosle (델라웨어대학) Bethany Willis Hepp (델라웨어대학)
	뒤스브르크에센대학교 (독일)	Gudrun Quenzel 박사	Michaela Janotta (뒤스브르크에센대학) Janina Herrmann (뒤스브르크에센대학)
	남스톡홀름대학교 (스웨덴)	최연혁 교수	Peter Strandbrink (남스톡홀름 대학)
	오슬로 대학교 (노르웨이)	박노자(Tikonov) 교수	고미숙(연구공간 수유+너머) 나임윤경(연세대학교) 권인숙(명지대학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2006년에 실시한 5개국(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5개국 청소년들의 가족내 사회화과정의 특징을 비교하고, 각국 청소년들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비교함.
- 5개국 청소년들의 가족내 사회화 과정 중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의 차이, 가정배경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 성별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 등을 비교하여, 각국 청소년들의 가족내 사회화과정의 특징을 비교함.

2. 주요 연구내용

- 모든 국가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에게 더 지지적이었으며, 상위정신노동직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그 외 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보다 자녀를 더욱 민주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는 등 아버지의 직업적 계층에 따라 자녀양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국가에서 부모들의 자녀양육방식이 젠더화(gendered)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 부모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녀를 구별하기보다 부모의 자녀교육방식이 부모의 성에 따라 패턴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다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 즉 보다 지지적인 관계는 모녀관계에 찾을 수 있음.
- 미국, 독일, 스웨덴의 아버지가 한국과 일본의 아버지보다 자녀를 더욱 민주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한국 청소년의 부모

자녀관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대체로 지지적 관계 정도가 낮고 통제적 관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등 4개국을 비교한 결과 청소년의 성역할에 있어서 스웨덴이 성별차이가 가장 작게, 한국이 가장 크게 나타났음.
- 한국의 경우, 부모-자녀 관계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학업 성취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면서 자녀의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사교육비 수준은 높아지지만,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사교육비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 미국, 일본 3개국 고교생의 교육포부와 가족배경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부모의 경제적 자본과 인적 자본보다 사회관계 자본이 자녀의 교육포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남녀차이가 크게 나타남. 반면, 일본은 부모의 인적 자본과 사회관계 자본이 자녀의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치며, 남녀차이는 작게 나타남. 미국은 부모의 사회관계 자본보다는 경제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영향이 크며,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 더 큰 차이를 보임.
- 2006년 웰청소년보고서에 의하면, 1970년대에 비해 독일 청소년들이 ‘안전’, ‘열심히 일하는 것’, ‘야망’, ‘공손함’, ‘가족생활’과 같은 과거에 중요했던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변화는 특히 높은 실업률에 의한 것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동시에 친구, 애인, 가족들 속으로 도피하는 경향을 보임.
- 미국 청소년에 대한 몇몇 연구들은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성공하는 청소년의 복원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모든 사회적 자원의 결핍상태로 이해해서는

근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아직 그것이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지는 못했으나 대체로 성격, 성별, 가족, 소속집단, 지역공동체, 종교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목 차

I. 서론

II. 자녀 사회화 방식의 직업계층 및 국가별 비교

1. 문제제기	9
2.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10
3. 연구내용 및 방법	16
1) 변수의 설정과 측정	17
2) 연구가설	20
4. 분석 결과	22
1) 아버지의 직업계층과 자녀 양육방식	22
2) 어머니의 직업계층과 자녀 양육방식	25
5. 요약 및 결론	30

III.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동(한국)·서양(독일 및 스웨덴) 비교연구

1. 서론	39
2. 이론적 배경	40
1)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	40
2) 심리적 요인과 학업성취	41
3) 부모와 상호작용과 학업성취	43
3. 상호작용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44
1) 연구대상과 방법	44
2)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요인	45
3) 동서양 차이-심리적, 행동적 차원	46
4) 가정배경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50

4. 부모와 상호작용의 영향	56
1)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57
2)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60
3) 학업성취 및 자아존중감 결정요인	63
5. 결론	67

IV. 독일 청소년의 문화, 가치관 그리고 가족

1. 인턴십 세대	73
2. 청소년기: 자유와 압박 사이	74
3. 친구, 애인 그리고 가족	75
4. 가정문제	76
5.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교육의 본보기가 되는 부모	79
6. 학교와 직업교육: 가정환경의 중요성	81
7. 잘나가는 젊은 여성들	82

V. 한국, 일본, 미국 고교생의 교육열과 가족배경의 비교

1. 문제설정	87
1) 자녀의 교육을 지지하는(support) 가족 자본	87
2) 경험적 견해	88
2. 한국, 일본, 미국의 가족 및 교육의 차이	91
3. 가설	92
4. 자료, 변수, 방법	94
1) 자료	94
2) 종속변수	95
3) 독립변수	95
4) 통제변수	96
5) 분석방법	97
5. 분석	97

1) 희망교육년수와 가족배경의 비교	97
2) 중다회귀분석	99
6. 결론	102
VI.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부모-자녀 관계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1. 서론	113
2. 이론적 배경	116
1)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원, 사교육비, 그리고 자녀의 학업성취 사이의 관계	116
2) 부모-자녀 관계	118
3) 연구설계	121
3. 연구방법	123
1) 연구대상	123
2) 측정도구	125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127
4. 결과	127
1) 상관관계 분석	127
2) 측정모형 검증	129
3) 구조모형 분석	129
5. 결론 및 토의	134
VII. 국가별 청소년 자녀와 부모관계의 성차: 부모의 지지와 통제 차원을 중심으로	
1. 문제제기	147
2. 기존연구 고찰	149
1) 청소년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의 지지와 통제 차원	149

2) 부모의 성별에 따른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151
3) 자녀의 성별에 따른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관계	153
4) 종합과 가설설정	155
3.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156
1) 연구 자료	156
2) 분석 방법	158
3) 분석결과	161
4. 토의와 결론	168

VIII. 4개국 청소년의 성역할인지와 가족관계 요인분석: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1. 청소년 성인지에 있어서의 가족관계의 영향	179
2. 설명변수와 연구방법	180
3. 4개국 청소년 성역할 인식도의 비교	182
4. 성역할 인지와 성별차이	187
5. 가족관계의 영향 : 가정내 가사노동분담	191
6. 가족관계의 영향 : 가정내 부모-자녀간 소통방식	198
7. 가족관계의 영향 : 부모와의 자녀 일체화 정도	202
8. 다변인분석 (Multivariate analysis)	205
9. 결론	208

부 록

1. 제 변수의 정의	212
2. 가족내 제 관계와 자녀 성역할 인식의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213

IX. 인종, 계층 그리고 젠더가 미국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1. 서론	219
2. 학교내의 청소년들	221
3. 청소년의 복원력	223
4. 젠더와 청소년	223
5. 맥락 속에 존재하는 청소년들	224
6. 결론	227
X. 요약 및 결론	
1. 요약	233
2. 결론	235

표 목 차

<표 II-1> 5개국 자녀양육방식 관한 요인분석	18
<표 II-2> 직업계층 분류	20
<표 II-3>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과 강압적 양육수준 차이(평균값)	23
<표 II-4>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수준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	24
<표 II-5>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수준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	25
<표 II-6>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과 강압적 양육수준 차이(평균값)	27
<표 II-7>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수준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	28
<표 II-8>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수준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	29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요인	46
<표 III-2>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자신감에서 동서양 차이	47
<표 III-3> 아버지와 관계요인에서 동서양 차이	49
<표 III-4> 각 분석요인 별 상관정도	50
<표 III-5> 가정배경에 따른 학업성취의 동·서양 차이	51
<표 III-6> 가정배경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동·서양 차이	52
<표 III-7> 자아존중감에 따른 학업성취의 동·서양 차이	52
<표 III-8> 부모의 기대학력에서 동·서양 차이	53
<표 III-9> 본인의 기대학력에서 동·서양 차이	53
<표 III-10> 가정배경에 따른 아버지의 활동참여와 관심의 차이	54
<표 III-11> 아버지가 자주하는 말에서 동·서양 차이	55
<표 III-12> 듣기 싫은 말에서 동·서양 차이	56
<표 III-13> 아버지의 애착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57
<표 III-14> 아버지의 상담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58
<표 III-15> 아버지의 간섭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58

<표 III-16> 아버지와 갈등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59
<표 III-17> 아버지의 기대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60
<표 III-18> 아버지의 애착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60
<표 III-19> 아버지와 상담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61
<표 III-20> 아버지의 간섭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61
<표 III-21> 아버지와 갈등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62
<표 III-22> 아버지의 기대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62
<표 III-23> 학업성취에 미치는 요인	65
<표 III-24>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요인	66
<표 IV-1> 시간 추이에 따른 비교: 가족의 의미에 대한 주관적 중요 성의 변화	76
<표 IV-2> 자신의 생활에서 아이의 의미에 대한 태도	77
<표 IV-3> 사회적 개인특성에 따른 아이에 대한 소망	78
<표 IV-4> 관련 있는 사회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자기 자녀의 교육	79
<표 IV-5> 자녀를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시키길 원하는 비율	80
<표 IV-6> 청소년들의 졸업과 아버지의 학력	81
<표 IV-7> 졸업 성공 여부에 따른 직업적 지위	82
<표 IV-8> 재학 중인 학교의 시기적 비교	83
<표 IV-9> 원하는 교육수준에 대한 시기적 비교	83
<표 V-1> 한국, 일본, 미국 고교생의 희망교육연수 기술통계	98
<표 V-2> 한국, 일본, 미국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	98
<표 V-3> 한국, 일본, 미국 부모의 교육연수 기술통계량	99
<표 V-4> 한국, 일본, 미국 부모의 교육기대 기술통계량	99
<표 V-5> 한국, 일본, 미국 청소년의 희망교육연수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102
<표 VI-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통계치	124

<표 VI-2> 잠재변인 구성 변수별 기술 통계치	126
<표 VI-3> 연구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128
<표 VI-4>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과 적합도	129
<표 VI-5> 각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비교	131
<표 VI-6>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사교육비와 부모-자녀관계→ 자녀의 학업성취에 있어서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	134
<표 VII-1> 국가별 응답자의 연령 분포	158
<표 VII-2> 관계척도의 구성 항목과 국가 및 부모·자녀 성조합별 신뢰 도 (Chronbach's α)	159
<표 VII-3> 지지적 관계와 통제적 관계 간 상관관계 및 공변량에 관 한 동질성 검정	160
<표 VII-4> 부모 및 자녀 성별 지지적 관계 척도와 통제적 관계 척도의 평균값	161
<표 VII-5> 부모성별과 자녀성별의 효과 검정 (ANOVA)	163
<표 VII-6> 종속변수에 대한 부모·자녀 성별 조합 간 평균 차이 검증 (Turkey's HSD)	166
<표 VII-7> 종속변수에 대한 국가 간 평균 차이 검증(Turkey's HSD)	167
<표 VIII-1> 4개국 청소년의 성역할 인지도	183
<표 VIII-2> 성별 성역할인지와의 교차분석: 4개국 비교	189
<표 VIII-3> 자녀의 성별로 통제된 가정 내 부모의 가사노동의 참여정 도와 자녀의 성역할 인지와의 관계- 한국	193
<표 VIII-4> 자녀의 성별로 통제된 가정 내 부모의 가사노동의 참여정 도와 자녀의 성역할 인지와의 관계- 일본	194
<표 VIII-5> 자녀의 성별로 통제된 가정 내 부모의 가사노동의 참여정 도와 자녀의 성역할 인지와의 관계- 독일	195
<표 VIII-6> 자녀의 성별로 통제된 가정 내 부모의 가사노동의 참여정	

도와 자녀의 성역할 인지와의 관계- 스웨덴	196
<표 VIII-7> 자녀의 성별로 통제된 가정내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과 자녀의 성역할 인지와의 상관관계- 한국	200
<표 VIII-8> 자녀의 성별로 통제된 가정내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과 자녀의 성역할 인지와의 상관관계- 일본	200
<표 VIII-9> 자녀의 성별로 통제된 가정내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과 자녀의 성역할 인지와의 상관관계- 독일	201
<표 VIII-10> 자녀의 성별로 통제된 가정내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과 자녀의 성역할 인지와의 상관관계- 스웨덴	201
<표 VIII-11> 자녀의 성별로 통제된 가정내 부모와의 일체화정도와 성 역할 인지와의 상관관계- 한국	203
<표 VIII-12> 자녀의 성별로 통제된 가정내 부모와의 일체화정도와 성 역할 인지와의 상관관계- 일본	204
<표 VIII-13> 자녀의 성별로 통제된 가정내 부모와의 일체화정도와 성 역할 인지와의 상관관계- 독일	204
<표 VIII-14> 자녀의 성별로 통제된 가정내 부모와의 일체화정도와 성 역할 인지와의 상관관계-스웨덴	205
<표 VIII-15> 가족내 제 관계와 자녀 성역할 인식의 다중회귀분석- 한국	206
<표 VIII-16> 가족내 제 관계와 자녀 성역할 인식의 다중회귀분석- 일본	207
<표 VIII-17> 가족내 제 관계와 자녀 성역할 인식의 다중회귀분석- 독일	207
<표 VIII-18> 가족내 제 관계와 자녀 성역할 인식의 다중회귀분석- 스웨덴	207
<표 IX-1> 극빈층으로 살고 있는 청소년	220
<표 IX-2> 인종/민족 별 18~24세의 고등학교 졸업 비율(1972~2000)	221

그림 목 차

[그림 V-1] 교육열에 미치는 가족배경의 영향과 성별 차이에 대한 비교	106
[그림 VI-1] 연구모형 1과 2	123
[그림 VI-2]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	130
[그림 VI-3]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비,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	132
[그림 VIII-1] 자녀 성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의 제 설명 변수	182
[그림 VIII-2] 가족내 제 관계와 자녀 성역할 인식의 다중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206

I. 서론

I. 서론

이 보고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협동 연구로 진행하는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중 2006년에 실시한 5개국 설문조사데이터를 이용한 논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2006년 5개국 설문조사결과는 2006년도 보고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에 정리되었다. 2006년도 연구의 주제는 가족내 사회화과정으로 가족구조,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사회화, 부모자녀관계, 청소년들의 생활·참여·의식 등에 대한 기초분석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구조 비교에서는 5개국 조사 대상국 모두에서 친아버지, 친어머니 모두와 함께 사는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그 비율이 기타 4개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자가정 비율에서는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낮았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혼, 재혼 등이 크게 늘어났지만, 서구 유럽의 가족구조와 비교하면 아직 ‘친아버지, 친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부모자녀관계 비교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부모와의 갈등관계를 위주로 조사하였는데, 이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조사대상국 모두 공통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긍정적인 친밀한 의사소통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국 모두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갈등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청소년 자녀들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접촉이 많고, 관계의 질이 높기 때문에 어머니와 친밀한 의사소통을 하는 동시에 갈등과 불화도 빈번하게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

어머니들의 관심영역은 조사대상국에서 비슷하였으나 아버지들의 관심영역에서는 차이가 났다. 예를 들면, 스웨덴 아버지들은 학업관련 뿐 아니라 자녀의 여가·취미생활과 친구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

한국 아버지들은 학업관련 영역에는 관심이 높은 반면, 자녀의 이성 관계나 여가·취미생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아직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생활·참여·의식 부문에서는 생활시간, 고민, 가사노동 참여, 독립·자립의식, 직업의식, 성역할의식, 자아개념 등을 살펴보았다. 그 중 특이한 사항은 귀가 시간이다. 한국 청소년들 대부분은 방과 후 보충수업과 학원 등 학업관련 활동 때문에 귀가 시간이 늦은 반면, 서구 국가 청소년들은 귀가 시간이 상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귀가시간만 보더라도 한국의 청소년들이 과중한 학업부담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국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족구조, 부모자녀관계, 생활시간, 가치관 등에서 공통점도 있지만, 동시에 차이점도 많이 발견되었다. 각 국가의 가족구조, 대화빈도, 의사소통 수준, 생활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또한 한국의 가족구조는 아직 양친부모가정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2006년도 조사결과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자료로서 2007년에는 2006년 설문조사결과의 추가분석을 위해 조사 데이터를 공개하여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통한 학계의 연구참여를 도모하였다. 이에 2007년 4월 20일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anging Fam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국제학술심포지엄에는 국외협동연구기관인 일본 게이오대학교, 스웨덴 남스톡홀름대학교, 독일 뒤스브르크 에센 대학의 연구진이 참여하였으며, 기타 국내외 일반연구자들이 참여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크게 가족, 학업성취와 관련된 것과 젠더 및 인종에 관련된 것 두 가지이다. 각 장별로 보면, 제2장 「자녀 사회화 방식의 직업계층 및 국가별 비교」는 2006년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5개국(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을 비교한 연구이며, 제3장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2006년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한국, 미국, 스웨덴 3개국을 비교한 연구이다. 제4장 「독일 청소년

의 문화, 가치관 그리고 가족」은 「2006 웰청소년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된 논문이며, 제5장 「한국, 일본, 미국 고교생의 교육열과 가족배경의 비교」는 2006년 조사결과 중 한국, 일본, 미국 자료를 활용한 비교연구이다. 제6장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 조사의 2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논문이다. 제7장 「국가간 청소년 자녀와 부모관계의 성차 : 지지와 제 차원을 중심으로」는 2006년 조사결과자료를 활용한 5개국(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비교 연구이다. 제8장 「4개국 청소년의 성역할 인지의 가족관계 요인분석」은 2006년 조사결과를 활용한 4개국(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비교연구이다. 마지막으로 제9장 「미국의 청소년 : 인종, 젠더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중심으로」는 젠더와 인종적 차이를 통해서 빈곤층 미국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을 정리한 논문이다.

II. 자녀 사회화 방식의 직업계층 및 국가별 비교

1. 문제제기
2.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3. 연구내용 및 방법
4. 분석 결과
5. 요약 및 결론

II. 자녀 사회화 방식의 직업계층 및 국가별 비교*

1. 문제제기

1970년대 산업화로 인해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교육기회 역시 확대되어 왔다.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산업화와 더불어 국민의 평균학력은 지속적으로 신장되어 왔다. 평균 교육년수는 1975년 6.6년이었지만, 1995년에는 10.3년, 2000년에는 10.6년, 2005년에는 11.2년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 현재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고등학생 졸업자 중 4년제 대학 진학률은 71.1%이고, 전문대학과 교육대학까지 합치면 82%로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교에 진학할 정도로 한국의 교육열은 높다(통계청, 2006).

하지만 평균 교육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사회계층별로 차이가 나고 그 차이는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상수, 2001; 방하남·김기현, 2001; 2002; 2003; 2004; 남춘호, 2004; 한국교육개발원, 2007). 교육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직업적 지위나 계급적 위치, 소득을 얻는 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지배 권력과 통제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제공하기에(장상수, 2001: 23),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자녀의 교육에 관심과 자원을 쏟기 마련임에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차이를 부모의 직업위세나 소득 혹은 학력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령, 사교육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은 현행 교육체계에서 소득이 높은 부모는 사교육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경쟁에 앞선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위세나 학력 등을 독립변인으로 내세울 때도 별다른 이론적 설명 없이 상관관계만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회계층별 차

* 집필자 : 윤인진·임창규(고려대학교)·정재영(Core Research & Consulting). 본 논문은 집필진이 국제학술대회 발표 이후 수정하여 『한국청소년연구』 제 32호에 게재한 것임.

이를 소득과 같은 물질적 조건의 차이로만 환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과 중산층간에는 경제적 여건의 차이 외에도 교육에 대한 태도, 자녀양육행동, 직업가치관, 학업성취 동기 등 사회심리적 현상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자녀의 학업성취와 취업, 그리고 직업선택과 같은 사회경제적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사회계층과 사회심리적 요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한다. 궁극적으로는 부모의 사회계층별로 자녀 양육방식, 학업과 직업성취에 대한 기대수준과 관여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이런 차이가 자녀의 성역할 의식, 사회의식, 자아정체감과 같은 태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경제적 자립 의지, 학업성취와 희망교육수준, 직업가치관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조사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연구의 첫 단계로서 부모의 사회계층과 자녀 양육방식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부모의 사회계층의 가장 중요한 차원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아버지의 직업계층별로 자녀 양육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최근 어머니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경제활동이 자녀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직업계층별 자녀양육 방식의 차이로 조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귀속적 신분, 정치권력 등에 의해 결정되던 전(前) 산업사회와는 달리, 현대 산업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주로 개인이 성취한 직업적 지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방하남·김기현, 2001: 2-3). 직업위계에 따라 달리 보상되는 수입은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생활기회와 밀접히 연관되므로 직업은 계층구조의 가장 강력한 단일지표로 간주되기도 한다(유홍준·김월화, 2002: 37).

그런데 직업은 대부분의 경우 학력을 통해 획득하게 되고 학력을 획득하기 위한 학업성취는 우선적인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학력이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한 사다리로 기능하고 있는 ‘학력사회’에서 학업성취는 각종 교육적·사회적 선발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학교 내적 요인(학교의 교육조건, 학급편성, 학급규모, 학교풍토 및 학생문화, 교사의 역할)과 학교 외적 요인(지능,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중요한 타인으로서 부모의 역할)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김경근, 1996: 85-88). 많은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에 가족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 외국의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의 재정적, 인적, 사회적 자원을 포함하는 가족환경은 자녀의 지적인 수준과 학업능력의 계발, 행동과 정서, 그리고 가치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인 것이다(Coleman, 1988; Bronfenbrenner, 1989; Kohn, 1959, 1963, 1969). 국내의 연구들 역시 부모의 행동과 자녀의 학업성취도(정원식, 1979; 임은미, 1998; 문은식·김충희, 2003),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성취(장상수, 2000, 2004; 김기현, 2004; 남춘호, 2004), 가족의 문화자본과 직업결정과정(전경애, 2001), 어머니의 직업과 직업포부수준(하경화, 2002) 사이에 밀접한 상관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이수(1997: 6)는 부모의 직업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화이트칼라인 경우가 블루칼라인 경우보다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김영화·김병관(1999: 155)은 아버지의 교육수준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이 학업성취가 자녀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해왔다고 보고하였다. 김광익(2003)은 고소득직군 아버지의 자녀 입학률은 비소득직 아버지에 비하여 20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07)이 최근 출간한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

1) 가족배경,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효과는 교육기회가 확대되어도 감소하지는 않으며(Mare, 1980, 1981; 방하남·김기현, 2003; 장상수, 2000, 2004), ‘초·중·고·대·대학원’으로 이어지는 교육단계 속에서 중·후기 단계로 옮겨가도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여전히 중요하다(임은미, 1998; 장상수, 2000; Chang, 2003).

의 영향력 분석』 보고서에서는 법조인이나 기업체 고위 임원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종 종사자의 자녀가 단순노무직 등 하위 직종 종사자의 자녀보다 8배 이상 특목고에 많이 입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내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부모의 문화자본(학력)과 경제자본(소득)의 차이로 환원하여 학업성취의 사회심리적 기제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방하남(2004: 49)은 가족의 배경과 학업성취 사이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정서적 연대로서의 가족에 관한 실증적 자료나 연구결과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일찍이 지적하여 왔다. 위스킨신모형(Wisconsin Model)으로 불리는 사회심리모형에서는 개인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구성원(부모)이나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들의 관심과 격려, 기대 그리고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보고 배우게 되는 역할모범(role model) 등 사회심리적 자원 자체가 사회계층간에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도 사회경제적 성취정도는 계층 간 불평등하게 나타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Sewell, Haller, and Portes, 1969; Sewell and Hauser, 1975; Sewell, Hauser, and Wolf, 1980 (방하남·김기현, 2002: 219)에서 재인용).

정서적 연대로서의 가족은 자녀의 성취동기와 목표의식 형성을 통해 자녀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며(방하남, 2004: 26), 특히 의미 있는 타자들 중 1차적 존재인 부모의 직업과 개인생활이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역할모형이 되어 자녀의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Mortimer, 1996). 또한 부모의 자율성 증진행동은 유아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자녀의 학업성취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임은미, 1998),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의해 창출되어 주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 및 시간의 투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가족의 사회자본(Coleman, 1988)은 국내외에서 자녀의 학업성취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o and Willms, 1996; 김경근, 2000: 36).

다른 연구도 가족의 소득수준이나 빈곤이 부모의 정신건강과 가족에 위기

를 초래하고 양육방식을 변화하여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Ku and Plotnick, 2003). 즉,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스트레스를 증대하여 부모가 부적절한 양육방식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자녀의 학구적 발달과 학업성취를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McLoyd(1990; 1998)는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빈곤가정은 적절치 못한 수준의 식생활과 주거생활을 경험하고, 위험한 주변환경에 노출된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열악한 생활조건과 경제적 어려움을 면하기 어렵다는 예상으로 인해 빈곤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증대되고, 부모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에 소홀하게 되고,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학업에 대한 기대와 개입 또한 줄어든다. 이러한 양육방식으로 인해 빈곤자녀는 최적의 학구적 발달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는 낮은 교육성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구인회(2003: 9)에서 재인용).

Casanova(2005)는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여 및 성공에 대한 기대의 상관도를 비교하였는데 학업성적이 평균보다 낮은 학생의 경우 사회경제적 변인은 별 상관 없이 있었지만 부모의 관여와 기대수준은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녀의 학업성취가 사회심리적 변인, 예를 들어 부모의 관여수준과 기대, 자녀의 교육과 직업에 대한 포부수준 등과 높은 상관이 있으며 이는 다시 부모의 사회계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Maccoby(1980)는 자녀의 출생순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 연구했는데 어머니는 첫 번째 자녀에 대해 이후의 자녀들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관심과 관여를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에 따르면 어머니는 첫 번째 자녀의 문제해결 노력에 더욱 관여하고 그 자녀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더욱 강한 압력을 가한다고 한다. 이런 압력은 첫 번째 자녀와 어머니간에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더욱 높은 성과를 낳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자녀는 이후의 자녀들보다 SAT 점수가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계층별 자녀양육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Duvall과 Kohn이 선도적인 연구를 하였다. Duvall(1946)에 따르면 노동계층의 부모들의 가치관은 “전통

적(traditional)”이어서 자녀들이 단정하고 청결하며,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가르친다고 한다.²⁾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간계층의 부모들은 “발전적(developmental)”이어서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길 원하며 부모에게 많은 것을 배우기를 바란다고 한다. 또한 자녀들이 행복해하고, 협동적이며 함께 나누고, 건강하고 부유해지길 바란다고 한다. 즉, 노동계층의 부모는 자녀들이 외부의 권위에 순응하길 바라고, 중간계층의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의 내적인 역동성(internal dynamics)에 집중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Kohn(1959) 역시 1956-1957년 경험적 분석을 통해 Duvall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그에 따르면 노동계층의 부모는 순응(obedience)·단정함(neatness)·청결함(cleanliness)을, 중간계층의 부모는 호기심·행복·사려깊음·자기통제(self-control)와 같은 가치를 좀 더 중시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동자계층의 부모는 외부의 금지(proscription)에 순응하는 편이나, 중간계층의 부모는 자기지향적(self-direction)이라는 것이다. 노동자계층의 부모에게는 외현적 행동(外顯的 行動, overt act)이 중요한 문제이기에 그들의 아이는 외부에서 부여된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만 중간계층의 부모에게는 자녀의 동기와 감정이 중요하기에 자녀는 그들 스스로를 다스려야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Kohn은 이러한 사회계층별 차이를 부모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사회계층으로부터 겪은 삶의 경험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종류와 양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해석한다(Kohn, 1959, 1963, 1969, 1976, 1979, 1981; Gecas, 1979).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사회계층별 차이를 부모의 학력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학력 외에도 사회계층의 삶의 조건의 차이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Kohn(1963: 473)은 노동계층과 중간계층의 가치관 차이를 그들이 처한 삶의 조건의 차이에서 찾는다. 직업적 차이는 산업사회에서 사회계층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상황을 상당부분 결정한다. 중간계층의 직업은

2) 계층(stratification)과 계급(class)과 이라는 용어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구해근과 홍두승(2001: 28-32)을 따라 계급과 계층을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보고 큰 구분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다.

소득의 안정성, 사회적 위세 외에도 노동계층의 직업과 최소한 3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첫째, 중간계층의 직업은 대인관계, 이념(ideas), 상징(symbols)을 취급하는 반면, 노동계층의 직업은 사물(things)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둘째, 중간계층의 직업은 보다 더 자율적인데 반해, 노동계층의 직업은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상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놓여있다. 셋째, 중간계층의 직업에서의 성공은 자신의 행동에 의존하는 것이지만 노동계층의 직업은 노동조합과 같은 집합적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로부터 중간계층과 노동계층의 직업에서 성공에 유리한 특성의 차이를 묘사할 수 있다. 중간계층직업은 보다 자기지향적 성향을 요구하고 노동계층직업은 대부분 외부권위에 의해 지시된 명확한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된다. 따라서 중간계층의 부모는 주관적이며 복잡한 것을 사고하도록 배운 그들의 능력을 통해 자녀들이 내적 기준에 의해서 자신들이 세운 목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능력과 자세를 강조한다. 또한 중간계층의 소득수준과 소득안정성은 그들의 삶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동기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한다(Kohn, 1963: 475-477).

또한 부모는 자녀들이 동일시하고 태도와 가치를 내재화하는 원형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직업발달의 초기와 중간 단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다(Super, 1957). Perrone(1965)은 7, 8학년의 여학생과 그들 부모의 직업가치관을 비교한 결과, 자녀들은 그들 부모들 중에 어느 한 쪽에 좀 더 많은 동일시를 하게 되며, 자녀의 직업가치관은 부모의 직업형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Goodale과 Hall(1976)은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녀의 직업가치관이 부모들의 직업과 직접 관계되며 부모의 배경이나 태도와는 관련이 적다는 것을 밝혀냈다. Kinnane과 Pable(1962)은 2개 고등학교로부터 121명의 11학년 여학생들의 직업가치관과 가족 배경을 조사하여 가족의 영향이 직업가치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임언·정윤경·상경아(2001)에서 재인용).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어머니의 경제활동은 아버지의 경제활동 못지않게 자녀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어머니의

경제활동은 아들보다는 딸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Wolfer와 Moen(1996)의 연구는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가 미치는 자녀 사회화에 대한 영향이 자녀의 성별 및 인종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Kohn(1977)은 어머니의 경제활동이 자녀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은 궁극적으로 어머니고 갖고 있는 직업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외국의 연구에 비교해서 국내 연구에서는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사회계층별 자녀양육방식과 자녀의 학업성취에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심도 있게 연구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Duvall과 Kohn이 주장한 것처럼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 자녀양육 방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계층에 따라 자녀양육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5개국의 자녀 사회화 자료를 사용해서 부모의 직업계층과 자녀양육방식간의 관계가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이 2006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한 「가족내 자녀사회화과정에 관한 조사」 자료이다. 조사대상은 한국의 중2에서 고2까지 해당하는 청소년들이다. 원래 국제비교조사를 실시할 때는 모집단의 설정, 표집방법, 조사방법 등 모든 조사의 조건과 방법을 동일하게 하려 하였으나 시간과 조사비용의 제약으로 인해 2006년 조사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국가간 비교를 할 때 조사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 각별한 주위가 요구된다.

표집방법과 관련하여 한국은 전국의 중학교 2년에서 고등학교 2년생까지를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표집된 중고등학교로부터 집단면접조사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일본 조사는 동경의 고등학생들을 주민표로부터 임의추출하여 방문유치법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스웨덴은 전국의 중등학생을 대상

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독일은 베를린 내 김나지움과 종합학교 각각 1개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미국은 당초 두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학교섭외에 실패하여 전국 중고생을 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세한 표집과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 비교연구 I』 보고서를 참조하라(김현철·김은정 외, 2006).

1) 변수의 설정과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방식(또는 자녀양육행동)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2006년 「가족내 자녀사회화과정에 관한 조사」 자료에는 부모-자녀관계의 성격을 29개의 문항들을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부모-자녀관계 문항들 중 아버지-자녀관계와 어머니-자녀관계에 관한 문항들을 사용해서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을 측정하였다. 29개의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에서는 크게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민주적 양육’으로 불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거나, 잘 이해하거나, 대화를 자주 나누거나, 자녀의 능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 주거나 하는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강압적 양육’으로 불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부모가 자녀를 때리거나,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자녀에게 욕설을 하거나, 화풀이를 하는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요인은 ‘상담적 양육’으로 불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부모가 자녀와 성적문제, 교우문제, 이성관계, 선생님과의 문제 등에 대해 상의하거나 상담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자료에 동일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추출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경우에 2개의 요인이 분명하게 추출되었다. 따라서 국가비교연구 목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민주적 양육’과 ‘강압적 양육’으로 요인을 구분하고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표 II-1> 참조).

<표 II-1> 5개국 자녀양육방식 관한 요인분석

문 항		component		공통 성
		1	2	
민 주 적 양 육	아버지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771		.605
	아버지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692		.576
	아버지는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727		.597
	아버지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768		.593
	아버지는 대화를 자주하는 편이다	.796		.638
	아버지는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준다	.800		.643
	아버지는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725		.532
	아버지는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728		.535
	아버지는 나의 능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준다	.737		.576
	아버지는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	.724		.527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724		.598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609		.442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신다	.647		.445
	강 압 적 양 육	아버지는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		.734
아버지는 나를 심하게 때릴 때가 있다		.745	.560	
아버지는 내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가한다		.448	.201	
아버지는 내게 이유 없이 화풀이를 한다		.772	.616	
아버지는 내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		.818	.705	
아버지는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702	.503	
아버지는 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한다		.641	.414	
고유치(Eigen Value)		7.708	3.145	
민 주 적 양 육	어머니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720		.531
	어머니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658		.504
	어머니는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715		.567
	어머니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754		.574
	어머니는 대화를 자주하는 편이다	.748		.567
	어머니는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준다	.793		.632
	어머니는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715		.514
	어머니는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706		.502
	어머니는 나의 능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준다	.711		.525
	어머니는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	.702		.495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666		.501
	어머니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552		.360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신다	.642		.423
	강 압 적 양 육	어머니는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		.752
어머니는 나를 심하게 때릴 때가 있다		.767	.596	
어머니는 내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가한다		.483	.249	
어머니는 내게 이유 없이 화풀이를 한다		.762	.589	
어머니는 내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		.827	.706	
어머니는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685	.486	
어머니는 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한다		.582	.339	
고유치(Eigen Value)		7.121	3.114	

민주적 양육방식을 변수로 만들기 위해 민주적 양육과 관련된 13개 문항들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측정하였고, 한국 아버지의 경우 13개 문항들의 크론바하 알파값이 0.9로 신뢰도 수준이 매우 높았다. 동일한 방식으로 강압적 양육방식은 강압적 양육과 관련된 7개의 문항들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측정하였고, 한국 아버지의 7개 문항들의 크론바하 알파값이 0.8로 신뢰도 수준이 높았다.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방식과 강압적 양육방식도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였고, 모든 국가에서 두 변수의 척도가 능성 수준이 높았다. 어머니의 민주적 자녀양육방식과 강압적 양육방식 변수의 척도가능성 수준도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매우 높았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계층이다. 직업계층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고한 직업 종류와 학력 수준을 결합하여 이론적으로 총 6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자료에서는 부모의 직업을 모두 18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런 분류만으로는 직업 지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회사원이라는 직업에는 부장으로부터 평사원까지 다양한 직급이 있는데 이런 직급 차이를 판별해 낼 수 있는 정보가 없다. 따라서 직업지위에 학력 수준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기초하여 직업 종류와 학력 수준을 결합해서 직업계층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우선 직업 종류는 교수, 교사, 회사원, 공무원, 사업가, 의료인, 연구원, 경찰, 군인, 성직자, 법조인, 방송인, 예술가, 스포츠인, 연예인을 ‘정신노동직업’으로 묶었다. 그 외 직업은 기능·노동직은 ‘육체노동직업’으로 리코딩하였고, ‘자영업’과 ‘기타’는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직업 구분은 정신노동, 육체노동, 자영업, 기타의 4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학력수준은 전문대(2,3년제) 이하의 학력과 대졸 이상(4년제)의 학력을 양분하였다. 직업구분과 학력수준을 결합하여 ‘상위정신노동’, ‘하위정신노동’, ‘상위육체노동’, ‘하위육체노동’, ‘자영업’, ‘기타’의 6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상위정신노동’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서 정신노동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위정신노동’은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고서 다양한 정신노동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상위육체노동’과 ‘하위

육체노동'은 각각 대졸 이상과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고서 다양한 육체노동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에서는 '상위육체노동직업'에 속하는 사례수가 매우 적어서 국가간 비교 목적으로 '상위육체노동'과 '하위육체노동'을 합쳐서 '육체노동'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실제 분석에서는 '상위정신노동', '하위정신노동', '육체노동', '자영업', '기타'의 5개 직업계층 분류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주부'라는 별도의 범주를 포함하여 6개의 직업계층 분류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독립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통제변수로 자녀의 성별, 연령, 학교성적, 아버지(어머니)가 친아버지(친어머니)인지 양아버지(양어머니)인지의 구분을 포함하였다.

〈표 II-2〉 직업계층 분류

구 분		아버지 직업			
		정신노동	육체노동	자영업	기타
대학 교육 여부	대졸	상위정신노동	상위육체노동	자영업	기타
	전문대졸 이하	하위정신노동	하위육체노동		

2) 연구가설

앞장의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에 따라 상위정신노동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어머니)는 육체노동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어머니)에 비교해서 자녀를 민주적으로 양육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과 같이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에서는 미국, 독일, 스웨덴과 같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에 비교해서 민주적 양육수준은 낮고 반대로 강압적 양육수준은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부모의 성별도 자녀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교해서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민주적 양육수준은 낮고 강압적 양육수준이 높

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런 예측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직업계층별로 민주적 양육방식과 강압적 양육방식에 차이가 있다.

하위가설 1-1: 상위정신노동직업이 다른 직업계층에 비교해서 민주적 양육수준은 높으나 강압적 양육수준은 낮다.

하위가설 1-2: 육체노동직업이 다른 직업계층에 비교해서 민주적 양육수준은 낮으나 강압적 양육수준은 높다.

가설 2: 국가별로 민주적 양육수준과 강압적 양육수준에 차이가 있다.

하위가설 2-1: 미국, 독일, 스웨덴이 한국과 일본에 비교해서 민주적 양육수준은 높으나 강압적 양육수준은 낮다.

가설 3: 직업계층별 민주적 양육수준과 강압적 양육수준의 차이는 국가별로 다르다.

하위가설 3-1: 미국, 독일, 스웨덴이 한국과 일본에 비교해서 민주적 양육수준과 강압적 양육수준에서 직업계층별 차이가 더 크다.

가설 4: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민주적 양육수준은 낮고 강압적 양육수준은 높다.

분석방법은 첫째,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통해서 국가별로 민주적 양육수준과 강압적 양육수준을 아버지(어머니)의 직업계층별로 비교하고 어느 직업계층간에 자녀양육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사후검증을 통해 조사하려고 한다. 둘째, 자녀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직업계층과 국가 변수가 독립적인 효과를 미치는지를 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해서 검증하려고 한다.

4. 분석 결과

1) 아버지의 직업계층과 자녀 양육방식

민주적 양육수준의 평균값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일본(2.88) < 한국(2.93) < 스웨덴(3.15) < 미국(3.21) < 독일(3.27)의 순서로 나타났다. 4점 척도에서 2.5점이 ‘보통’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보통 이상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양육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적 양육수준의 국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F-ratio=28.75, 자유도=4, p-value=0.000)하고 실질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일본이 가장 낮고 독일이 가장 높았다. 연구가설 2에서 예측했듯이 한국과 일본보다 미국, 독일, 스웨덴이 민주적 양육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당칸 사후검증 결과 한국·일본, 미국·스웨덴, 독일이 세 개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각 국가 내에서 직업계층별로 민주적 양육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 미국, 독일에서만 직업계층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상위정신노동·자영업 > 하위정신노동·육체노동 > 기타의 순서로 민주적 양육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상위정신노동직업·자영업 > 하위정신노동·기타 > 육체노동의 기타의 순서로 민주적 양육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독일에서는 직업계층별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 크지가 않아서 당칸 사후검증 결과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에서만 직업계층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직업계층별로 구분하면 상위정신노동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압적 양육수준의 평균값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스웨덴(1.38) < 독일(1.38) < 일본(1.43) < 한국(1.57) < 미국(1.58)의 순서로 나타났다. 4점 척도에서 2.5점이 ‘보통’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그다지 강압적인 방식으로 양육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압적 양육수준의 국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F-ratio=32.30, 자유도=4, p-value=0.000)하고 실질

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일본이 가장 낮고 미국이 가장 높았다. 덩칸 사후 검증 결과 스웨덴·독일·일본이 한국·미국과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는 연구가설 2에서 예측한 것과 받은 일치하고 나머지 받은 불 일치하게 나타났다. 연구가설 2와는 달리 일본이 강압적 양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미국이 높게 나타났다.

각 국가 내에서 직업계층별로 강압적 양육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모든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강압적 양육방식의 경우 국가별 차이는 크지만 직업계층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3〉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과 강압적 양육수준 차이(평균값)

직업계층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민주적	강압적	민주적	강압적	민주적	강압적	민주적	강압적	민주적	강압적
상위정신노동	2.93 (986)	1.58 (991)	2.88 (216)	1.39 (217)	3.21 (407)	1.53 (407)	3.27 (61)	1.31 (60)	3.15 (47)	1.36 (49)
하위정신노동	2.84 (735)	1.56 (746)	2.73 (108)	1.44 (111)	3.06 (304)	1.56 (304)	3.30 (169)	1.37 (179)	3.05 (64)	1.42 (68)
육체노동	2.84 (308)	1.54 (319)	2.66 (28)	1.46 (28)	2.89 (298)	1.64 (298)	3.16 (27)	1.52 (28)	3.05 (25)	1.23 (27)
자영업	2.91 (776)	1.55 (792)	2.78 (63)	1.55 (63)	3.16 (202)	1.52 (202)	3.06 (40)	1.37 (41)	3.00 (57)	1.34 (62)
기타	2.78 (286)	1.62 (286)	3.34 (4)	1.14 (4)	3.01 (375)	1.61 (375)	3.05 (29)	1.49 (30)	3.01 (166)	1.41 (168)
전체	2.88 (3091)	1.57 (3134)	2.82 (419)	1.43 (423)	3.07 (1586)	1.58 (1586)	3.23 (326)	1.38 (338)	3.04 (359)	1.38 (374)
F-ratio	5.87*	1.79	2.33	1.83	8.37*	1.93	2.55*	1.57	0.67	1.52

주 : 1. 괄호안의 수는 사례수임.

2. 일본의 경우 ‘기타’ 직업 사례수가 4에 불과하여 일원변량분석에서 F-ratio 계산시 ‘기타’ 직업 사례를 제외함.

3. *는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표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국가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는 경향이 있다. 직업계층별 차이는 강압적인 양육수준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민주적인 양육수준에서는 나타난다. 한국, 미국, 독일에서 직업계층별 민주적 양육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상위정신노동직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그 외 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보다 더욱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향이 있다.

앞에서 실시한 일원변량분석에서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독립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업계층 변수로만 종속변수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이번에는 민주적 양육수준과 강압적 양육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녀와 아버지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직업계층 변수와 국가 변수가 독립적인 효과를 갖는 지를 공변량분석을 통해 조사하려고 한다. 통제변수로 포함한 독립변수들은 자녀의 성별, 연령, 학교 성적(① 상 ~ ⑤ 하의 5점 척도), 아버지가 친아버지인지 여부이다.

분석 결과 성별 효과는 민주적 양육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 성적, 친아버지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관심이 되는 직업계층과 국가 변수는 민주적 양육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이 되어 연구가설 1과 연구가설 2를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II-4>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수준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

	제3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197.177(a)	23	8.573	22.275	.000
절편	1326.174	1	1326.174	3445.741	.000
성별(1=남자, 2=여자)	.445	1	.445	1.155	.283
성적	20.805	4	5.201	13.514	.000
연령	11.017	9	1.224	3.181	.001
친아버지여부(1=친아버지)	58.845	1	58.845	152.894	.000
직업계층	11.850	4	2.963	7.697	.000
국가	67.546	4	16.887	43.875	.000
오차	2192.239	5696	.385		
합계	52387.331	5720			
수정 합계	2389.416	5719			

R 제곱 = .083 (수정된 R 제곱 = .079)

강압적 양육수준과 관련해서는 성별과 성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련이 되지만 연령과 친아버지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

다. 주된 관심이 되는 직업계층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국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강압적 양육수준에 관한 연구가설 1은 기각되고 연구가설 2는 지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II-5>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수준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

	제3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55.095(a)	23	2.395	8.352	.000
절편	353.008	1	353.008	1230.840	.000
성별(1=남자, 2=여자)	9.458	1	9.458	32.978	.000
성적	11.184	4	2.796	9.749	.000
연령	3.384	9	.376	1.311	.225
친아버지여부(1=친아버지)	.021	1	.021	.072	.789
직업계층	1.903	4	.476	1.659	.157
국가	19.838	4	4.960	17.292	.000
오차	1654.276	5768	.287		
합계	15420.714	5792			
수정 합계	1709.370	5791			

R 제곱 = .032 (수정된 R 제곱 = .028)

2) 어머니의 직업계층과 자녀 양육방식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수준의 평균값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한국(3.10) < 일본(3.15) < 스웨덴(3.18) < 독일(3.43) < 미국(3.49)의 순서로 나타났다. 4점 척도에서 2.5점이 '보통'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보통 이상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양육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적 양육수준의 국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F-ratio=184.29, 자유도=4, p-value=0.000)하고 실질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II-3>에서의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수준과 비교할 때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수준에서 국가별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가설 2에서 예측했듯이 한국과 일본보다 미국, 독일, 스웨덴이 민주적 양육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덩칸 사후검증 결과 한국·일본, 스웨덴, 독일·미국이 3개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각 국가 내에서 직업계층별로 민주적 양육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 미국, 독일에서만 직업계층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상위정신노동 > 가정주부 > 그 외의 직업의 순서로 민주적 양육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자영업 > 상위정신·하위정신노동 > 그 외의 직업의 순서로 민주적 양육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독일에서는 자영업이 다른 직업계층에 비교해서 민주적 양육수준이 구별되게 낮았다. 이런 결과를 아버지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위정신노동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는 달리 어머니의 경우에는 특별히 어느 직업계층이 자녀를 특별히 민주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수준을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수준과 비교하면 5개국에서 공통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보다 민주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4를 지지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수준은 2.88인데 비해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수준은 3.10이다. 5개국 중 아버지-어머니의 민주적 양육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으로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비교해서 민주적 양육수준이 113% 높다.

강압적 양육수준의 평균값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스웨덴(1.35) < 일본(1.41) < 독일(1.42) < 미국(1.54) < 한국(1.55)의 순서로 나타났다. 4점 척도에서 2.5점이 '보통'이기 때문에 5개국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그다지 강압적인 방식으로 양육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압적 양육수준의 국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F-ratio=21.80, 자유도=4, p-value=0.000)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고 민주적 양육수준에서의 국가별 차이(F-ratio = 184.29)와 비교해서 작았다. 덩칸 사후검증 결과 스웨덴, 독일·일본, 미국·한국이 3개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각 국가 내에서 어머니의 직업계층별로 강압적 양육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모든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강압적 양육방식의 경우 국가별 차이는 있어도 직업계층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 -6〉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과 강압적 양육수준 차이(평균값)

직업계층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민주적	강압적	민주적	강압적	민주적	강압적	민주적	강압적	민주적	강압적
상위정신노동	3.17 (303)	1.55 (307)	3.13 (57)	1.38 (57)	3.53 (404)	1.51 (404)	3.36 (43)	1.35 (41)	3.19 (78)	1.38 (81)
하위정신노동	3.08 (434)	1.53 (436)	3.13 (181)	1.43 (186)	3.52 (329)	1.56 (329)	3.50 (168)	1.40 (178)	3.18 (180)	1.36 (188)
육체노동	3.05 (113)	1.58 (116)	3.24 (25)	1.45 (25)	3.37 (51)	1.68 (51)	-	-	-	-
자영업	3.09 (590)	1.51 (600)	-	-	3.66 (123)	1.44 (123)	3.13 (31)	1.42 (31)	3.31 (26)	1.33 (27)
기타	3.02 (425)	1.56 (436)	-	-	3.45 (382)	1.48 (382)	3.40 (57)	1.62 (62)	3.19 (93)	1.30 (96)
주부	3.12 (1557)	1.56 (1568)	3.16 (143)	1.39 (148)	3.45 (582)	1.59 (582)	3.48 (80)	1.34 (82)	3.04 (30)	1.45 (32)
전체	3.10 (3422)	1.55 (3463)	3.15 (406)	1.41 (416)	3.49 (1871)	1.54 (1871)	3.43 (379)	1.42 (394)	3.18 (407)	1.35 (424)
F-ratio	5.87*	1.17	0.42	0.49	5.11*	0.79	2.55*	1.57	0.67	1.52

주 : 1. 괄호안의 수는 사례수임.

2. 일본의 경우 자영업 종사자는 1명에 불과하여 일원변량분석에서 자영업 종사자를 제외함.

3. *는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표시.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수준을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수준과 비교하면 독일을 제외한 4개국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덜 강압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대체로 0.02~0.04 포인트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크지 않았다. 따라서 강압적 양육수준에 관한 한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차이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어머니의 양육수준에 미치는 직업계층과 국가 변수의 독립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로 포함한 독립변수들은 자녀의 성별, 연령, 학교 성적(① 상 ~ ⑤ 하의 5점 척도), 어머니가 친어머니인지 여부이다.

분석 결과 자녀의 성별은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었다. 이는 자녀의 성별이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수준과 연관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어머니는 아들에 비교해서 딸을

더욱 민주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의 연령, 성적, 친어머니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관심이 되는 직업계층과 국가 변수는 95% 신뢰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연구가설 1과 2는 지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수준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

	제3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321.131(a)	24	13.380	48.894	.00
절편	1428.790	1	1428.790	5221.034	.00
성별(1=남자, 2=여자)	22.001	1	22.001	80.395	.00
성적	26.286	4	6.572	24.014	.00
연령	6.495	9	.722	2.637	.01
친어머니여부(1=친어머니)	46.932	1	46.932	171.496	.00
직업계층	2.926	5	.585	2.139	.05
국가	131.776	4	32.944	120.382	.00
오차	1748.416	6389	.274		
합계	69662.397	6414			
수정 합계	2069.547	6413			

R 제곱 = .155 (수정된 R 제곱 = .152)

강압적 양육수준과 관련해서는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이 되지 않았지만 그 외의 통제변수인 성적, 연령, 친어머니 여부는 유의미하게 연관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민주적 양육수준에서 마찬가지로 직업계층과 국가 변수는 95% 신뢰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8>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수준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

	제3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52.930(a)	24	2.205	7.778	.00
절편	359.929	1	359.929	1269.413	.00
성별(1=남자, 2=여자)	.326	1	.326	1.151	.28
성적	11.850	4	2.962	10.448	.00
연령	7.623	9	.847	2.987	.00
친어머니여부(1=친어머니)	4.854	1	4.854	17.120	.00
직업계층	3.191	5	.638	2.251	.04
국가	13.388	4	3.347	11.804	.00
오차	1832.803	6464	.284		
합계	16916.612	6489			
수정 합계	1885.733	6488			

R 제곱 = .028 (수정된 R 제곱 = .024)

부모의 양육수준에 관한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국가에서 부모가 자녀를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교해서 더욱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향이 있다. 직업계층별 차이는 강압적인 양육수준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민주적인 양육수준에서는 나타난다. 한국, 미국, 독일에서 직업계층별 민주적 양육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상위정신노동직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그 외 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보다 더욱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경우에는 직업계층이 자녀양육 방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기는 하지만 어느 특정 직업계층이 모든 국가에서 일관되게 자녀를 민주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5. 요약 및 결론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인적, 문화적, 경제적 자본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심리적 요인과 기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못해왔다. 본 연구는 그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회계층과 사회심리적 요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특별히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부모의 사회계층의 가장 중요한 차원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아버지의 직업계층별로 자녀 양육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어머니의 경제활동이 자녀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어머니의 직업계층별로 자녀 양육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도 조사하였다. 또한 한국청소년개발원이 2006년에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한 「가족내 자녀사회화과정에 관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계층과 자녀 양육방식간의 관계가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하였다. 끝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성역할 의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자녀 양육방식에 있어서의 부모의 성별 차이도 조사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직업계층을 직업 종류와 학력 수준을 결합하여 ‘상위정신노동’, ‘하위정신노동’, ‘육체노동’, ‘자영업’, ‘기타’의 5개 직업계층으로 분류하였다. 자녀 양육방식은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29개의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민주적 양육방식’과 ‘강압적 양육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어 두 개의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들의 평균값을 각각 ‘민주적 양육수준’과 ‘강압적 양육수준’으로 조작화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일원변량분석과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직업계층과 자녀 양육방식간의 관계에서 직업계층과 국가별로 자녀 양육방식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적 양육수준과 관련해서 직업계층별로 상위정신노동직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그 외 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보다 더욱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별로는 한국과 일본보다 미국, 독일, 스웨덴이 민주적 양육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강압적 양육수준과

관련해서는 직업계층별로 차이가 없지만 국가별 차이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독일·스웨덴의 아버지가 한국과 미국의 아버지보다 강압적 양육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계층과 자녀 양육방식간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특별히 어느 직업계층에 속하는 어머니가 모든 국가에서 일관되게 자녀를 민주적으로나 강압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국가별 차이는 나타나는데 한국의 어머니는 다른 4개국의 어머니에 비교해서 민주적 양육 수준이 낮고 강압적 양육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어머니는 5개국 중에서 민주적 양육수준과 강압적 양육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자료와 변수조작화의 문제점으로 인해 해석상에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가족내 자녀사회화 자료는 원래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모집단의 설정, 표집방법, 조사방법을 동일하게 하지 못했다. 또한 몇몇 주요 변수들에서는 국가간 비교가 불가능하게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간 차이와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직업계층을 변수로 조작화하는데 있어서 직업지위에 대한 세부 정보가 없어서 부득이 학업 수준과 직업 종류를 결합해서 상위정신노동, 하위정신노동, 육체노동, 자영업, 기타의 5개의 범주로 직업계층을 분류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졸 학력을 갖고도 현재 직업에서 전문직 또는 고위 관리직에 종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대졸 학력을 갖고도 기능·노동직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다. 분석 결과 대졸 학력을 갖고서 기능·노동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적기는 했지만 본 연구의 직업계층 분류가 명확하게 직업지위와 직업 특성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한계점을 감안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을 정교화하는 한편 부모의 직업계층, 자녀양육방식, 자녀의 가치관과 태도, 학업성취들간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직업계층이 자녀 양육방식 외에 자

녀의 학업성취와 직업성취에 대한 기대수준과 관여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런 차이가 자녀의 성역할 의식, 사회의식, 자아정체감과 같은 태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경제적 자립 의지, 학업성취와 희망교육수준, 직업가치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부모의 사회계층 지위가 자녀에게 전승되는 과정에서 사회심리적 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영배(2004). 중학교 청소년의 직업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1회 한국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2). 교육통계연보(2001-2002)
-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22권, pp.5~32
- 구해근·홍두승(2001). 사회계층·계급론. 서울: 다산출판사
- 김경근(200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제10권 제1
호, pp.21~40
- 김경근(1996). 한국 중학생의 학업성취 결정요인. 교육문제연구 제8권, pp.83~103
- 김중환(2001).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교
육학연구 제39권 제4호, pp.349~366
- 김기현(2004). 가족 배경이 교육단계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38권 제5
호, pp.109~142
- 김현철·김은정 외(2006).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한국청소년개발
원
- 남춘호(2004). 교육과 불평등. 방하남 외, 현대 한국사회의 불평등. 서울: 한울, pp.
54~100
- 문은식·김충희(2003).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중학생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
도의 관계. 교육심리학연구 제17권 제2호, pp.271~288
- 방하남·김기현(2001). 변화와 세습: 한국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
사회학 제35권 제3호, pp.1~30
- _____(2002). 기회와 불평등 :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제36권 제4호, pp.193~224
- _____(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
사회학 제37권 제4호, pp.31~66
- 방하남 외(2004). 한국사회의 가족과 경제사회적 불평등. 방하남 외, 현대 한국사회
의 불평등. 서울: 한울, pp.19~53
- 임언·정윤경·상경아(2001). 직업가치관 검사 개발 보고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
원
- 임은미(1998). 부모의 자율성증진행동과 청소년자녀의 학업성취도의 관계. 청소년상
담연구 제8권, pp.133~150

- 장상수(2005). 교육기회의 불평등: 가족배경이 학력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39권 제4호, pp.198~230
- 장상수(2004). 학력성취의 계급별, 성별 차이. 한국사회학 제38권 제1호, pp.51~77
- 통계청(2006). 2005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교육개발원(2007).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 Bronfenbrenner, U.(1989). Ecological systems theory. In Rose Vasta(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pp.187~249). Greenwich, CT: JAI Press.
-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pp.95~120
- Grolnick, W. S. and Slowiaczek, M. L.(1994). Parents' involvement in children's schooling: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and motivational model, Child Development, Vol. 65 No. 1, pp.237~252
- Ho, S. E. and Willms, J. D.(1996). Effect of parental involvement on eighth-grade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Vol. 69 April, pp.126~141
- Haller, A. O. and Portes, A.(1973). Status attainment processes, Sociology of Education, Vol. 46 No. 1, pp.51~91
- Kohn, M. L.(1959). Social class and parental value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4 No. 4, pp.337~351
- _____(1963). Social clas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An interpret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8 No. 4, pp.471~480
- _____(1971). Bureaucratic man: A portrait and an interpret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6 No. 3, pp. 461~474
- _____(1976). Social class and parental values: Another confirmation of the relationshi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1 No. 3, pp.538~545
- Kohn, M. L. and Schooler, C.(1969). Class, occupation, and orient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4 No. 5, pp.659~678
- _____(1973). Occupational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An assessment of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8 No. 1, pp.97~118
- _____(1978). The reciprocal effects of the substantive complexity of work and intellectual flexibility: A longitudinal assessment,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4 No. 1, pp.24~52
- Ku, I. and Plotnick, R.(2003). Do children from welfare families obtain less education?, Demography, Vol. 40 No. 1, pp.151~170

- Maccoby, E.(1980). Social development.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Mare, R.(1981). Change and stability in education stra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6, pp.72~87
- Miller, J., Schooler, C., Kohn, M. L., and Miller, K. A.(1979). Women and work: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occupational condition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5 No. 1, pp.66~94
- Mortimer, J. T.(1996).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achievement. In A. C. Kerckhoff(Ed.), *Generating social stratification: Towards a new research agenda*. Westview Press.
- Sewell, W. H., Haller, O., and Portes A.(1969).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attainment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4 No. 1, pp.82~92
- Sewell, W. H., Haller, O., and Ohlendorf, W.(1970).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process: A replication and revi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5 No. 6, pp.1014~1027
- Sewell, W. H., and Hauser, R. M.(1975). *Education, occupation, and earnings: Achievement in the early career*. New York: Academic.
- Steinberg, L., Lamborn, S. D., Dornbusch, S. M., and Darling, N.(1992). Impact of parenting practices on adolescent achievement: Authoritative parenting, school involvement, and encouragement to succeed, *Child Development*, Vol. 63 No. 5, pp.1266~1281
- Casanova, P., García-Linares, C., Torre, de la M., and Carpio, de la V.(2005). Influence of family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students with low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al Psychology*, Vol. 25 No. 4, pp.423~435

Ⅲ.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동(한국)·서양(독일 및 스웨덴) 비교연구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상호작용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4. 부모와 상호작용의 영향
5. 결론

Ⅲ.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동(한국)·서양(독일 및 스웨덴) 비교연구*

1. 서론

부모의 사회적 자본은 아동들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양식은 문화의 전승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미혜, 2002). 한국사회에서 교육적 성취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 하면 학력은 개인적인 직업이나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며,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교육성취 수준은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위신, 명예 등을 결정짓는 지표가 되어왔다(구인회, 2003; 김은정, 2006; 이정환, 2002).

한국사회에서 학업성취가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은 당연하다. 이 영역의 연구들은 부모의 교육수준 또는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Teachman, Paasch, & Carver, 1996)되고 있으며, 국내 연구(김경근, 2000; 방하남과 김기현, 2002; 이정환, 2002)들도 가정의 배경이 개인의 교육성취 및 나아가 직업적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은정, 2006).

하지만 부모의 사회적 자본이 어떤 기제를 통하여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형편이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다분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성취간의 관계에 대한 상관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실제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떤 기제를 통하여 아동의 구체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 집필진 : 박천식(부산인적자원개발원 연구원)

대한 직접적인 경험적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 기제를 통하여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제에 대한 설명은 아직 부족하다(김은정, 2006; 장미혜, 2002; Teachman, Paasch, & Carver, 1996). 따라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어떤 기제를 통하여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제를 명세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가능한 추론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와 상호작용의 양식을 결정하고,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양식이 자녀의 심리적 요인을 통하여 행동적 성취로 연결될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더 많은 애착과 학업기대를 갖고, 더 많이 상담하며, 이런 요소들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연구자는 부모의 사회적 자본이 자녀의 성취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제로 자녀와 관계양상 혹은 상호작용의 양식으로 가정하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자녀와의 관계양상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부모의 경제적 지위 못지않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성장에 중요한 자아존중감과 나아가 학업성취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동양)의 부모와 독일·스웨덴(서양)의 부모간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및 상호작용의 양식, 즉 부모애착, 부모기대, 부모상담, 부모간섭, 부모갈등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

발달심리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기는 정체감형성의 시기이다. 청소년기를 어떻게 잡느냐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춘기를 청년 초기로 잡는다는 점에서는 학자 간 의견의 일치가 존재한다. 이 시기에서는 중요한

사회적, 신체적, 지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사회적 변화는 사춘기와 더불어 시작되는 이차성징의 출현 등 신체변화에 동반되어 나타난다. 이런 변화와 더불어 청소년기는 고민을 공유하는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박천식, 2006).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수직적 관계 못지않게 수평적 관계에서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또래가치와 부모가치가 경쟁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부모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부모가치에 동화되기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래가치에 동화되기 쉽다. 이 문제를 학업성취문제와 관련시켜 논의하면, 부모들은 학업 지향적이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부모가치에 동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반면,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부정적이면 부모가치보다는 또래가치를 수용하게 되고 학업 전념보다는 학업외에 더 몰두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와 상호작용의 양식이 달라지고, 부모가치에 동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부모가치에 동화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더 긍정적인 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으면 또래가치에 동화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덜 학업 지향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2) 심리적 요인과 학업성취

청소년기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으로 주로 연구된 요소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및 성취동기 등이다. 자아존중감¹⁾은 자아개념의 하위요소로 자아개념이 한 개인이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자기 평가와 관련된 모든 특성의 구조물인 반면에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느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이희자와 김경원, 2000). 자아존중감을 가정의 배경 및 학업성취와 관련시켜 살펴보면, 자

1) 자아존중감을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서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있다고 보는 개인적 가치판단(Coopersmith, 1967), 혹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존경과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Rogenberg, 1965), 자기신뢰와 자기존경의 융화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가치와 유능성에 대한 확신(Brenden, 1969)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이희자와 김경원, 2000).

자아존중감은 경험의 결과 함수이며, 좋은 행동의 결과들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유지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에 대한 욕구 또는 기대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적인 성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심리적 개념으로 흔히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등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가 높으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며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 자기효능감을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Bandura, 1982)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알기 쉽게 정의하면 ‘주관적 능력감’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내적인 요인과 행동, 그리고 외부 환경적인 사건들이 쌍방으로 영향을 주면서 상호작용적인 결정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성취동기는 또한 개인적 성취에 중요한 요소로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를 완성해 내려는 욕구(McClelland, 1961)를 말한다. McClelland에 의하면,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으며, 새로운 변화나 문제해결방법을 모색한다. 따라서 성취동기가 높으면 학업과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또한 교육을 통하여 성취동기를 학습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 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이 학업성취의 주요 예언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박영신과 김의철, 2003a; 박영신과 김의철, 2003b; 탁수연, 박영신과 김의철, 2006). 학습자 개인의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변인에는 흥미, 태도, 성취동기, 통제소재, 기대수준, 자아개념 및 불안 등이 있는데(Bloom, 1976), 이들 변인 중 ‘성취동기’와 ‘자아개념’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다. 최근의 심리적 발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기는 자아개념 형성에 결정적 시기(조희숙 외, 1996)로서, 이는 수행성취를 통해 가장

강력하게 형성된다고 한다(박현정, 1997). 따라서 학업성취에서의 성공경험은 성취동기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반면, 학업성취에서의 실패경험은 무기력감을 학습시키고 열등감을 형성시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심어주게 된다.

3) 부모와 상호작용과 학업성취

부모와 상호작용이 학습성취에 어떤 형식이든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호작용을 어떻게 정의하고 무엇으로 측정하느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다양한 요소들을 자녀와의 관계를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상호작용의 요소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라 학업성취가 어떻게 나오는지 접근할 수 있고,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아이의 학업독려 또한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은 이런 어려움으로 때문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의 양식을 5가지의 범주로 다루고자 한다. 하나는 부모와 애착정도이다. 애착은 부모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나와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준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부모기대로, ‘나의 학업성취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나의 장래직업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란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좋은 집으로 시집(장가)가기를 바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는 부모상담으로, ‘사춘기 신체변화가 있을 때 아버지와 상의했

다’,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일을 나에게 알리고 상의한다’, ‘성적문제에 대하여 아버지와 상의한다’, ‘교우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이성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선생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는 부모간섭으로, ‘나의 헤어스타일이나 외모치장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나의 용돈관리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나의 친구관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나의 이성교제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나의 학원수강 및 학습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나의 외출 및 귀가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번째 부모갈등요소로, ‘나는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나는 성적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나는 친구관계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나는 이성교제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나는 성격, 태도, 습관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나는 행동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상호작용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1) 연구대상과 방법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조사한 “청소년의 가족생활과 가족에 대한 의식조사”에 관한 5개국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이 자료에 근거하여 동양(한국)과 서양(독일·스웨덴)간의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의 양식이 어떠한지 실태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실태가 부모의 사회적 자본,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는지 차이검증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런 다음, 사회경제적 지위, 상호작용의 양식이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청소년발달 관련 문헌 및 학업성취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개관하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의 가족 생활 및 가족에 대한 청소년개발원 5개국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청소년 개발원의 설문자료는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의 요소를 동·서양간 차이검증으로 분석하고,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요소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2)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요인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면, 전체 2936명 중에서 동양이 1,930명이었고, 서양이 1,006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남학생이 953명, 여학생이 977명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을 보면, 중졸이하가 21.5%, 고졸이 39.4%, 전문대졸 이상이 39.1%였으며, 동양의 경우에 중졸이하가 8.3%, 고졸이 50.1%, 전문대졸 이상이 41.6%였고, 서양의 경우에 49.2%가 중졸이하였으며, 17.0%가 고졸이었고, 33.8%가 전문대졸 이상이였다. 어머니의 학력을 보면, 중졸이하가 23.7%, 고졸이 49.7%, 전문대졸 이상이 26.6%였다. 동양의 경우에 11.6%가 중졸 이하였으며, 64.5%가 고졸이었고, 23.9%가 전문대졸 이상이였다. 반면 서양의 경우에는 48.9%가 중졸이하였으며, 18.8%가 고졸이었고, 32.2%가 전문대졸 이상이였다.

아버지의 직업을 보면, 전체 12.8%가 교수 법조인과 같은 전문직이었으며, 41.7%가 회사원, 공무원 같은 사무직이었으며, 45.6%가 기능노무직이었다. 동양의 경우에 전문직은 6.7%, 사무직 43.5%, 기능노무직 49.8%였고, 서양의 경우에 전문직 28.6%, 사무직 36.8%, 기능노무직 34.4%였다. 어머니의 직업을 보면, 전체 24.8%가 교수, 법조인과 같은 전문직이었으며, 40.8%가 회사원, 공무원 같은 사무직이었으며, 34.4%가 기능·노무직이었다. 동양의 경우에 전문직은 11.0%, 사무직 35.4%, 기능·노무직 53.7%였고, 서양의 경우에 전문직 42.6%, 사무직 47.7%, 기능·노무직 9.7%였다.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요인

구분		동양	서양	전체
		빈도(이율)	빈도(비율)	
성별	남	953(49.4)	491(48.8)	1444(49.2)
	여	977(50.6)	515(51.2)	1492(50.8)
	전체	1930	1006	2936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146(8.3)	410(49.2)	556(21.5)
	고졸	879(50.1)	142(17.0)	1021(39.4)
	전문대졸 이상	731(41.6)	282(33.8)	1013(39.1)
	전체	1756	834	2590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204(11.6)	413(48.9)	617(23.7)
	고졸	1133(64.5)	159(18.8)	1292(49.7)
	전문대졸 이상	420(23.9)	272(32.2)	692(26.6)
	전체	1757	844	2601
아버지 직업	전문직(교수, 연구원, 성직자, 법조인 등), 사업가	101(6.7)	164(28.6)	265(12.8)
	사무직, 회사원, 공무원, 경찰, 군인	653(43.5)	211(36.8)	864(41.7)
	기능·노무직, 자영업(음식점, 소매업)	747(49.8)	198(34.6)	945(45.6)
	전체	1501	573	2074
어머니 직업	전문직(교수, 연구원, 성직자, 법조인 등), 사업가	90(11.0)	273(42.6)	363(24.8)
	사무직, 회사원, 공무원, 경찰, 군인	290(35.4)	306(47.7)	596(40.8)
	기능·노무직, 자영업(음식점, 소매업)	440(53.7)	62(9.7)	502(34.4)
	전체	820	641	1461

3) 동서양 차이-심리적, 행동적 차원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 변인들,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애착, 기대, 상담, 간섭, 갈등 요소들이 동·서양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1)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

이 연구에서 주된 변인인 학업성취와 자아관련 변인인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에서 동·서양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동양은 5점 척도 상에서 측정된 학력에서 동양은 3.05였고, 서양은 2.08로 서양이 동양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 ($t(2922)=24.665, p<.001$).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근거하여 6개 문항, 4점 척도를 모두 더한 값으로 나타냈다. 따라서 모든 문항에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였을 경우에 24점이 되며, 모든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반응하였을 경우에 6점이 되었다²⁾. 이렇게 측정된 값의 평균값을 보면, 동양은 15.91이었고, 서양은 18.34로 서양이 동양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862)=-19.541, p<.001$). 자신감은 자기자신의 신뢰정도를 판단하는 문항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 점수는 12점, 최저 점수는 3점으로 모든 점수의 합으로 나타내었다. 동양은 8.62였고, 서양은 9.18로 서양이 동양보다 자신감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873)=-8.121, p<.001$). 따라서 이번에 측정된 결과들을 보면, 동양은 학업성취에서 서양보다 더 낮으며,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 또한 서양보다 더 낮았다.

<표 III-2>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자신감에서 동서양 차이

구분	동양(한국)		서양(독일, 스웨덴)		전체		t값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학업성취	3.05(1.10)	1921	2.08(.813)	1003	2.72(1.114)	2924	$t(2922)=24.665^{***}$
자아존중감	15.91(3.21)	1912	18.34(2.95)	952	16.72(3.333)	2864	$t(2862)=-19.541^{***}$
자신감	8.62(1.64)	1915	9.18(1.89)	960	8.80(1.756)	2875	$t(2873)=-8.121^{***}$

2)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6개 문항 중 3문항은 역산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부모와 관계요인-애착, 기대, 상담, 간섭, 갈등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요인으로 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부모와 상담과 부모의 간섭 및 갈등 측면에서 동·서양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부모와의 애착은 ‘아버지는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아버지는 나와 대화를 자주 나누신다’ 와 같은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부모의 애착점수는 최고 24점에서 최저 6점사이의 점수이다. 부모와의 애착정도는 서양(17.54)이 동양(15.78)보다 더 높았다($t(2796)=-11.036, p<.001$).

부모의 자녀와의 기대는 ‘아버지는 나의 학업성취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와 같은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점수는 36점이며, 최저점수는 9점사이의 점수이다. 부모 기대의 경우에는 동양이 30.72였고, 서양은 29.51로 동양이 서양보다 자녀에 대한 기대를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790)=6.895, p<.001$).

부모와의 상담은 ‘사춘기 신체변화가 있었을 때 아버지와 상담했다’, ‘성적 문제에 대하여 아버지와 상담했다’ 와 같은 문항으로 자녀가 부모와 특정 문제에 대하여 상의한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모두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최고 점수는 28점이고 최저 점수는 7점이었다. 부모의 상담정도는 동양이 13.36인데 반하여, 서양이 16.61로 특정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서양이 동양보다 부모와 상담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765)=-19.710, p<.001$).

부모의 간섭은 ‘아버지는 나의 용돈 관리에 간섭이 심하다’, ‘나의 외출 및 귀가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와 같은 부모가 자녀의 특정문제에 대하여 간섭하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최고 24점, 최저 점수는 6점사이의 점수분포를 가진다. 부모의 간섭 또한 서양이 동양보다 더 많았다. 동양은 12.01인데 반하여 서양은 12.37이었다($t(2805)=-2.536, p<.05$).

부모와의 갈등은 ‘나는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나는 행동 때문에 아버

지와 자주 부딪힌다'와 같이 특정문제에 대하여 자녀와 부딪히는 것으로 모두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최고 점수는 24점, 최저 점수는 6점인 점수이다. 부모와의 갈등에서는 동양은 11.57인데 반하여 서양은 9.85로 서양은 동양보다 더 갈등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2790)=12.161, p<.001$). 이와 같은 사실들은 전반적으로 서양이 동양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간에 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3> 아버지와 관계요인에서 동서양 차이

구분	동양(한국)		서양(독일, 스웨덴)		전체		t값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애착	15.78(3.92)	1859	17.54(4.12)	939	16.37(4.075)	2798	$t(2796)=-11.036^{***}$
기대	30.72(4.34)	1874	29.51(4.35)	918	30.32(4.385)	2792	$t(2790)=6.895^{***}$
상담	13.36(4.30)	1853	16.81(4.37)	914	14.50(4.620)	2767	$t(2765)=-19.710^{***}$
간섭	12.01(3.600)	1870	12.37(3.667)	937	12.13(3.626)	2807	$t(2805)=-2.536^*$
갈등	11.57(3.646)	1865	9.85(3.224)	927	11.00(3.603)	2792	$t(2790)=12.161^{***}$

이들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III-4>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4>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분석에 사용했던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이 변인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상관분석에서 주목되는 점은 개인적인 요인, 즉 학업성취나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이 부모와의 관계요인인 부모애착, 부모와 상담, 부모기대, 부모와 간섭이나 갈등과 같은 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부모와의 관계양상 및 상호작용이 특히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표 III-4〉 각 분석요인 별 상관정도

	성적	자존감	자신감	부애착	부기대	부상담	부간섭	부갈등
성적	1							
자존감	-.256(**)	1						
자신감	-.136(**)	.467(**)	1					
부애착	-.140(**)	.282(**)	.172(**)	1				
부기대	-.073(**)	.113(**)	.123(**)	.305(**)	1			
부상담	-.232(**)	.256(**)	.146(**)	.604(**)	.172(**)	1		
부간섭	-.042(*)	-.039(*)	-.031	.029	.132(**)	.217(**)	1	
부갈등	.156(**)	-.186(**)	-.092(**)	-.241(**)	.061(**)	-.062(**)	.521(**)	1

4) 가정배경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에서는 가정배경 혹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로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직업수준을 파악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 3, 고등학교 2, 전문대 이상을 1로 코딩하였다. 그리고 직업은 전문직 1, 일반사무직 2, 기능·노동직 3으로 코딩한 다음, 이를 3x3 매트릭스로 만들어 각 값을 더 하였다. 즉 전문대 이상 학력(1)과 전문직(1)에 종사하고 있으면 2, 고등학교 학력(2)을 가지고 전문직(1)에 종사하고 있으면 3, 중학교 이하 학력(3)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직(1)에 종사하고 있으면 4로, 그리고 전문대 이상 학력(1)으로 일반사무직(2)에 종사하고 있으면 3, 고등학교 학력(2)으로 일반사무직(2)에 종사하고 있으면 4, 고등학교 학력(2)으로 기능노동직(3)에 종사하고 있으면 5, 전문대 이상 학력(1)으로 기능·노동직(3)에 종사하고 있으면 4, 고등학교 학력(2)으로 기능·노동직(3)에 종사하고 있으면 5, 중학교 이하 학력(3)으로 기능·노동직(3)에 종사하고 있으면 6으로 계산한 다음, 3 이하를 상위계층, 4를 중위계층, 5 이상을 하위계층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1) 학업성취

가정배경요인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이다(구인회, 2003; 김은정, 2006; 이정환, 2002; 장상수와 손병선, 2005; Teachman, Paasch, & Carver, 1996). 이 자료에서 보여 결과는 한국이 독일·스

웨텐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자료이다. 이는 피험자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오히려 부모의 배경에 따라 성적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주요 관심사이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런 결과들을 잘 증거하고 있다. 동서양 모두 가정배경이 좋을수록 학업성취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F(2, 1884)=13.910, p<.001$). 따라서 부모의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가정배경에 따른 학업성취의 동·서양 차이

배경	상		중		하		합계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동양	2.88(1.14)	400	3.01(1.08)	470	3.15(1.04)	527	3.03(1.09)	1397
서양	1.88(.771)	129	2.00(.759)	133	2.28(.775)	231	2.10(.788)	493
합계	2.64(1.15)	529	2.79(1.10)	603	2.88(1.05)	758	2.78(1.10)	1890

(2) 자아존중감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서양과 가정배경요인이 상호작용하였다($F(2, 1852)=3.492, p<.05$). 즉 동양의 경우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반면에 서양의 경우는 부모의 배경이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변인에 주효과가 있었다. 즉 서양이 동양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F(1,1852)=233.908, p<.001$).

부모의 배경이 좋으면 동양의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올라가는데 반하여 서양은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동양의 학생들이 서양의 학생들에 비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목된다. 한 가지 해석은 동양의 경우에 비교대상이 가족외부에 있는 반면에 서양은 경우는 비교대상이 가족내부를 지향하고 있을 수 있다. 즉 단위를 가족으로 보느냐, 개인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양의 경우는 단위가 개인이고, 그리고 주된 비교의 대상이 부모라면 성공한 부모의 경우는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의 자아존중감에서 동양과 서양 간의 차이는 첫째, 동양의 학생들이 서양에 비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인지, 아니면 성적의 차이에 나타난 표본의 추출의 문제인지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표 III-6〉 가정배경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동·서양 차이

배경	상		중		하		합계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동양	16.13(3.11)	397	16.02(3.17)	467	15.75(3.21)	524	15.95(3.17)	1388
서양	18.31(2.75)	121	18.40(2.47)	132	18.90(2.88)	217	18.61(2.75)	470
합계	16.64(3.17)	518	16.54(3.18)	599	16.68(3.43)	741	16.62(3.28)	1858

(3) 자존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은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김주영, 2005). 만약 자아존중감이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또한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상호작용의 양식은 명확하지 않다. 이 연구에 의하면 동양과 서양에서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지역변인과 자아존중감이 상호작용한다($F(2,2841)=15.823, p<.001$). 동양의 경우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좋으나 서양의 경우는 자아존중감이 중간 정도인 학생들이 학업성취가 가장 좋았으며, 자아존중감이 높거나 낮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비슷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주효과는 나타났으나($F(2, 2841)=8.348, p<.001$), 이런 차이는 아마도 동양의 뚜렷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I-7〉 자아존중감에 따른 학업성취의 동·서양 차이

자존감	상		중		하		합계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동양	2.75(1.14)	542	3.10(1.04)	785	3.26(1.08)	576	3.05(1.10)	1903
서양	2.08(.805)	581	1.98(.768)	274	2.06(.921)	89	2.05(.807)	944
합계	2.41(1.04)	1123	2.81(1.09)	1059	3.10(1.13)	665	2.72(1.11)	2847

(4) 기대학력

기대학력은 상급학교에 올라가고자하는 의지의 반영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실력이 된다면 그 정도의 학교는 다니고 싶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대학

력에서 동양과 서양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한 짐작이 간다. 동양의 경우 가정의 배경이 상층의 경우에 95%이상이 대학교이상의 학력을 기대하고 있다. 하층의 경우에도 90%이상이 대학교이상의 학력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서양의 경우는 대학교 이상은 상류층의 경우에 76.8%, 중류층의 경우에 65.4%, 하류층의 경우에 46%만이 대학이상의 학력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본인에 대한 기대학력에서도 나타난다. 상류층의 경우에 95%이상이 대학이상의 학력을, 중류층의 경우에 92.6%, 하류층의 경우에 88%가 대학이상의 학력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서양의 경우는 상류층 81.4%, 중류층의 경우는 69.9%, 하류층 61.5%만이 대학이상의 학력을 기대하고 있었다.

<표 III-8> 부모의 기대학력에서 동·서양 차이

부모	동양			서양			전체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고등학교	1(2)	2(4)	14(2.7)	18(14.4)	34(26.2)	74(33.0)	19(3.6)	36(6.0)	88(11.7)
전문대	4(1.0)	9(1.9)	32(6.1)	11(8.8)	7(5.4)	29(12.9)	15(2.8)	16(2.7)	61(8.1)
대학교	292(72.6)	376(79.8)	405(76.9)	70(56.0)	68(52.3)	80(35.7)	362(68.7)	444(73.9)	485(64.6)
대학원이상	103(25.6)	79(16.8)	70(13.3)	26(20.8)	17(13.1)	23(10.3)	129(24.5)	96(16.0)	93(12.4)
기타	2(5)	5(1.0)	6(1.1)	0(0)	4(3.1)	18(8.0)	2(4)	9(1.5)	24(3.2)
전체	402	471	527	125	130	224	527	601	751

<표 III-9> 본인의 기대학력에서 동·서양 차이

부모	동양			서양			전체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고등학교	6(1.5)	18(3.8)	23(4.4)	8(6.2)	28(21.1)	53(23.1)	14(2.6)	46(7.6)	76(10.1)
전문대	11(2.7)	17(3.6)	40(7.6)	16(12.4)	10(7.5)	22(9.6)	27(5.1)	27(4.5)	62(8.2)
대학교	277(68.9)	351(74.5)	389(73.8)	64(49.6)	58(43.6)	91(39.7)	341(64.2)	409(67.7)	480(63.5)
대학원이상	107(26.6)	84(17.8)	73(13.9)	41(31.8)	35(26.3)	50(21.8)	148(27.9)	119(19.7)	123(16.3)
기타	1(2)	1(2)	2(4)	0(0)	2(1.5)	13(5.7)	1(2)	3(5)	15(2.0)
전체	402	471	527	129	133	229	531	604	756

(5) 아버지와 함께하는 활동 및 관심

자녀교육에서 아버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활동은 같이하는 것은 자녀의 정체성 형성 및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참여는 ‘스포츠 및 야외활동 참여’, ‘여행’, ‘음악회/영화/박물관 관람 등’, ‘TV시청’으로 측정하였다.

<표 III-10> 가정배경에 따른 아버지의 활동참여와 관심의 차이

가정배경		상		중		하		전체		F값
		평균(sd)	사례	평균(sd)	사례	평균(sd)	사례	평균(sd)	사례	
활동	야외활동	2.46 (.92)	529	2.32 (.90)	596	2.33 (.93)	750	2.36 (.92)	1875	F(2,1872)=4.109*
	여행	2.75 (.93)	528	2.57 (.91)	595	2.63 (.94)	748	2.64 (.93)	1871	F(2,1868)=5.154**
	음악회·영화 등	2.25 (.88)	527	2.01 (.84)	594	2.02 (.84)	748	2.08 (.86)	1869	F(2,1866)=14.685***
	TV시청	3.30 (.85)	528	3.33 (.85)	596	3.38 (.82)	746	3.34 (.84)	1870	F(2,1867)=1.636
관심	공부	3.26 (.738)	526	3.19 (.70)	600	3.01 (.72)	752	3.14 (.73)	1878	F(2,1875)=20.737***
	친구관계	2.82 (.80)	527	2.79 (.76)	598	2.73 (.76)	750	2.77 (.77)	1875	F(2,1872)=2.065
	이성관계	2.53 (.92)	526	2.41 (.88)	596	2.45 (.89)	749	2.46 (.89)	1871	F(2,1868)=2.688
	여가취미	2.77 (.85)	527	2.68 (.84)	599	2.63 (.81)	749	2.69 (.84)	1875	F(2,1872)=3.929*
	진로·진학	3.40 (.76)	525	3.33 (.72)	599	3.18 (.77)	747	3.29 (.76)	1871	F(2,1868)=13.656***

상대적으로 공동참여의 비율이 높은 것은 ‘TV 공동 시청’ 및 ‘여행’이었으며, ‘음악회/영화/박물관 관람’ 등은 같이 참여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야외활동(F(2,1872)=4.109, $p<.05$), 여행(F(2,1868)=5.154, $p<.001$), 음악회 등(F(2,1866)=14.685, $p<.001$)에서 상류층일수록 자녀와 공동참여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악회, 영화, 박물관 관람

등 문화활동의 참여는 전체적으로 참여수준이 낮지만 상류층이 중·하류보다 참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정도를 보면, 진로·진학, 공부에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 여가·취미, 이성친구로 나타났다. 특히 상류층일수록 자녀의 진로·진학($F(2.1868)=13.656, p<.001$), 공부($F(2.1875)=20.737, p<.001$)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6) 자주하는 말, 듣기 싫은 말

대체적으로 자주 듣는 말은 ‘공부해라’, ‘컴퓨터, 게임하지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부지런해라’ 등이었으며, 이 중에서 특히 ‘공부해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었다. 가정의 배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동양의 경우에 상류층으로 갈수록 ‘공부해라’하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컴퓨터, 게임 하지마라’는 하류층으로 갈수록 더 자주 하였다. 서양의 경우는 그 방향이 동양과 약간 차이가 났다. 우선 ‘공부해라’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였지만 동양보다 그 비율이 적었으며, 상대적으로 ‘부지런 해라’, ‘컴퓨터, 게임하지 마라’를 더 자주 언급하였다. ‘공부해라’는 하류층이 가장 많이 하였으며, 그 다음이 상류층이고, 중류층이 가장 적게 하였다. 반면에 ‘부지런해라’ 및 ‘컴퓨터, 게임하지마라’는 계층간 비슷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아버지가 자주하는 말에서 동·서양 차이

자주하는 말	동양			서양			전체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공부해라	191(47.5)	197(41.8)	208(39.5)	35(27.6)	31(23.5)	74(32.5)	226(42.7)	228(37.8)	282(37.4)
컴퓨터게임	29(7.2)	59(12.5)	70(13.3)	18(14.2)	19(14.4)	29(12.7)	47(8.9)	78(12.9)	99(13.1)
다른사람과비교	25(6.2)	25(5.3)	27(5.1)	0(0)	3(2.3)	8(3.5)	25(4.7)	28(4.6)	35(4.6)
부지런해라	48(11.9)	64(13.6)	64(12.1)	21(16.5)	21(15.9)	38(16.7)	69(13.)	85(14.1)	102(13.5)
기타	109(27.1)	126(26.7)	158(29.9)	53(41.7)	58(43.9)	79(34.6)	162(30.6)	184(30.5)	237(31.3)
전체	402	471	527	127	132	228	529	603	755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동양의 경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다음으로 ‘공부해라’였고, 계층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양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부해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이 동양에 비하여 그 비중이 낮은 반면에 ‘컴퓨터, 게임하지마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12> 듣기 싫은 말에서 동·서양 차이

듣기 싫은 말	동양			서양			전체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공부해라	119(29.6)	147(31.2)	156(29.6)	34(26.8)	30(23.6)	62(27.7)	153(28.9)	177(29.6)	218(29.0)
컴퓨터게임	32(8.0)	34(7.2)	45(8.5)	24(18.9)	14(11.0)	37(16.5)	56(10.6)	48(8.0)	82(10.9)
다른사람과비교	188(46.8)	224(47.6)	229(43.5)	19(15.0)	24(18.9)	42(18.8)	207(39.1)	248(41.5)	271(36.1)
기타	109(27.1)	126(26.7)	158(29.9)	53(41.7)	58(43.9)	79(34.6)	162(30.6)	184(30.5)	237(31.3)
전체	402	471	527	127	127	224	529	598	751

4. 부모와 상호작용의 영향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자녀와의 관계 혹은 상호작용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를 매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와 관계양상 및 상호작용의 양식을 결정하고, 그것이 자녀의 심리적 요인 즉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같은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행동적 요인인 학업성취에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상호작용 요소 혹은 관계적 요소가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분석은 부모와의 관계적 요소 혹은 상호작용의 요소로 볼 수 있는 부모애착, 부모기대, 부모상담, 부모간섭 및 부모갈등요인을 대략적으로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로 나눈 다음, 이들 집단들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1)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애착관계는 아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박천식, 1999).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는 아직 많은 연구가 축적된 것은 아니다. 특히 성적과 애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추측컨대 긍정적인 애착관계는 청소년기에 부모가치에 동화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애착관계가 좋을수록 학업적 관심 및 성취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과들은 이와 같은 결론들을 지지하고 있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좋을수록 더 성적이 좋게 나타났다($F(2,2777)=3.089, p<.05$). 하지만 주로 부모와 애착관계가 나쁜 하위층의 성적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양의 경우에는 애착관계가 중간인 경우가 성적이 더 양호하게 나왔으며, 동양의 경우에는 상, 중은 같게 나타났고, 하에서 더 나쁘게 나왔다.

〈표 III-13〉 아버지의 애착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애착	상		중		하		합계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동양	2.99(1.11)	421	2.99(1.08)	561	3.13(1.10)	868	3.06(1.10)	1850
서양	2.08(.807)	398	2.01(.772)	276	2.12(.852)	259	2.07(.810)	933
합계	2.55(1.07)	819	2.67(1.09)	837	2.90(1.13)	1127	2.72(1.11)	2783

부모와의 상담이 혹은 의논이 자녀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도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의 심리적 요소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담요소와 성적요소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결과들은 이와 같은 결론을 지지한다. 즉 부모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담을 하는 것이 성적을 더 좋게 만드는 요소였다($F(2,2745)=12.269, p<.001$). 이와 같은 결과는 아주 선명한데, 따라서 부모에게 사춘기의 신체변화 및 성, 집안일, 교우 및 이성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아버지와 상의하는 경우에 아들의 성적이 아주 좋은 것을 나타냈다.

〈표 III-14〉 아버지의 상담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상담	상		중		하		합계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동양	2.91(1.04)	222	3.00(1.12)	316	3.08(1.10)	1306	3.05(1.09)	1844
서양	1.94(.770)	308	1.95(.777)	262	2.25(.829)	337	2.06(.807)	907
합계	2.35(1.01)	530	2.53(1.10)	578	2.91(1.10)	1643	2.72(1.11)	2751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간섭이 자녀의 성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본 결과, 지역요인과 부모의 간섭요인간 상호작용이 있었다($F(2,2784)=7.331, p<.001$). 이와 같은 결과는 서양의 경우에 아버지의 간섭이 성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동양의 간섭은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동양의 경우에 간섭이 아주 적으면 성적이 더 좋은 것으로 나온 반면에 서양의 경우는 간섭이 많을수록 성적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양의 경우에 성적이 좋기 때문에 간섭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데이터의 또 다른 해석은 동양의 경우에 자녀의 성적은 주요한 자녀의 평가기준의 결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동양과 서양의 아버지의 간섭요인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서양과 동양의 아버지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의 내용이 다름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요소이다.

〈표 III-15〉 아버지의 간섭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간섭	상		중		하		합계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동양	3.08(1.11)	584	3.09(1.06)	672	2.99(1.12)	605	3.05(1.09)	1861
서양	1.95(.796)	352	2.02(.809)	282	2.22(.821)	295	2.06(.815)	929
합계	2.65(1.14)	936	2.77(1.10)	954	2.73(1.09)	900	2.72(1.11)	2790

아버지와 갈등이 자녀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지역요인과 갈등요인이 상호작용하였다($F(2,2769)=3.489, p<.05$). 그리고 갈등수준의 주효과가 있었다. 즉 갈등이 적을수록 학업성적이 우수하였다($F(2,2769)=7.793, p<.001$). 특히 서양의 경우에는 부모와 갈등이 성적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갈등의 수준에 따라 학업성취의 차이가 뚜렷한 반면, 동양의 경우는 갈등 수준이 높지 않으면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표 III-16> 아버지와 갈등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갈등	상		중		하		합계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동양	3.10(1.11)	727	3.02(1.06)	681	3.02(1.13)	448	3.05(1.10)	1856
서양	2.26(.854)	169	2.10(.777)	385	1.90(.808)	365	2.05(.814)	919
합계	2.94(1.12)	896	2.69(1.06)	1066	2.52(1.14)	813	2.72(1.11)	2775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자녀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했던 대로 아버지의 기대수준에 따라 자녀의 성적에도 영향을 주었다. 변량분석을 한 결과 지역과 기대수준간에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2770)=3.671, p<.05$). 그리고 아버지의 기대수준에 대한 주효과 있었다. 즉 아버지의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 좋았다($F(2,2770)=13.838, p<.001$). 아버지의 기대수준과 지역요인이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서양의 차이보다는 동양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양에서 아버지의 기대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표 III-17> 아버지의 기대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기대	상		중		하		합계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동양	2.86(1.10)	756	3.12(1.06)	579	3.26(1.09)	530	3.05(1.10)	1865
서양	1.98(.794)	231	2.04(.804)	338	2.11(.819)	342	2.05(.808)	911
합계	2.65(1.10)	987	2.72(1.10)	917	2.81(1.14)	872	2.72(1.11)	2776

2)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이 전반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만약 부모와 상호작용이 심리적인 요인 즉 자녀의 성취동기, 기대수준, 자아존중감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와 같은 심리적 요소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면, 상호작용의 요소가 자아존중감에도 학업성취와 유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부모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2724)=52.704, p<.001$). 서양의 비하여 특히 동양의 경우에 애착관계가 하위 30%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자존감이 아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2,2724)=2.838, .05p<.10$)

<표 III-18> 아버지의 애착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애착	상		중		하		합계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동양	16.86(3.30)	421	16.46(3.10)	557	15.15(3.08)	865	15.94(3.23)	1843
서양	18.97(3.03)	369	18.08(2.72)	266	17.52(2.81)	252	18.29(2.94)	887
합계	17.85(3.35)	790	16.98(3.08)	823	15.69(3.18)	1117	16.70(3.32)	2730

부모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들을 상담하는 경우에 상담을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요인과 자아존중감 요인에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F(2,2694)=4.554, p<.05$). 이는 서양의 경우 상담요인이 자아존중감에 완만한 영향을 미치지만 동양의 경우는 상담을 하는 것과 자아존중감이 급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높지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담요인 주효과가 나타났다. 즉 상담을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2694)=19.142, p<.001$)

〈표 III-19〉 아버지와 상담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상담	상		중		하		합계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동양	17.20(3.47)	220	16.19(3.04)	316	15.65(3.18)	1301	15.93(3.23)	1837
서양	18.56(3.07)	288	18.38(2.83)	249	18.02(2.89)	326	18.30(2.94)	863
합계	17.97(3.32)	508	17.15(3.15)	565	16.13(3.26)	1627	16.69(3.33)	2700

아버지의 간섭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면, 아버지의 간섭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F(2,2734)=5.430, p<.004$). 즉 간섭이 적을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더 높았다.

〈표 III-20〉 아버지의 간섭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섭	상		중		하		합계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동양	15.72(3.05)	579	15.99(3.14)	666	16.05(3.41)	608	15.92(3.21)	1853
서양	18.04(2.76)	337	18.11(2.97)	269	18.71(3.05)	281	18.27(2.93)	887
합계	16.57(3.15)	916	16.60(3.24)	935	16.89(3.52)	889	16.68(3.31)	2740

아버지와 갈등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유형도 간섭유형과 유사하였다. 즉 아버지의 간섭이 심할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도 그 만큼 낮았다 ($F(2,2720)=11.205, p<.001$). 결과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간섭을 많이 하고, 자녀와 갈등을 더 많이 겪을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1> 아버지와 갈등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갈등	상		중		하		합계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동양	15.48(3.063)	719	16.02(3.267)	680	16.49(3.337)	450	15.92(3.230)	1849
서양	18.17(2.659)	160	17.95(2.967)	365	18.64(2.983)	352	18.27(2.934)	877
합계	15.97(3.168)	879	16.69(3.296)	1045	17.43(3.360)	802	16.68(3.323)	2726

부모의 기대수준과 자녀의 자아존중감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아버지의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F(2,2728)=24.256, p<.001$).

<표 III-22> 아버지의 기대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기대	상		중		하		합계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동양	16.44(3.40)	751	15.79(3.22)	581	15.31(2.78)	527	15.92(3.21)	1859
서양	18.83(3.30)	216	18.45(2.70)	328	17.72(2.86)	331	18.27(2.95)	875
합계	16.97(3.52)	967	16.75(3.30)	909	16.24(3.04)	858	16.67(3.32)	2734

3) 학업성취 및 자아존중감 결정요인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실시된 종속변인은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이었으며, 학업성취는 상, 중상, 중, 중하, 하 로 나타내진 5점 척도상의 점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로 측정된 6개 문항을 더한 값이다. 따라서 점수는 최저 6점에서 최고 24점간의 점수분포를 가진다.

독립변인은 3가지로 분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하나는 자녀의 성별, 출생년도, 부모의 학력 및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이며, 다른 하나는 스포츠, 음악회와 같은 영역에서 자녀와 공동참여 및 성적 친구등에 대한 관심과 자녀의 기대학력을 포함하는 제 1의 관계요인이며,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구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요소들로 부모애착, 부모상담, 부모기대, 부모간섭 및 부모 갈등요인들이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경우 성별은 남성을 0으로 가변수 처리하였다. 출생년도는 1970년생부터 1994년생까지 분포하였으며, 출생년도에서 70에서 94년으로 표기된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아버지 및 어머니 학력은 무학을 1, 대학원 졸을 7로 표기한 숫자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직업은 기능·노무직을 0으로 한 가변수 가변수 처리하였다.

관계요인(1)은 ‘아버지와 공동 활동참여’,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의 기대 학력’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버지 공동활동 참여는 4개영역 4점 척도로 구성된 값의 합으로 나타내진 점수이며, 아버지 관심은 ‘공부’, ‘친구관계’, ‘이성관계’, ‘여가·취미생활’, ‘진로·진학’ 등 5개 영역 4점 척도로 구성된 값의 합으로 나타내진 점수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대학력은 중 1, 고2, 대 3, 대학원이상 4로 표기된 점수다.

관계요인(2)은 모두 자녀와 상호작용의 양식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4점 척도상의 점수를 모두 더한 값을 사용하였다. 각 변인의 점수는 따라서 문항의 수에 따라 결정되었다. 즉 부모애착의 경우에 6개 문항임으로 최저 6점에서 최고 24점까지의 점수분포를 가진다.

(1)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1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이 모형을 보면, 거의 모든 변인들이 자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생년도($B=.088$), 아버지학력($B=.131$),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B=-.480$), 사무직인 경우($B=-.219$), 어머니 학력($B=-.057$)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단순기능 및 노무직에서 비하여 전문직, 사무직이 더 높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적이 더 좋았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결과 중에서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이 다른 것은 주목해야 보아야 할 요인이다. 아버지의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성적이 더 나쁘데 반하여 어머니의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성적이 높은 것 나타났는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아버지의 학력과 자녀의 성적간의 관계는 더 많은 자료의 보충이 요구된다.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하고, 관계요인(1)의 요소들을 관계를 분석한 모형 II에서는 성적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특히 아버지의 기대학력($B=.097$)과 아버지의 공동참여($B=-.026$)가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의 기대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와 자녀와 공동참여를 많이 할수록 성적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계요인(1)을 통제하고 관계요인(2)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형 II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부의 직업에서 사무직은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아버지 학력의 영향도 감소하였고, 대신 성별요인($B=.108$)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관계요인(1)에서는 아버지와 공동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와 갈등($B=.053$), 아버지와 상담($B=-.043$), 아버지의 기대($B=-.028$)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아버지와 갈등이 적을수록, 아버지와 상담을 할수록, 아버지의 기대가 높을수록 자녀의 성적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학업성취에 미치는 요인

성적				
구분		모형 I B(표준오차)	모형 II B(표준오차)	모형 III B(표준오차)
사회 경제 적 요인	(상수)	-5.306(1.991)**	-5.675(2.082)**	-4.983(2.168)*
	성별 ¹⁾	.067(.050)	.087(.052)	.108(.052)*
	출생년도	.088(.022)***	.095(.023)***	.092(.024)***
	아버지학력	.131(.032)***	.114(.034)**	.079(.034)*
	어머니학력	-.057(.023)*	-.065(.024)**	-.064(.024)**
	부의 직업 ²⁾			
	사무직	-.219(.068)**	-.203(.069)**	-.125(.071)
전문직	-.480(.097)***	-.426(.099)***	-.319(.100)**	
관계 요인 (1)	아버지와 공동참여		-.026(.011)*	.003(.012)
	아버지관심		-.018(.010)	.017(.012)
	부의 기대학력		.097(.031)**	.078(.034)*
관계 요인 (2)	아버지 애착			.003(.010)
	아버지와 상담			-.043(.008)***
	아버지 기대			-.028(.007)***
	아버지 간섭			-.015(.009)
	아버지 갈등			.053(.009)***
F값		8.472(6,1854)***	8.431(9,1782)***	11.629(14,1652)***
R2값		.027	.041	.090

주1) 남성을 0으로 가변수 처리

주2) 기능노무직을 0으로 가변수 처리

(2)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도 자녀의 학업 성취와 같은 변인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모형의 I의 경우는 아버지의 학력(B=-.363)과 부의 직업 중에서 전문직(B=.877)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연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아버지가 기능·단순노무보다는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I에서는 아버지의 기대학력(B=-.555), 아버지와 공동참여(B=.229), 아

버지의 관심(B=.077), 아버지의 학력(B=-.206)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한 행동에 아버지가 자녀와 같이 할수록, 부모의 기대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관심이 많을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II에서는 부모의 기대학력(B=-.412), 아버지와 공동참여(B=.115), 아버지와 상담(B=.123), 아버지와 갈등(B=-.119), 아버지 애착(B=.082), 아버지 기대(B=.058) 등의 변인들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기대학력이 낮을수록, 아버지와 공동참여를 많이 할수록, 아버지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많이 상담할수록, 아버지와 갈등이 적을수록, 아버지와 애착이 더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요인

자존감				
구분		모형 I B(표준오차)	모형 II B(표준오차)	모형 III B(표준오차)
1요인	(상수)	10.610(6.073)	14.024(6.146)*	11.266(6.287)
	성별주 ¹⁾	.028(.153)	-.048(.152)	-.129(.152)
	출생년도	.080(.068)	.022(.069)	.038(.071)
	아버지학력	-.363(.097)***	-.206(.100)*	-.144(.100)
	어머니학력	.025(.072)	.022(.072)	.043(.071)
	부의 직업주 ²⁾			
	사무직	.270(.206)	.225(.203)	.104(.204)
전문직	.877(.293)**	.521(.290)	.436(.289)	
2요인	아버지와 공동참여		.229(.033)***	.115(.035)**
	아버지관심		.077(.029)**	-.058(.035)
	부모의 기대학력		-.555(.093)***	-.412(.098)***
3요인	아버지 애착			.082(.028)**
	아버지와 상담			.123(.022)***
	아버지 기대			.058(.021)**
	아버지 간섭			-.002(.027)
	아버지 갈등			-.119(.027)***
F값		3.017(6,1823)**	15.523(9,1753)***	17.416(4.1632)***
R2값		.010	.074	.130

주1) 남성을 0으로 가변수 처리

주2) 기능노무직을 0으로 가변수 처리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와 관계가 자녀의 자아 존중감과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론들을 지지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떤 기제에 의하여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요인, 즉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작용이 결국 자녀의 심리적 요인, 행동적 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가정배경요인(부모의 교육과 직업으로 나타난 상, 중, 하), 지역요인(동양과 서양), 관계요인으로는 부모애착, 부모상담, 부모기대, 부모간섭, 부모갈등 요인들과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에서 차이를 변량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으며,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학업성취, 자아존중감과 자신감 영역에서 서양이 동양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즉 학업성취는 더 높았으며, 자아존중감과 자신감 또한 더 긍정적이었다. 아버지 애착은 서양이 동양보다 더 높았으며, 아버지의 기대는 동양이 서양보다 더 높았다. 상담은 서양이 더 많았으며, 간섭은 서양이 동양보다 더 많았고, 갈등은 동양이 서양보다 더 많았다.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버지애착, 아버지상담, 아버지기대, 아버지간섭, 아버지갈등에서 아버지와 애착이 더 많고, 아버지와 상담을 더 많이 하며, 아버지의 기대가 더 높고, 아버지의 간섭이 더 적고, 아버지와 갈등이 더 적으면 학업성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 또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도 유사하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아버지와 상담을 많이 하고, 아버지와 갈등이 적을수록 성적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기대학력이 낮고, 아버지와 공동참여가 더 많으며, 아버지와 상담을 많이 하고, 갈등이 적고, 아버지의 기대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결과들은 서양이 동양에 비하여 상호작용의 내용 및 성과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에 상호작용의 요인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적어도 학업성취가 중요한 관심사라면 자녀와 어떤 상호작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구인회(2002).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가을).
- 김경근(1999). “교육성취에 대한 가족구성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9(3).
- 김경근(2000). “가족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10(1)
- 김은정(2006). “가정의 물적·인적 사회자본과 자녀의 학업성취 사이의 관계”,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주영(2005). “아동의 성취동기에 대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내적성공귀인의 경로모형”,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김의철(2003)a. “한국청소년의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 연구, 10(1)
- 박영신·김의철(2003)b. “한국 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와 학업성취: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0(1)
- 박천식(1999). 재미있는 심리학 여행. 교육과학사.
- 박천식(2006). “청소년의 직업탐색활동에 미치는 요인분석.” 제 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한국청소년개발원.
- 방하남·김기현(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8(4)
- 이희자·김경원(20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발달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9(3).
- 장미혜(2002). “사회계층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15(2).
- 장상수·손병선(2005). 가족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9(4).
- Teachman, J.D., K. Paasch & K. Carver(1997). “Social capital and the generation of human Capital.” Social Forces 75(4).
- Bandura, A(1982).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Morris Rogenberg and Howard B. Kaplan(eds). Social Psychology of the self-Concept. Harlan Davison, Inc.

IV. 독일 청소년의 문화, 가치관 그리고 가족

1. 인터넷 세대
2. 청소년기: 자유와 압박 사이
3. 친구, 애인 그리고 가족
4. 가정문제
5.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교육의 본보기가 되는 부모
6. 학교와 직업교육: 가정환경의 중요성
7. 잘나가는 젊은 여성들

IV. 독일 청소년의 문화, 가치관 그리고 가족*

1. 인턴십 세대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한다. 이는 독일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제 선진국에서 이들은 경제 구조적 주요변화, 또 따라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직면하게 된다. 그들의 부모 세대의 대부분은 전쟁 후 한 회사에서의 평생 근무하는 이상과 증가하는 소득을 누렸으나 청소년들은 매우 경쟁적인 고용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험을 쌓기 위한 무급 인턴십, 단기계약, 그리고 최저임금 등이 그들의 현실이다.

이웃국가인 프랑스의 반류(banlieu)라는 교외 이민자 지역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좌절감을 일주일간의 폭동으로 분출했으며 학원과 대학의 중산층 청소년들은 취업환경에 대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불안정 고용인”이란 말에서 따온 “불안정세대”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불안정하고 언제나 변하는 고용상황에 있는 고용인이다. 이들이 다른 이전 세대들과 구별되는 것은 -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만한 직업경력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청소년들이 훨씬 소극적으로 반응을 한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이 일생의 충격이고 대부분은 이런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안되었음에도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그들은 부가 증가한 기간인 80년대와 90년대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모 밑에서 자랐다. 그들의 부모들도 다소 현 상황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긴 마찬가지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식들이 자신들 보다 더 잘 살고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성장을하기를 기대했었다. 중산층 사이에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계층전체의 사회적 의견 차이에 대한 두려움이 늘어나고 있다.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들은 출발점이 다르다. 그들은 단순하게 어느 정도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회적인 위치를 찾는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

* 집필자 : 구드룬 퀴첸(뒤스브르크 에센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면, 그들은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 역시 부와 지위를 요구하고 자신들의 독일가족출신의 동창과 비교해서 2류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젊은 독일인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더 낮은 경제적 수준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잃을 것이 더 적다.

프랑스와 비교하면 상황이 훨씬 덜 절박하다. 노동 시장의 늘어나는 요구사항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독일의 청소년들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식으로 대처한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정 세대” (“*Generation précaire*”) 라고 불리기 보단 “프락티컴 세대”(“*Generation Praktikum*”) - “인턴십 세대”라고 불린다.

2. 청소년기: 자유와 압박 사이

청소년기는 인생에서의 또 하나의 시기이다. 역사적으로 이것 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증가하는 수요로부터 생겼다. 청소년들이 학교나 견습과정 또는 대학교에 있는 동안 그들은 명확하게 정의된 사회적 책임이 없다. 경제적인 측면에선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와 정신의 성장에 열정적이고 생산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아직 그들에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사회문화적 독립과 사회경제적 의존 사이에 갈등 또한 청소년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들은 증가하는 독립에 대한 요구와 지속되는 경제적 의존 사이의 모순과 불안정한 일자리 상황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또한 아주 일찍부터 개인적 라이프스타일을 만들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자유는 실패의 위험을 포함하고 그래서 강한 책임감이 요구된다. 학교에서 고전하는 청소년들 경우에는 이런 압박이 특히 더 강하다. 그들은 자신의 사생활에 자율을 가지는 동시에 안정적인 성격을 성립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사항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면적 나침반 같은 것이 필요하다. 활발한 형태의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난관들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Shell Youth Study 2002와 2006에서 우리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의

생활패턴을 자기자신의 규칙에 따라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의 계획을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하고 자신의 인생을 진단할 수 있도록 개인적 기준을 세우는 법 또한 배워야 한다. “청소년기를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활동적인 과정이다(Lange 2002: 34). 일반적인 기준이 아무 거부감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일반적인 기준들은 자신들의 동료들과 가족들과의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타협이 된다. 이 타협과정에서도 부모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3. 친구, 애인 그리고 가족

대부분의 독일의 가족은 - 서양 사회가 그런 것처럼 - 지난 세 세대를 걸쳐 크게 변화하였다. 가족 구성원이 적은 경우가 많다. 2인 즉 부모 1명과 아이 1명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많다. 이는 이혼이나 별거 때문이고 이동성 요구가 많아진 것이다. 하지만 가족은 사회화 과정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 “Shell Youth Study”의 결과는 부모가 정치와 고등교육진학에 대한 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나아가 그들의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들의 가족 가치관과 부모역할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나이든 사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은 여전히 규범과 가치를 말한다. 반면 동료들은 점점 더 중요해진다. 복잡한 문제들은 부모와 상의하지만 매일 매일의 문제와 충고는 친구들과 서로 나눈다. 또한 청소년들은 일반적인 가족생활과 특히 자신들의 부모들의 가치를 인정한다. 대부분의 이들은 자신들이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자신의 아이들도 자신들이 자라올 때처럼 교육을 하고 싶어 한다.

4. 가정문제

이전의 모든 Shell Youth Reports와 같이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족이 필요한지 물어보았다. 이 질문은 자신이 시작할 가족 못지 않게 자신의 부모와의 가정과 관련이 있다. 대답은 명쾌하다. 청소년들은 가족을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아주 중요하게 평가한다. 총 72%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족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다. 겨우 소수(17%)만 가족이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대답했다. 여자 청소년들은 (76%) 남자 청소년(69%)들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고 하였으나 이 차이는 사라지고 있다. 지난 보고서(2002년 Shell Youth Study) 이후 가족의 중요성을 언급한 응답비율은 조금 더 올라갔다. 이 증가는 대부분 남자 청소년들로 인한 것이었다<표 IV-1>.

<표 IV-1> 시간 추이에 따른 비교: 가족의 의미에 대한 주관적 중요성의 변화
12세에서 25세까지의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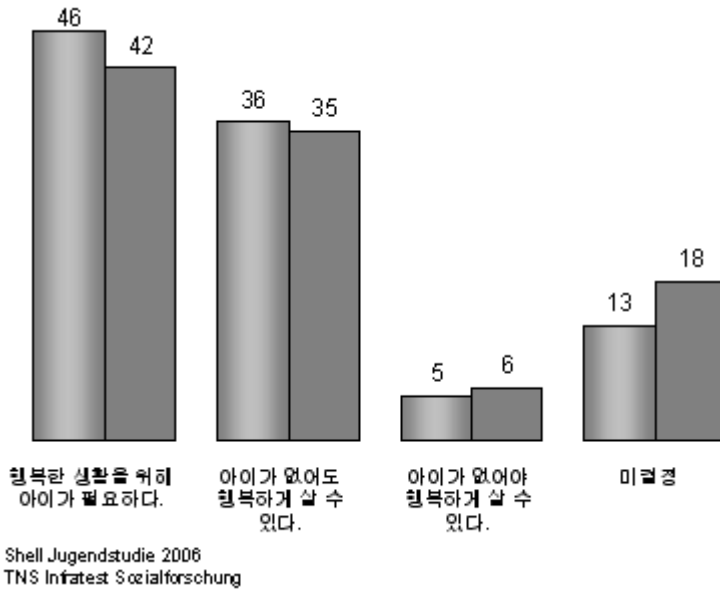
	남자	여자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는 가족이 필요하다.		
2002	66	75
2006	69	76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2002	22	16
2006	20	15

Shell Jugendstudien 2002 und 2006
TNS Infratest Sozialforschung

아이가 있어야 행복한지 아니면 아이가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수(44%)가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을 했고, 3분의 1은 아이가 없는 쪽을 선택했다.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숫자로 어떤 쪽으로든 대답을 했고<표 IV-2>, 15%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

을 했다. 또 동독의 청소년들이 아이를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서독의 42%, 동독 51%)을 보였다.

<표 IV-2> 자신의 생활에서 아이의 의미에 대한 태도
12세에서 25세의 청소년



사회계층에 따라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다. 중산층과 상류층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서민층의 청소년들이 아이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¹⁾.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아이를 갖고 싶은지 아닌지를 물었을 때 상황은 조금 바뀐다. 62%의 답변자들이 나중에 아이를 갖고 싶다고 답변을 했

1)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황의 묘사에 있어서 서로 다른 그림을 얻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사회적 출신 성분을 반영하는 사회 계층 지수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지표는 Shell Youth Study 2002에서 특히 아버지의 학력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정 상황(재정 상황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 부모님의 주거형태(본인소유 주택 혹은 전세)와 부모님 집에 있는 책의 권수에 따라 달라진다. Shell Youth Study 2002와의 비교에 있어서 사회의 계층에서의 어머니의 학력이 마찬가지로 고려된다면, Shell Youth Study 2006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Shell Youth Study 2006의 결과가 2002 연구와의 비교에서 방법적으로 공정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학력 고려는 계층구성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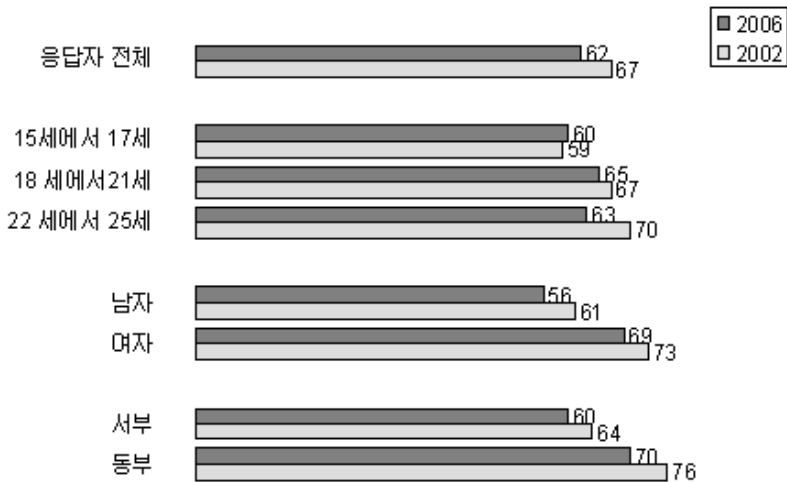
다. 이 질문은 15세에서 25세 사이의 아직 아이가 없는 청소년들에게만 했다. 6%만 아이를 원치 않는다고 대답을 했고 32%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

행복을 위해 아이가 필요하냐는 질문의 경우(44% 그렇다고 말함)와 실제 아이를 원하는지에 대한 대답(62%가 그렇다고 함)을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하다. 대부분은 아이를 원하지만 자신의 행복이 그것에 의존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아이에 대한 소망은 나이와 성별 그리고 가정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표 IV-3>. 전체적으로 아이에 대한 소망이 2002년 보고서 보다 줄었다. 4년 전(2002년)에는 아이에 대한 소망이 청소년들의 나이에 따라 증가했다. 오늘날에는 이런 경향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여자 청소년들(69%)이 남자 청소년들(56%)보다 더 많이 아이에 대한 소망을 얘기했다 흥미로운 것은 젊은 부모들에게 아이를 더 갖기를 원하는 지를 물어 볼 경우 이 비중이 뒤집힌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젊은 아빠들이 젊은 엄마들 보다 더 많이 아이를 원했다.

<표 IV-3> 사회적 개인특성에 따른 아이에 대한 소망
아이를 원하는 12세에서 25세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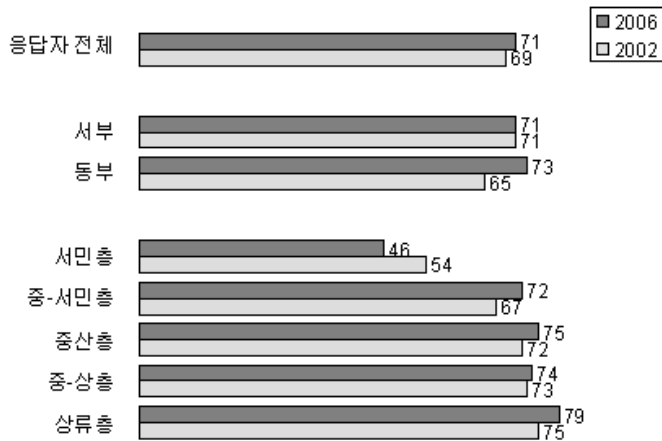


Shell Jugendstudie 2006
TNS Infratest Sozialforschung

5.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교육의 본보기가 되는 부모

1990년 이후의 Shell youth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부모와 좋은 사이가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성년자의 마지막 2년간 부모와의 관계는 세대간의 대치적인 관계라기 보단 파트너십에 좀 더 가깝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부모와 조부모와 좋은 관계를 갖는 동시에 독립적 생활을 원한다.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서로 합의된 과정이지 충돌로 인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1960년대부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종속과 복종에 대한 의미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 대신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려고 하고 숙고하는 것을 가르치고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길 원한다(Hurrelmann 2005).

<표 IV-4> 관련 있는 사회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자기 자녀의 교육 자기 자신이 자라온 것과 “똑같은 방식” 또는 “비슷한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시키겠다는 12세에서 25세 청소년



Shell Jugendstudie 2006
TNS Infratest Sozialforschung

이 격식 없는 자신들 자녀교육의 진보화가 청소년들의 자신들의 부모들에 대한 태도에 나타난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정교육에 대해 "별로 엄격하지 않다" 또는 "전혀 엄격하지 않다" 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응답자(56%)가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이 자라온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교육 하겠다고 대답했다. 15%는 자신이 받은 가정교육과 완전히 똑같이 교육을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다. 반대로 20%는 자신이 받은 가정교육과 다르게 교육을 하겠다고 했고 7%는 완전히 다르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응답은 지역과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표 IV-4>.

2002년에는 독일 동부지방 청소년들이 서부지방의 청소년들 보다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았고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을 다른 방식으로 기르기를 원했다. 이 차이는 2006년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계층 사이의 차이는 더 명확하게 나타났다. 서민층의 청소년(46%)들이 자신들의 교육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상대적으로 상류층의 청소년들의 79%가 자신들이 길러진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표 IV-4>.

<표 IV-5> 자녀를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시키길 원하는 비율
(Shell Youth Study 1985, 2000, 2002 그리고 2006 비교)

서독의 15세에서 24세의 청소년

%	Shell Youth Study 1985	Shell Youth Study 2000	Shell Youth Study 2002	Shell Youth Study 2006
똑같은 방식	12	12	13	15
비슷하게	41	60	57	56
다르게	37	20	22	20
전혀 다르게	11	8	7	7

1) 1985년과 2000년의 데이터는 13세부터 임. Shell Jugendstudie. Deutsche Shell (Hrsg.): Jugend 2000. Opladen 2000, p. 59.1

Shell Jugendstudie 2006
TNS Infratest Sozialforschung

1985년 이후 청소년들의 자신의 가정교육에 대한 만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가장 의미 있는 상승은 1985년과 2000년 사이이다. 이 기간에는 교육 방식의 결정적인 차이가 현격하게 감소했다. 그러므로 세대간의 60번째와 80번째 특징의 대립은 더 찾아볼 수 없다.

6. 학교와 직업교육: 가정환경의 중요성

청소년기 동안 미래로의 진로가 펼쳐진다. 가능한 한 좋은 결과를 얻어 청소년들은 학교를 졸업 하고 대학교나 견습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기 교육수준에 맞는 직장을 구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된다. 직업적 경력과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소망과 자유시간에 대한 욕심을 상호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표 IV-6>은 부모의 학력에 따른 청소년들의 교육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표 IV-6> 청소년들의 졸업과 아버지의 학력

12세에서 25세의 청소년

%	전체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졸업 (아버지)	중학교 졸업 (아버지)	고등학교 졸업 (아버지)
학교 중퇴	1	2	1	0
초등학교 졸업	18	34	12	5
중학교 졸업	36	40	43	21
고등학교 졸업	45	24	44	74
관련 없음	0	0	0	0

Shell Jugendstudie 2006
TNS Infratest Sozialforschung

공식적으로 독일에서는 모두가 균등한 교육기회를 갖지만, 청소년들이 졸

업을 하는 비율은 아버지의 학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표 IV-6>. 어머니의 학력을 적용하여도 결과는 비슷하다.

따라서 정식 교육에 대한 기회는 사회 계층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PISA에 의하면 실제 학교에서의 성적에 대한 사회계층의 영향은 더 크다 (PISA-Konsortium Deutschland 2004). 그리고 줄어든 고등교육 기회는 서민층의 실업의 위험을 증가시킨다<표 IV-6>.

<표 IV-7> 졸업 성공 여부에 따른 직업적 지위

12세에서 25세까지 학교를 마친 청소년

%	전체	중퇴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급 기술대학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
실업 / 무업	16	61	25	17	15	7
견습생	28	4	32	36	25	15
학생	20	-	-	1	17	60
취업함	36	25	43	46	42	18

Shell Jugendstudie 2006
TNS Infratest Sozialforschung

7. 잘나가는 젊은 여성들

1990대 초부터는 젊은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아서 젊은 남성들 보다 더 좋은 졸업률을 보인다. 그와 같이 2006년에는 젊은 여성들이 젊은 남성들보다 더 많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었고<표 IV-8>, 그리고 젊은 여성들은 더 높은 학위를 받고 싶어한다<표 IV-9>.

<표 IV-8> 재학 중인 학교의 시기적 비교

학교를 다니고 있는 12세에서 21세의 청소년

%	2006			2002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초등학교	19	22	17	21	24	19
중학교	25	25	25	25	24	26
고등학교	43	40	47	41	39	43
종합학교	5	6	5	7	6	7
기타학교	7	7	6	6	7	4

Shell Jugendstudie 2006
TNS Infratest Sozialforschung

<표 IV-9> 원하는 교육수준에 대한 시기적 비교

학교를 다니고 있는 12세에서 21세의 청소년

%	2006			2002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초등학교 졸업	12	13	11	14	16	13
중학교 졸업	32	33	30	31	32	31
고급 기술대학 입학자격	5	6	4	4	4	3
고등학교 졸업	51	47	55	49	46	53
관련 없음	1	1	0	2	3	1

Shell Jugendstudie 2006
TNS Infratest Sozialforschung

과목과 직업의 선택 때문에 젊은 여성들의 증가된 교육에 대한 포부가 향후 균등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대학과목의 선택은 성별에 따라 매우 다르다(Statistisches Bundesamt 2006). 엔지니어링, 전기기술과 엔진개발은 자연과학과 더불어 아직도 남자들의 세상이다. 반면, 독문학과 교육학은 주로 여성이 선호하는 과목이지만, 기술과학 분야와 평등하게 급어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참 고 문 헌

- Deutsche Shell (Hrsg.). (2000). Jugend 2000. 13. Shell Jugendstudie. Opladen: Fischer.
- Deutsche Shell (Hrsg.). (2002). Jugend 2002. 14. Shell Jugendstudie. Opladen: Fischer.
- Deutsche Shell (Hrsg.). (2006). Jugend 2006. 15. Shell Jugendstudie. Opladen: Fischer.
- Hurrelmann. (2005). Lebensphase Jugend. Eine Einführung in die sozialwissenschaftliche Jugendforschung. 8. Auflage. Weinheim/ München: Juventa.
- Lange, A. (2002). 'Lebensführung' als eine integrative Perspektive für die Jugendforschung. Zeitschrift für Soziologie der Erziehung und Sozialisation 22: 422-435.
- PISA-Konsortium Deutschland (Hrsg.). (2004). PISA 2003. der Bildungsstand der Jugendlichen in Deutschland -Ergebnisse des zweiten internationalen Vergleichs. Waxmann: Münster, New York, München, Berlin.
- Statistisches Bundesamt. (2006). Frauen in Deutschland 2006. Wiesbaden: Statistisches Bundesamt, 2006.

V. 한국, 일본, 미국 고교생의 교육열과 가족배경의 비교

1. 문제설정
2. 한국, 일본, 미국의 가족 및 교육의 차이
3. 가설
4. 자료, 변수, 방법
5. 분석
6. 결론

V. 한국, 일본, 미국 고교생의 교육열과 가족배경의 비교*

1. 문제설정

1) 자녀의 교육을 지지하는(support) 가족 자본

본 논문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 3개국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배경이 자녀의 교육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족배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모의 경제력, 학력, 교육기대이다. 자녀의 교육을 지지하는 가족적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학교에서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배경에는 단일 요소가 아니라, 적어도 가족의 경제적 자본 (financial capital), 인적 자본 (human capital), 사회관계 자본 (social capital) 이라는 3 가지 구성요소를 들 수 있다(Coleman 1988, 1990).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부모의 경제력, 학력, 교육기대의 세 변수는 선행 연구에서도 주목 받아온 가족 자본이다.

경제적 자본이란, 가족의 재산과 수입을 말한다. 자녀의 교육비에 사적 비용의 투입이 필요할 경우, 각 가정에서 이를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는, 의무교육 종료 후의 자녀교육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

인적 자본은 교육과 훈련 등에 의해 인간이 습득한 지식과 기능이다 (Schultz 1961; Becker 1964). 자녀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부모의 학력은 가정의 인적 자본에 해당된다.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 부모는 직간접적으로 자녀에게 그 지식과 기능을 전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직접적으로 자녀의 공부를 지도하거나, 부모가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녀의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사회관계 자본이란 사회구조의 측면과 연관되면서도 「개인이든 단체 행위

* 집필자 : 마츠다 시게키, 배지혜, 와타나베 히데키(게이오대학교)

자이든, 그 구조 내의 행위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촉진하는」(Coleman 1988 : S98, 일역본은 金光 2006 : 209) 것을 가리킨다. 사회관계 자본에는 사회네트워크 구조와 그로부터 생성된 신뢰, 규범, 제재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있으며,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커뮤니티 등의 집단 수준에도 존재한다. Coleman (1988)은 자녀교육을 지지하는 가족의 사회관계 자본으로 가족 내에 어른이 있는지, 그리고 그가 자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의 여부를 든다.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여와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 역시 자녀교육을 지지하는 가족의 중요한 사회관계 자본 중의 하나이다 (McNeal 1999). 또한 가족의 규범과 가치도 사회관계 자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Bassani 2003).

한편, Coleman (1988, 1990)이 주창한 이래, 사회관계 자본을 둘러싼 논쟁은 공적이고 연대적인 사회관계 자본론과 사적이고 경쟁적인 사회관계 자본론의 대립을 불러일으켰다(金光 2006). 공적이고 연대적인 사회 자본론은 Putnam (1993)과 Fukuyama (1996) 등에 의해 계승되어 지역 커뮤니티와 사회에서의 신뢰 및 연대에 대한 연구로 발전되었다. 한편, 사적이고 경쟁적인 사회관계 자본론은 Burt (1992)나 Lin (2001)등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사회적 자원론의 입장에서 조직 및 사회에서의 자원 보유와 경쟁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그러나 Colman과 Putnam 등의 사회관계 자본 연구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애매함과 조작화 문제와 같은 비판도 있다 (Morrow 1999).

가족의 경제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관계 자본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부모의 인적 자본이 많을수록, 노동시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 자본도 운택하게 된다. 또한 인적 자본을 많이 보유한 부모일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관여 측면의 사회관계 자본도 많다. 일반적으로 핵가족 세대보다는 한부모 세대의 세대 수입이 적는데, 이는 가족 내 성인의 존재 유무라고 하는 사회관계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세 가지 자본이 서로 관련이 있기는 하나, 각 자본은 자녀교육에 대해 고유의 영향을 갖는다.

2) 경험적 견해

다음으로 각 국가 별로 가족이 보유한 자본이 자녀의 학업달성 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에서는 많은 수의 계량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근년의 연구에 주목해 보면, 주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얻을 수 있다. Amato와 Booth (1997)에 의하면, 아버지의 수입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력도 높아진다. 양친의 학력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양친의 학력이 높을수록 딸의 학력도 높아지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들의 학력이 높아진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기 효능감, 행복도,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디스트레스는 낮아진다. 사회관계 자본의 측면에서 보면, 양친이 이혼한 경우, 자녀가 양친과 함께 살거나 한 부모와 사는 경우, 자녀의 중퇴율이 높아진다 (Coleman 1988 ; Amato and Booth 1997 ; McNeal 1999). 또한 부모가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기대하는 경우, 자녀의 고등학교 중퇴율은 낮아진다 (Coleman 1988). 부모자녀간에 학교나 공부에 대한 대화가 많을수록 부모의 교사나 PTA (미국의 경우는 PTO)에 대한 관여가 많으며, 이것이 자녀의 학업성취나 중퇴율에 영향을 미친다 (Sui-Chu and Willims 1996 ; McNeal 1999).

Buchman와 Dalton (2002)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의 중학생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부모의 학력, 가정의 사회경제상황, 부모의 수학(數學) 공부에 대한 중시도가 자녀의 교육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들 세 가지 변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녀의 교육열을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들 변수가 교육열을 규정하는 효과는 미국보다 한국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자녀의 교육열과 학업성취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주로 가정의 경제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열과 학습의욕을 규정하며, 부모세대의 계층화가 자녀의 교육격차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되고 있다(荻谷 2001 ; 官本 2004). 또한 고교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교육년수가 길어질수록 대학진학 희망이 높아지며, 아버지의 교육년수가 길수록 자녀의 학습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荒牧 2002). 초/중학생의 분석에서도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本田 2004). 부모의 영향력

의 차이에 주목한 연구를 보면, 20년 전에 실시된 조사이기는 하나, 여성의 교육열에 대해 모친의 학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아버지와 관련된 변수들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岩永 1990).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가족의 사회관계 자본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Benesse교육연구개발센터(2001)의 조사에서는, 부모와 자주 대화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성적이 좋고, 학습내용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도(工藤 2001)에 따르면, 가족친족과 상담할수록 고교생활에 적응하는 의식이 높았다.

한국과 일본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리타(有田 2002)의 연구에서는 두 나라 모두 부모의 학력 및 직업과 같은 출신계층이 교육열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출신계층의 영향은 한국보다 일본이 다소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가족배경에 주목하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학업성취수준과 교육열이 높을수록, 학업성취와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근·변수용 2005 ; 김경근 2005 ; 전하람·김경근 2006).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과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 및 기대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신 외 2004 ; 김경근 2006). 또한 어머니의 취업형태와 관련해서는, 어머니의 전일제 취업이 여자 고교생과 초등학생의 교육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동범 2005). 그러나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아버지의 교육기대는, 어머니의 전일제 취업이 자녀의 교육열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부분적으로나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로부터 각국에 있어서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황, 부모의 교육년수, 가족구성 및 부모의 관여가 자녀의 교육달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살펴본 연구들에는 3개국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조사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 일본, 미국에 있어서의 가족배경과 자녀의 교육열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명하

게 알 수는 없다.

2. 한국, 일본, 미국의 가족 및 교육의 차이

자녀교육을 지지하는 가족배경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가족 및 교육제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각국의 가족에 대해서 보면, 한국과 일본은 이혼율이 낮고, 부모 모두 자녀와 함께 사는 세대가 대부분인 반면, 미국은 이혼율이 높고, 한 부모 세대가 많다.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한국과 일본에서 높고, 미국의 경우는 오히려 그러한 세대가 거의 없다 (Tsuya and Bumpass 2004).

또한 남녀성역할분업의 정도도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과 일본은 성역할분업이 강한 사회이다(Tsuya and Bumpass 2004). 미국은 여성의 노동력율이 높으나 이에 비해 한국과 일본은 낮다. UNDP (2006)가 여성의 사회진출 정도를 토대로 작성한 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을 보면,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득점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가사와 자녀 양육은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으며, 남성과 자녀의 접촉시간은 극히 짧다.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특히 한국의 아버지들이 자녀와 접촉하는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國立女性教育會館 2006). 한국과 일본은 유교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나라 (OECD 2004 ; Tsuya and Bumpass 2004) 라는 점도 양국에 있어서의 성역할분업규범은 강한 배경으로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를 분석한 한국청소년개발원(2006)은 3개국의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3개국 모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였으며, 자녀의 성적, 진로/진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의 부모는 전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국의 부모는 자녀의 성적과 진로, 진학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으며, 일본에서는 자녀의 성적에 대한 관심이 낮게 나타나는 등

의 국가별 차이도 나타났다.

각국의 고등교육제도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文部科學省 2004).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은 주로 대학 (4년제)과 전문대학 (2~3년제)로 되어 있으며, 6세부터 시작하여 12년간 초중등교육을 수료한 후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경제성장과 높은 교육열로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급속히 확대되었다.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1985년에서 2001년까지의 16년 동안 각각 1.9배, 3.0배로 늘었으며, 2004년의 고등교육진학률은 약 82.1% (교육인적자원부 2006)에 이른다.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은 주로 4년제 대학과 2년제 단기대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970년대에 20%대부터 40%에 가까운 수준까지 상승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더욱 증가하여, 2005년 현재 고등교육진학률은 약 50%에 이른다.

미국의 경우 6세부터 시작하는 12년간의 초중등교육을 마치고 고등교육에 진학한다. 고등교육기관은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으로 대별되는데, 미국의 고등교육은 일본과 한국보다 이른 시기에 확대되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대학의 신설과 기존 대학의 규모 확장이 진행되어 1980년대 초반에는 파트타임 학생을 포함하여 고등교육 진학률은 60%를 넘어 현재에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각국의 고등교육 보급이 확대되기 시작된 것은 미국, 일본, 한국 순이다. 그러나 그 시기가 가장 늦었던 한국의 경우, 지난 20년간의 급속한 보급으로 현재는 미국과 일본 이상으로 고등교육이 보급되어 있다.

3. 가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 일본, 미국에 있어서 자녀의 교육열과 가족배경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고등교육의 보급상황을 보면, 3개국 중 가장 먼저 미국에서,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일본, 최근에는 한국 순으로 고

등교육이 확대되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은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미국보다는 남성우위의 사회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한국이 부부간 성별역할분업이 강하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가족배경이 자녀의 교육열에 미치는 영향은 3개국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가족배경,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경제력, 학력, 교육기대 등 각 요인이 자녀의 교육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가족배경은 자녀의 교육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영향의 정도는, 고등교육의 보급 정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여겨진다. 어떤 나라의 경우, 고등교육이 급속히 보급되는 상황에서는 자녀세대의 학력이 급속히 높아져 부모세대의 학력과의 관련이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부모세대의 계층에 관계없이 사회전체의 교육열이 높아진다. 반대로 고등교육의 확대가 정체되고 학력간 격차가 정태적인 상태에 이르면, 부모자녀간 학력 및 사회경제적 지위의 재생산은 강화된다. 3개국에 있어서의 고등교육의 보급은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가족배경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열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에서 가장 강하고, 다음으로 일본, 한국 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한국, 특히 고등교육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한국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부모의 교육기대가 자녀의 교육열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가설은, 가족배경이 교육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와 관련된 것이다. Coleman (1988, 1990)의 논의는 젠더(gender)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Morrow 1999)고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유교문화의 영향이 강한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유교문화의 영향이 강한 나라에서는 남성보다도 여성의 교육열이 가족배경에 의해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가족 내의 자본이 일정한 경우, 남성중심의 사회에서는 한정된 자본을 남성에게 우선적으로 투자한 후에, 여성에게 투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진학단계에 있어서, 남성은 가족 내 자본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의해 진학 가

능성이 좌우되는 일이 적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고등교육 진학이 자본의 양에 좌우되기 쉽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3개국에 있어서는,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가족배경이 교육열에 미치는 남녀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과 교육기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의 차이에 관련된다. 성역할분업이 명확한 나라에서는 남성은 아버지, 여성은 어머니가 역할모델이 되는 경향이 있다. 고등교육 진학의 경우, 남성은 아버지의 학력과 교육기대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으며, 여성은 어머니의 학력과 교육기대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녀가 동성의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은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4. 자료, 변수, 방법

1) 자료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주관한 2006년 국제공동연구 「청소년과 사회화 (Socialization of Youth)」에서 5개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자료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참조). 본 논문에서는 그 중 한국은 서울, 일본은 동경, 미국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고교생 1-2년생 표본을 사용하였다.

각국의 조사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 조사는 1차 추출단위를 학교로 하여 층화2단계 무작위추출로 전국 약 2000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60개교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각 학교에서 다시 무작위로 1개 학급씩을 추출하였다. 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 이용한 표본은 714명이며, 남학생 240명, 여학생 474명, 고교 1년생 347명, 2년생 367명이다.

미국 조사는 전문리서치 회사가 보유한 인터넷 모니터링 리스트 중 중고생 자녀를 둔 대상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 이용된 표본은 354명이며, 그 중 남학생이 165명, 여학생이 189명, 고교 1년생이 177명, 2년생이 177명이다.

일본 조사는 동경(도서부 제외) 내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3학년생 남녀 개인을 대상으로 방문 유치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주민기본대장으로부터 층화2단계추출에 의해 선정되었다. 본 논문에서 이용한 표본은 345명이며, 남학생 160명, 여학생 185명, 고교1년생 174명, 2년생 171명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논문은 같은 조사표를 사용하였으나 각국의 조사대상의 추출방법 및 조사방법에 차이가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수도권 표본이지만, 미국은 대도시의 표본이라는 차이가 있다.

2) 종속변수

본 논문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자녀의 교육열이다. 조사표에서는 자녀가 받기 원하는 희망교육단계를 「중학교」, 「고등학교」, 「단기대학(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분석에서는 이를 총 교육년수로 환산한 변수를 이용하였다.¹⁾ 일반적으로 교육열 변수로는 대학 등 특정 교육단계까지의 진학의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경우, 대학 이상의 진학 희망을 원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진학희망 유무 변수가 아닌 희망하는 교육년수를 사용하였다.

3) 독립변수

본 논문의 이론적 틀을 고려했을 때, 자녀의 교육을 지지하는 가족배경으로 부모의 경제력, 학력, 자녀교육에 대한 관여라는 3 가지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석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가까운 변수들을 이용하였다. 다음에 설명하는 변수들은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측정되었다. 즉, 부모가 이별한 상태라도 그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 교육기대의 영향이 자녀에게 미칠 것으로 보고 부모가 별거 중인 사례로 다음의 변수들을 사용하였다²⁾.

1) 각국의 교육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본의 교육제도의 년수로 통일하여 환산하였다.

부모의 경제력은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화이트 칼라상층 (W 상), 화이트 칼라 하층 (W 하), 블루칼라기타 (B), 무직의 4 카테고리 구분한 지표이다. 직업적 지위는 반드시 경제력과 동등하지 않다³⁾. 그러나 세대수입 등 경제력을 나타내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세대수입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를 대리변수로 이용하였다.

부모의 인적 자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년수를 이용하였다⁴⁾.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여로서는 자녀교육달성에 대한 기대변수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학업의 성취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나의 장래 직업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희망한다」의 4개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4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의 4점 척도에 대한 응답을 합산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3개국의 표본을 합쳤을 때, 아버지의 교육기대의 α 는 0.803, 모친의 교육기대의 α 는 0.765로, 척도의 내적 일치도가 높았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성별, 학년, 가족구성을 이용하였다. 가족구성은 부모의 동거와 취로형태, 그리고 부모동거 (맞벌이) /부모동거 (전업주부세대) /부모동거 (기타) /부모 중 한 쪽과 동거의 변수를 이용하였다⁵⁾.

-
- 2) 부모가 이별한 경우,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학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부모가 이별한 케이스의 분석에서 이 변수들을 사용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부모의 동거 및 별거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있으나 이별에 대한 질문은 없다. 따라서 별거하고 있는 부모 중에는 단신부임 등과 같은 일시적인 별고를 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변수를 처리하였다.
 - 3) 구체적인 직업은 다음과 같다. W상: 대학교원, 그 외 교원, 회사 경영자, 의료 관계자, 연구원, 성직자, 법조인, 마스크 관계자, 예술가, 체육인, 연예인, W하: 회사원, 공무원, B: 경찰, 자위관, 기술/노무직, 자영업. 체육인이나 연예인은 화이트칼라는 아니지만, 경제력이 높다고 간주하여, 여기서는 가장 경제력이 높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 4)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학교제도의 교육년수로 통일하였다.
 - 5) 조사표에서는, 부모의 동거 여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한부모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부모가 단신부임을 한 경우에도, 「부모 중 한 쪽과

5) 분석방법

분석은 국가별로 표본을 나누어 실시하였다. 먼저 각국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본통계량을 비교하였다. 이로부터 각국의 교육열과 가족배경의 차이를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열을 종속변수로 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종 요인을 통제한 후에, 부모의 경제력, 학력, 교육기대가 각각 교육열에 미치는 고유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5. 분석

1) 희망교육연수와 가족배경의 비교

<표 V-1>은 3개국의 희망교육연수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남학생의 경우를 보면, 한국은 16.3년, 일본은 15.5년, 미국은 16.5년으로 일본에서 낮게 나타났다. 16년이라는 기간은 대학을 졸업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라는 점에서, 이를 초과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에서는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한국은 16.3년, 일본은 15.4년, 미국은 16.6년으로 나타났다. 3개국을 비교하면, 한국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분산이 적다. 이는 한국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정도의 학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각국의 가족배경의 차이를 보자.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를 <표 V-2>에 제시하였다. 한국은 전문직이 포함된 화이트칼라 상층 (W 상)이 16.7%, 일반 회사원이 포함된 화이트 칼라 하층 (W 하)이 32.0%, 블루칼라가 48.1%이다. 일본은 각각 8.2%, 67.7%, 22.9%로 화이트칼라 하층에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 미국은 각각 18.4%, 6.8%, 41.5%로 나타났는데, 미국의 경우 특징적인 점은 아버지가 무직인 경우가 약 10%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을 보면,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는 일본에서는 그 차이가 작으나

동거」로 분류된다. 부모 중 어느 쪽과도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⁶⁾.

<표 V-3>에는 부모의 교육연수를 제시하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미국의 교육연수가 가장 길며, 다음으로 일본, 한국 순이다.

부모의 교육기대는 <표 V-4>에 제시한 바와 같다. 아버지의 교육기대는 한국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 일본 순이다. 어머니의 교육기대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 한국은 부모 모두 교육기대의 평균수준이 높으며, 또한 교육기대가 낮은 부모와 높은 부모 간의 차이가 작다. 달리 말해 한국은 광범위한 층에서 교육열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V-1> 한국, 일본, 미국 고교생의 희망교육연수 기술통계

	남학생		여학생	
	M	SD	M	SD
한국	16.3	1.2	16.3	1.0
일본	15.5	1.5	15.4	1.5
미국	16.5	1.5	16.6	1.7
F-value	24.7***		41.9***	

***p <.001

<표 V-2> 한국, 일본, 미국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

	W상	W하	B·기타	무직
한국	16.7	32.0	48.1	3.1
일본	8.2	67.7	22.9	1.2
미국	18.4	26.8	41.5	13.3
χ^2	199.1***			

***p <.001

6) 미국은, 대도시 표본이라는 점에서,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의 분산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표 V-3> 한국, 일본, 미국 부모의 교육연수 기술통계량

	M	SD	M	SD
한국	14.0	2.6	13.1	2.4
일본	14.4	2.1	13.5	1.6
미국	14.8	2.3	14.9	2.0
F-value	13.3***		86.3***	

***p <.001

<표 V-4> 한국, 일본, 미국 부모의 교육기대 기술통계량

	아버지		어머니	
	M	SD	M	SD
한국	13.1	2.4	13.7	2.2
일본	10.8	3.1	11.2	2.9
미국	12.8	2.7	13.4	2.1
F-value	87.0***		137.8***	

***p <.001

2) 중다회귀분석

희망교육연수를 종속변수로 한 중다회귀분석결과는 <표 V-5>와 같다. 분석은 각국 남녀 표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연수,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기대는 서로 상관이 높기 때문에 모델 1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연수와 교육기대를, 모델 2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연수와 교육기대를 이용하는 두 개의 모델을 작성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 부모의 교육연수, 부모의 교육기대를 중심으로 결과를 기술해 보자.

먼저, 한국의 분석결과를 보자. 한국의 첫 번째 특징은 남녀 모두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가 자녀의 희망교육연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버지가 무직인 경우에는 남학생의 희망교육년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오히려 화이트칼라 하층보다 자녀의 희망교육년수가 긴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둘째, 부모의 교육년수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본인의 희망교육년수는 부모의 교육년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교육년수가 길수록 희망교육연수가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수준은 낮았다. 즉, 아버지의 교육년수가 4년 길어질 때, 여학생의 희망교육년수가 약 0.1년 길어지는 정도여서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셋째, 아버지의 교육기대가 높을수록 남녀모두 희망교육년수는 길어진다. 어머니의 교육기대가 높으면, 남학생의 희망교육년수는 변하지 않으나 여학생의 희망교육년수는 길어진다. 부모의 교육년수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부모의 교육년수와 교육기대의 영향은 종합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경우에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분석결과를 보자. 일본의 첫 번째 특징은 부모의 교육년수와 교육기대 모두 자녀의 희망교육년수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한편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의 영향은 전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⁷⁾.

둘째, 남학생에게서는 아버지, 여학생에게서는 어머니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년수와 교육기대를 이용한 모델 1의 설명력이, 어머니의 교육년수와 교육기대를 이용한 모델 2의 설명력보다 높다. 여학생의 경우는 그 반대이다. 남학생의 경우, 특히 아버지의 교육년수의 영향이 크다. 아버지의 교육년수가 4년 길어지면, 남학생의 희망교육년수는 약 1.4년 정도 길어진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분석결과를 살펴보자. 미국의 첫 번째 특징은 한국, 일본과는 달리,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화이트칼라 하층인 여학생에 비해 아버지가 블루칼라인 여학생의 희망교육년수가 짧다. 아버지가 무직인 경우에는 남녀모두 희망교육

7) 아버지가 무직인 경우, 여학생의 희망교육년수가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해당케이스의 수가 적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석은 피하였다.

연수가 짧아진다. 아버지가 무직이라는 점이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의 교육 연수와 교육기대 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모델 1에서는 관찰되지 않지만, 이는 아버지가 무직인 경우에는 학력이 낮은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아버지들은 교육기대 역시 낮다는 점과 관련됨을 시사한다.

또한 맞벌이 부모세대에 비해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세대의 경우, 여학생의 교육열이 낮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점이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일본 이상으로, 부모의 취업형태가 세대의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한국과 일본만큼 아버지의 수입과 전업주부율의 관련이 크지 않은 미국에서는 맞벌이세대에 비해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세대의 세대수입이 낮아지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세대에서의 여학생의 교육열이 낮은 것은 여학생의 교육열이 가정의 경제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미국에 있어 부모의 교육기대가 갖는 영향은 한국과 일본보다 약하다. 남학생의 희망교육년수는 아버지의 교육기대에 의해서도, 어머니의 교육기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기대만이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일본과 마찬가지로 남학생은 아버지, 여학생은 어머니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은 아버지의 교육년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여학생은 어머니의 교육년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단, 미국 표본은 한국과 일본보다 한 부모와의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표본을 양부모와 동거하는 고교생으로 한정하면, 남학생은 부모의 교육년수와 교육기대의 영향을 모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남학생에 대한 부모의 영향은 그

8) 본 조사에서는 세대소득에 대한 질문항목이 없기 때문에, 양자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육년수와 소득 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교육년수로부터 관계를 유추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부모가 맞벌이인 세대와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세대에 있어서 아버지의 교육년수를 비교해 보면, 일본과 한국에서는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에 아버지의 교육년수가 높게 나타나지만, 미국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즉, 일본과 한국에서는 아버지의 소득이 높으면,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일본과 한국보다, 어머니의 소득이 세대소득을 규정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부모와 동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학생의 분석결과는 <표 V-6>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양친과 동거하는 고교생이라도 앞에서 언급한 미국의 첫 번째, 세 번째 분석결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가족배경이 자녀의 희망교육년수에 미치는 영향은 3개국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가설 검증 결과에 따라 각국에서 가족배경의 영향이 다른 이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표 V-5> 한국, 일본, 미국 청소년의 희망교육년수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model1	model2	model1	model2	model1	model2	model1	model2	model1	model2
정수	13.5 ***	15.277 ***	14.667 ***	14.851 ***	9.615 ***	11.966 ***	12.030 ***	10.481 ***	12.465 ***	14.067 ***
고2	-.083	-.054	-.183 +	-.186 +	.182	.229	-.046	-.030	.424 +	.362
부모 (동거·맞벌이)										
동거·전업주부가족	.109	.114	.078	.091	.355	.416 +	.118	.169	.117	.066
동거·기타	1.199	1.552	.638	.611	-	-	-	-	.201	.538
한쪽 부모만 동거	-.314	-.709 *	.029	-.048	-.891	-1.139	.965	1.165 *	-.060	-.215
아버지 W상 (W하)	-.027	.003	-.043	-.023	.056	.357	.433	.455	-.480	-.372
B	.050	.070	-.007	-.086	.111	-.251	.182	.171	.253	.065
무직	.917 +	.391	-.022	-.078	1.077	1.366	-	-3.841 **	-.546	-1.072
아버지교육년수	.011		.034 +		.339 ***		.123 *		.189 ***	
어머니교육년수		.050		.017		.152 *		.234 ***		.085
아버지교육기대	.064 +		.091 ***		.074 +		.148 ***		.078	
어머니교육기대		.026		.095 ***		.113 *		.154 ***		.082
F-value	1.2	1.5	3.9 ***	3.4 **	8.4 ***	3.3 **	5.5 ***	7.1 ***	3.2 **	1.8
Adj-R ²	.009	.018	.054	.045	.288	.113	.162	.227	.111	.041
N	227	225	455	450	146	148	165	167	162	165

+p<.10 *p<.05 **p<.001 ***p<.001

6. 결론

부모의 경제력, 학력, 교육기대는 자녀의 교육열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일본, 미국이 큰 차이를 보였다.

먼저 첫 번째 가설에서는 가족배경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열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본, 한국의 순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 가설은 대체로 지지되었다. 미국 청소년의 희망교육년수는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에 좌우되며, 또한 동성 부모의 교육년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부모의 교육기대의 영향은 다른 나라보다 약하다. 일본의 경우,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의 영향은 보이지 않으나 부모의 교육년수의 영향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교육기대의 영향도 크다. 한국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의 영향은 보이지 않았으며, 부모의 교육년수의 영향 역시 미미하였다. 한국 청소년의 희망교육년수를 규정하는 것은 부모의 교육기대이다. 이와 같은 한일 간의 차이는 아리타(有田200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고등교육이 급속히 보급되는 시기에 있는 한국에서는 출신계층에 관계없이 교육열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부모의 교육기대 수준이 매우 높고, 분산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신계층에 관계없이 교육열이 높고, 계층에 관계없이 높은 부모의 교육기대가 자녀의 교육열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입시경쟁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여 진다.

한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효과는 일본과 미국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이미 고등교육의 확대가 일단락된 두 나라에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에 계층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조사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정도가 일본보다는 미국에서 강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⁹⁾. 단, 일본의 경우 같은 직업인 경우에도 학력에 의한 임금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교육년수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계층재생산 논의가 활발하다 (예를 들어, 佐藤2000,

9) 미국에서 자녀의 희망교육년수에 대한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 배경으로는, 고등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일본이나 한국 이상으로 높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2001). 고등교육 또는 그를 위한 전단계에 높은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는, 자연히 이를 부담할 수 있는 가정의 자녀가 교육달성에 유리하다. 자녀세대의 교육확대가 일단락되고 포화상태에 이르러,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에 대한 요구도 정체되면,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높은 비용을 투자하여 자녀를 고등교육까지 진학시키려는 의욕은 저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출신계층에 따른 자녀 교육의 「인센티브 디바이드」(荅谷 2001)가 발생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두 번째 가설에서는 가족배경이 교육열에 미치는 영향의 남녀차이는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클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 가설은 기각되었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는 남녀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희망교육년수는 아버지의 교육기대로부터만 영향을 받지만, 여학생은 아버지의 교육년수 뿐 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기대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설과는 달리 미국에서도 가족 배경의 영향에 남녀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는 여학생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기대는 남학생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여학생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에서 3개국 중 남녀차이가 가장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일본이다. 일본은 남녀모두 가족배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자녀의 교육열에 미치는 가족배경의 영향은 유교문화와 사회의 성별역할분업 정도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단, 일본의 경우, 남녀의 희망교육년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여학생은 단기대학, 남학생은 고등전문학교 등으로 진학목표가 다르며, 진학하는 대학의 학부가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교육년수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가설은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자녀가 동성의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 클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 가설 역시 지지되지 않았다. 동성 부모로부터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은 일본이며, 다음이 미국이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남학생은 아버지, 여학생은 어머니의 교육년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된 한국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의 여학생은 부모 양쪽의 교육기대의 영향을 동등하게 받았으며, 아버지의 교육년수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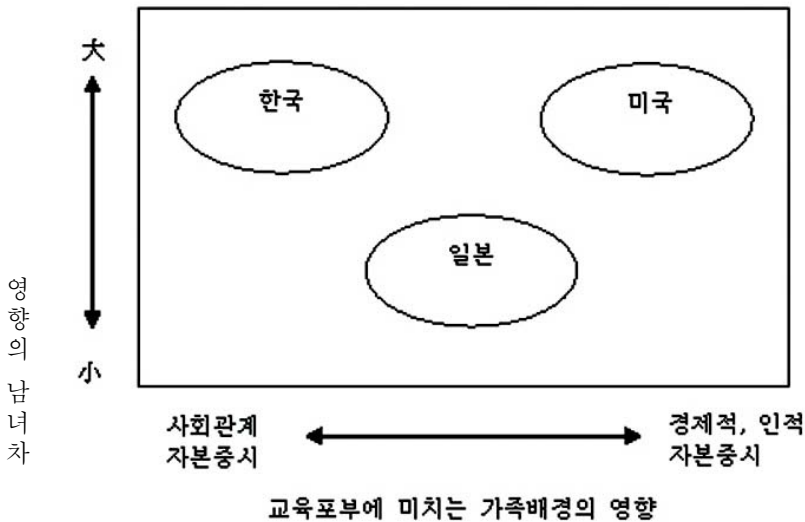
3개국 중 가장 성별역할분업이 강한 한국에 경우 이 가설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배경에는, 한국이 남녀 모두에게 급속히 고등교육진학률이 확대된 시기라는 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 고등교육의 확대가 일단락된 후에 이 가설에서 가정된 바와 같은 관계가 나타난다면, 이번 한국조사의 결과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서, 사회의 성역할분업은 자녀가 동성의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을 강화하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국에서 이 가설에서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녀가 동성의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은 사회의 성역할분업 이외의 차원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향후의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 설정한 가설은, 지지된 것도 있고 지지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나 가족배경은 자녀의 교육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그것이 작용하는 방식은 각국의 사회경제, 교육, 가족배경의 차이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가설 1과 2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육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배경의 영향과 그 영향의 남녀차이에 주목하여 3개국을 분류해 보면, <표 V-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적 자본으로는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 인적 변수에 해당하는 변수로서 부모의 교육연수, 사회관계 자본에 해당하는 변수로는 부모의 교육기대를 사용하였다.

한국은 부모의 경제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보다는 사회관계 자본이 자녀의 교육열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또한 그 영향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강하게 나타나는, 남녀차이가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부모의 경제적 자본의 영향은 보이지 않으나, 인적 자본과 사회관계 자본이 자녀의 교육열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남녀 간의 차이는 적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부모의 사회관계 자본보다는 경제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영향이 강하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그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남녀차이가 큰 나라

에 속한다. 이러한 분류에 의하면, 본 조사의 대상국 3개국의 상황은 서로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가족배경으로서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 부모의 교육년수, 부모의 교육기대에 주목하였으나, Coleman (1988, 1990) 등의 선행연구를 볼 때, 이 밖에도 자녀의 교육열을 규정하는 요인은 많다. 각국의 상황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본 조사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가족의 각종 자본의 영향까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분석에서 사용된 표본은 한국과 일본이 수도권, 미국이 중대도시라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각국 모두 도시와 지방에서 자녀의 교육열 및 이를 지지하는 가족배경이 크게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가족배경은 자녀의 교육열 뿐 아니라 그 후의 지위 달성이나 자기 효능감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가족배경이 교육열 이외의 다른 측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논문은 여러 가지 제약과 과제를 안고 있다.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와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림 V-1] 교육열에 미치는 가족배경의 영향과 성별 차이에 대한 비교

참 고 문 헌

- Amato, Paul R. and Alan Booth, 1997, *A Generation at Risk: Growing Up in an Era of Family Upheaval*, Harvard University Press.
- Arita, Shin, 2002, "Kyoiku Aspiration to sono Kitei Kozo (Educational Aspiration and the Determinant)," Nakamura, K., Fujita, T., and Arita, S. eds, *Kyoiku kara miru Nihon to Kankoku: Gakureki, Senbatsu, Gakkou no Hikaku Shakaigaku* (Comparison sociology of Japan seen from education and South Korea academic background, selection, and school), Toyokan Shuppan Sha, 53-72.
- Aramaki, Sohei, 2002, "Learning Attitudes and Educational Expectations of Current High School Students: Th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and Value Orientations," *The Journal of Educational Sociology*, 71: 5-23.
- Bassani, Cherylynn, 2003, *Social Capital Theory in the Context of Japanese Children*, *Electronic Journal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 Becker, Gary, 1964,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 Benesse Educ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2001, *Daisankai Gakushu Kihon Tyosa Houkokusho* (The 3rd study basis investigation report).
- Buchman, Claudia and Ben Dalton, 2002, "Interpersonal Influences and Educational Aspiration in 12 Countries: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Context," *Sociology of Education*, 75(April): 99-122.
- Burt, Ronald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S95-120.
- Coleman, James S., 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Harvard University Press.
- Fukuyama, F., 1996,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 Honda, Yuki, 2004, "Hikyoiku Mama Tachii no Shozai (Non-education minded mother's whereabouts) ", In Honda, Yuki ed, *Josei no Shugyo to Oyako Kankei: Hahaoya Tachi no Kaisou Senryaku* (Woman's starting work and relationship between a child and his parents: the mothers' hierarchical strategies), Keiso Shobo, 167-184.
- Iwanaga, Masaya, 1990, "Aspiration to sono Genjitsu (Aspiration and the achievement: the one that mother tells daughter)", Okamoto Hideo and Naoi Michiko eds,

- Gendai Nihon no Kaisou Kouzo 4: Josei to Shakai Kaisou (Layered structure of present age Japan 4: women and social stratification), University of Tokyo Press, 91-118.
- Kariya, Takehiko, 2001, Kaisoka Nihon to Kyoiku Kiki: Hu Byodo Saiseisan kara Iyoku Kakusa Shakai he (Hierarchizing Japan and educational crisis: from an unequal reproduction to the incentive divide society), Yushindo.
- National Women's Educational Center, 2006, Heisei 16 Nendo, 17 Nend, Katei Kyoiku ni Kansuru Kokusai Hikaku Tyosa Houkokusho (International comparison investigation report concerning family education).
- Kudo Yasunori, 2001, "Koukousei no Sodan Network: Junkyo Jin, Junkyo Shudan, Shakai-ka (High school student's consultation network: reference person, reference group, and socialization)," Ojima, Humiaki ed, Gendai Koukousei no Keiryō Shakaigaku Present age high school student's sociometry), Mineruva Shobo, 159-182.
- Lin, Na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Neal, Ralph B., 1999, "Parental Involvement as Social Capital: Differential Effectiveness on Science Achievement, Truancy, and Dropping Out," Social Forces, 78(1): 117-144.
- Miyamoto, Michiko, 2004, Post Seinenki to Oyako Senryaku: otona ni naru Imi to Katachi no Henyo (Post youth age and parent and child strategy: transformation of meaning and shape to grow up), Keiso Shobo.
-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04, Heisei 15 Nendo Monbu Kagaku Hakusho (Education science white paper in 2003 fiscal year).
-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06, Kyoiku Shihyo no Kokusai Hikaku Heisei 18 Nendo Ban (2006 international comparison versions of educational index).
- OECD, 2004, OECD Country Not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
- Morrow, Virginia, 1999, "Conceptualizing Social Capital in Relation to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a Critical Review," Sociological Review, 47(4): 744-765.

- Putman,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 Sato, Toshiki, 2000, Hu Byodo Shakai Nippon: sayonara Sou Tyuryu (Japan that is unequal society: total middle reaches of goodbye), Tyuou Kouron Shinsha.
- Schultz, T., 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1-17.
- Sui-Chu, Esther Ho and J. Douglas Willims, 1996,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Eighth-Grade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69(April):126-141.
- Tsuya, Noriko O. and Larry L. Bumpass, 2004, Marriage, Work, and Family in Comparative Perspective: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Hawaii Press.
- UNDP, 2006, Human Development Report 2006.
- UNICEF, 2007,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Lives and Well-being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he Economically Advanced Nations.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통계연보」.
-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김경근·변수용, 2006, 「한국사회에서의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4), 1-27.
- 김경근, 2006, 「학업성취에 대한 가족해체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6(1), 27-49.
- 박영신·김의철·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중단연구; 자기 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10(3), 37-59.
- 주동범, 2005,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자녀의 교육포부수준과의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16(2), 141-161.
- 전하람·김경근, 2006, 「고등학생의 교육포부 결정요인 분석 ; 의미 있는 타인의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6(4), 185-206.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국제비교연구』.

VI.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부모-자녀 관계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결과
5. 결론 및 토의

VI.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부모-자녀 관계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1. 서론

현대사회에서 학업성취의 결과, 즉 학력은 개인의 직업이나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은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위신, 명예 등을 결정짓는 지표가 되어왔다(이정환, 2002; 구인회, 2003). 이처럼 학업성취의 결과가 개인의 사회적 이동을 가능케 함은 물론 자신이 속한 가족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과도하게 가열되어 있고,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열정이 기타 외국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장상수·손병선, 2005).

학업성취의 결과에 대해 관심은, 과연 무엇이 학업성취를 결정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된다. 일찍이 많은 연구자들이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을 결정짓는데 있어서 가정환경의 중요성에 주목을 하고 연구를 진행해왔다(Teachman, Paasch & Carver, 1997). 가정환경, 특히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자녀의 학업성취와의 관련을 분석한 연구는 블라우와 던컨(Blau & Duncan, 1967)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부모의 교육수준 또는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해왔다(Brooks-Gunn & Duncan, 1997; Mayer, 1997; Yeung, Linver & Brooks-Gunn, 2002). 이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직업적 성공을

* 집필진: 김은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였다. 경제학자 벡커(Becker, 1993)의 논의에 따르면, 각 가정에서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을 높이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의 양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에게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즉 그의 논의는 결국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인적 자본 창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가족에서 흔히 자녀의 학업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취하는 방식은 과외/학원 수업 등의 사교육과 관련한 투자를 높이는 것이다. 부모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결국 벡커(Becker, 1993)의 논의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가정환경과 자녀의 학업성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소득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된 사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형성하는 자원들이 어떠한 기제를 통하여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장미혜, 2002; Yeung, Linver & Brooks-Gunn, 2002). 앞에서 언급한 벡커(Becker, 1993)의 논의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의 크기가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자 수준을 결정하며, 그 투자 수준에 따라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왜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의 크기가 투자 수준의 차이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의 논의는 극단적으로 볼 때, 자녀 대의 인적자본 창출을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으로 환원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가족 내에서 부모의 자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되는가, 즉 가정배경과 자녀의 학업성취 사이의 ‘연관관계를 매개해주는 추가적인 인과요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Teachman, Paasch & Carver, 1997; 장미혜, 2002).

사회경제적 자원의 차이로 자녀의 인적자본 창출을 분석한 벡커(Becker, 1993)와는 달리 교육사회학자 콜만(Coleman, 1988)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자

녀의 학업성취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가족 내의 관계성에 주목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자원전달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사회자본’이라고 명명하며 분석과정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그는 ‘가정배경’을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뿐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라는 관계적 요소를 포함하여 재정의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 때 비로소 가정배경과 자녀의 학업성취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Coleman, 1988). 콜만(Coleman, 1988)의 논지에 따르면 자녀들은 부모의 자원에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고, 가정에서의 사회자본, 예를 들어 관계성의 차원인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서 가정 내 자원에 접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만을 주목해서는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자녀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즉 가정의 자원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가정의 자원에 접근하여 이용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가정 내 통로인 ‘부모-자녀 관계’를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요구에 귀 기울일 때 부모의 수입이나 교육수준 등의 자원이 자녀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고, 자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부모의 자원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Lee, 1993; Zill & Nord, 1994). 또한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자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고, 성취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김두환, 2005),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서 전달된 가정의 자원을 자신의 학업성취수준을 개선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듯 콜만(Coleman, 1988)의 가족과정(family process)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한다면 가정의 사회 경제적 자원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구체적인 기제를 설명할 수 있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을

증진시키는데 부모-자녀 관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찰함으로써 가족배경과 자녀들의 인적자본 창출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한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수준을 분석에 포함하여, 과연 부모-자녀 관계의 형성과 무관하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물질 투자를 통해서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능한가를 함께 살펴 볼 것이다. 이 같은 작업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전달하는 기체로서의 부모-자녀 관계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이론적 배경

1)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원, 사교육비, 그리고 자녀의 학업성취 사이의 관계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정배경의 영향을 연구한 콜만(Coleman, 1988)은 가정배경은 물질자본(financial capital), 인적자본(human capital), 그리고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중 물질자본과 인적자본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자원을 형성한다. 물질자본은 운용 가능하고 가시적이라는 것이 그 특징이며, 자녀의 학업성취를 진작시키기 위한 물리적 재화를 공급한다. 일반적으로 물질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가구소득'이 사용된다. 가구소득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Yeung, Linver & Gunn, 2002), 대체적으로 가구 소득은 자녀의 심리·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졌다(Brooks-Gunn & Duncan, 1997; Duncan & Brooks-Gunn, 1997; Jencks & Phillips, 1998; Mayer, 1997).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자원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의해 측정되는 부모의 인적자본이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 중에서도 자녀의 학업성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Parcel & Dufur, 2001).
이처럼 부모의 물질·인적 자본은 자녀의 지적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벡커와 그 동

료들은 자녀의 학업·경제적 성공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물적·인적 자원, 즉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소득이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전적 형질(예를 들어 지능지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라고 보았다(Becker, 1993; Becker & Thomes, 1986).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투자의 양이 줄어들게 되므로, 가구 소득이 낮은 가정은 높은 가정에 비해 자녀의 인적자본을 창출하는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본다. 벡커(Becker, 1993)와 같은 투자이론(investment theory)자들의 논의는 자녀의 학습 환경·조건에 대한 투자가 자녀들의 학업·경제적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자녀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 외에 가정에서 투입되는 부가적인 교육에 의해 이루어진다(양정선·김순미, 2003). 한국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행하는 공교육 외의 투자는 과외 등에 소요되는 사교육비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가계의 중요한 목표가 자녀교육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므로(이승신, 2002), 가계에서 소요되는 사교육비는 지출이라기보다는 벡커(Becker, 1993) 등이 이야기하는 인적 자본 창출을 위한 투자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투자이론자들의 논의에 따르면 그 이유는 가족 내에서 자녀의 인적자본 창출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의 절대량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한국가족에 적용시킨다면, 자녀를 위해서 사용되는 사교육 비용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사교육 비용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본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초중고 재학생의 50%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각 가계에서 지출해야 할 총 사교육비 비중은 가정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교육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족의 경제적 자원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양정호, 2005; 박창남·도중수, 2005).

그런데, 사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가계의 사교육비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축적된 연구(이승신, 2002; 양정선·김순미, 2003; 이성림, 2006)가 많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

교육이 자녀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에 관한 연구들은 수가 작고, 그들의 결과 또한 합의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한대동, 2001; 김경식, 2003). 따라서 사교육이 실제로 자녀들의 인적자본을 창출하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겠다(이정환, 2002).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자녀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높이는 데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본과 사교육비, 그리고 자녀의 학업 성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부모-자녀 관계

(1) 부모-자녀관계의 변수화

콜만(Coleman, 1988)은 부모의 물질적 그리고 인적자본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부모가 자녀들의 삶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물질·인적 자본을 가정 외에서 활용한다면 자녀들의 학업성취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단순히 부모의 높은 수입과 교육수준에 의하여 자녀의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는 자녀의 학업 성취를 결정하는데 물질·인적 자본 등 실제적인 자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사회 자본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가 정의한 사회자본이란 물질, 인적 자본과 같은 ‘실재물’이라기보다는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 내재해 있는 ‘비실재물’(예를 들어 부모 자녀관계와 같은 관계성의 산물)이다. 그는 부모 자녀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자본 없이는 부모들의 물질자본이나 인적자본이 다음 세대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자본이 부모의 실재자본에 첨가되어야 자녀들 자신의 인적자본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콜만(Coleman, 1988)은 가정에서의 사회자본이란 부모-자녀관계, 자녀의 학습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부모가 들이는 노력, 관심, 자녀 학습에의 개입 등의 총체라고 하면서(이정선, 2001)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의 중요성을 역설한 반면, 실제 분석에서 이 개념을 어떻게 변수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이기홍, 2005; Paxton,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대신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라는 보다 가시적이고, 선행연구에서 어느정도 변수화 작업이 진행되어 있는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

‘부모 자녀 관계’라는 개념은 수용(acceptance), 사랑, 부모의 애착, 지지, 지원행동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범윈드(Baumrind, 1967; Bronstein et al, 1996에서 재인용)의 1967년 연구는 이 개념을 통합하여 정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범윈드(Baumrind, 1971; 1973)는 위에서 언급한 수용, 사랑, 애착 등을 포함하는 ‘지원적(supportive)’ 부모행동 뿐 아니라 ‘통제적이고 압력적’인 부모행동을 포함하여 부모자녀관계를 정의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Heatherington & Clingempeel, 1992).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지원적인 부모의 행동, 예를 들어 부모-자녀 사이의 대화빈도라든지 애착 등이 자녀의 심리·인지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밝혀졌다(Conger et al., 1992; Bronstein et al., 1996; Ketschis, Ryan & Adams, 1998). 그러나 지원적인 부모의 행동에 비하여, 통제적인 부모행동이 자녀의 발달, 특히 자녀의 학업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범윈드가 1967년 연구에서 부모자녀관계의 한 축으로 통제적 부모행동을 포함하여 분석한 이후 통제적 부모행동과 자녀 발달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원적인 부모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반면, 통제적 부모행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범윈드(Baumrind, 1971)는 자녀의 인지 발달에 부모의 관리 감독이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는 반면, 캠벨과 맨델(Campbell & Mandel, 1990)은 지나친 부모의 압력이나 감독은 자녀의 학업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밝히고 있어 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통제적 부모행동의 하나인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높은 ‘기대’가

자녀의 학업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자에 따라 그 해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모의 기대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경제적 자원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주장이 있는가하면(Keith, Keith, Troutman, Bickley, Trivette, & Singh, 1993; Entwisle & Alexander, 1996), 부모의 지나친 기대나 열망이 압력이 되어서 오히려 자녀의 학업발달에 저해가 된다는 주장(Boike et al., 1978)도 있어서 합의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윈드(Baumrind, 1971)의 논의와 그 이후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들은(Keith, Keith, Troutman, Bickley, Trivette, & Singh, 1993; Bronstein et al., 1996) 부모-자녀 관계란 단일 개념이 아니고 다면적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양하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부모자녀관계라는 개념을 변수화하는 작업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부모자녀관계’: 가족과정론적 시각

일찍이 가정학 분야에서는 ‘부모-자녀 관계’를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친밀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서, 또는 자녀의 학업·심리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독립변인으로서 중요하게 취급해 왔다(한주리·허경호, 2005; Vandewater & Lansford, 2005). 그러나 이들은 가정 내 부모-자녀 관계라는 가족과정(family process)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수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 가족·교육사회학 분야에서는 ‘부모-자녀 관계’라고 하는 미시적인 가족 과정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라고 하는 거시적인 가족구조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를 살핌으로써 가족관계에만 방점을 두어 분석해온 가정학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Conger et al., 1992; Conger, Paterson & Ge, 1995). 이들은 주로 가족빈곤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가족 빈곤이라는 구조적 상황은 부모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 부모의 양육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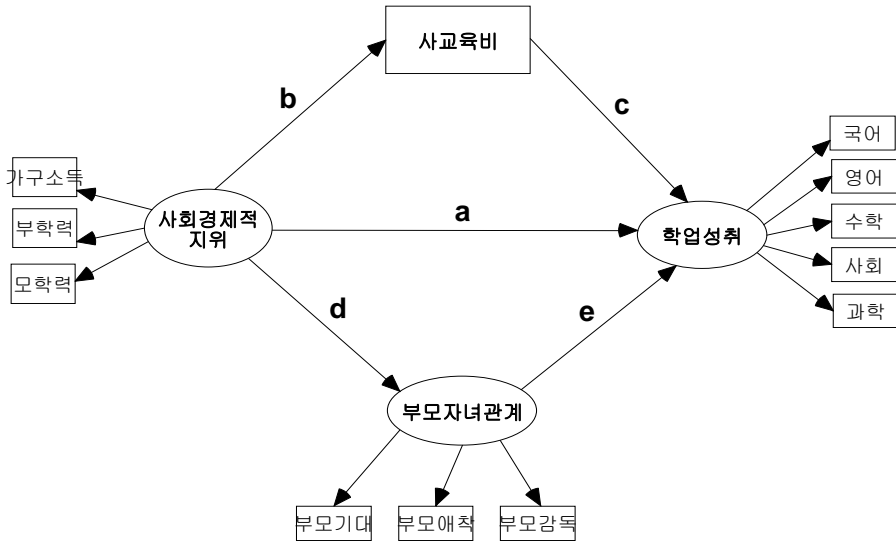
동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자녀의 학업성취 및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Conger et al., 1992; McLyod, Jayaratne, Ceballo & Borquez, 1994). 이러한 시각은 벡커(Becker, 1993)등의 투자이론자(인적자본론자)들의 논의와는 달리, 가정의 환경에 따른 부모들의 심리적 상황과 그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라는 가족과정을 추적하면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하겠다. 가족과정론자들은 가족의 경제적 지위/상황이 부모의 정서와 자녀와의 관계/양육행동 등과 같은 가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Jackson et al., 2000; Yeung, Linver & Brooks-Gunn, 2002).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이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주고, 이는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친 결과 자녀의 심리·인지·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부모의 양육행동 등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학업 성취 수준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인적 자본을 창출하는 기제를 설명하고 있다.

3)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라고 하는 가족 기능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원을 자녀에게 전달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원과 부모-자녀관계 사이에 긍정적 관계성이 발견되고, 또한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인적자본을 형성하는 연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족의 구조와 가족기능 또는 가족과정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 고찰함으로써, 가족과정론자들의 논의를 검증해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가족에 있어서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이는 데 일반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는 것은 과외 등의 사교육이다. 인적자본론자(또는 투자이론자)들의 논의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인적자본 창출을 위한 투자의 한 형태로서 가정환경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데 매

개변수로 간주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자본의 투자 형태로서 사교육비 지출이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이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자녀의 학업성취 사이의 인과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두 개의 모형을 비교하고자 하는데, 연구모형 1은 첫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a)에서 매개변수로서의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받으며(d), 이는 결과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로(e)를 설정하였다. 둘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a)에서 매개변수로서의 사교육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받으며(b), 이는 결과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로(c)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연구모형 1은 사교육비와 부모-자녀 관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인적자본을 창출하는 경로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다는 가정을 포함한 모형이다. 연구모형 2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받은 사교육비(b)와 부모-자녀 관계(d)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데(각각 c, e), 매개변수로서 사교육비와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a)를 완전히 매개할 수 있다는 가정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두 모형의 비교를 통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는데 사교육비와 부모-자녀 관계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모형 1의 경로: a, b, c, d, e

연구모형 2의 경로: b, c, d, e

[그림 VI-1] 연구모형 1과 2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 조사의 2차년도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패널조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 3,449명이다. 이들의 성별은 무 응답자 261명을 제외하고 남자 1,594명(50%), 여자 1,594명(50%)이었다. 연구대상자인 학생들의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무 응답자 343명을 제외하고 2,931명(94.4%)이 친부·친모가 모두 생존해 있다고 대답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2,997,200원으로 2004년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계소득 2,970,948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부의 학력은 전체의 52.3%가 중졸·고졸의 학력을, 17.3%가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학력은 전체의 72.6%가 중졸·고졸의 학력을 소지하였으며, 단지 1.6%만이 석사이상이었다. <표 VI-1>은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표 VI-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통계치

항목	내용	빈도	유효백분율 ¹⁾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1,594	50.0		
	여	1,594	50.0		
가족구성형태	친부·친모	2,931	94.4		
	친부	47	1.5		
	친모	93	3.0		
	친부·계모	12	.4		
	친모·계부	12	.4		
	두분 모두 생존	9	.3		
가구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49	5.0		
	100-200만원	862	29.0		
	200-300만원	904	30.4	2,997,200	1,830,640
	300-400만원	504	16.7	(원)	
	400-500만원	288	9.7		
	500만원 이상	440	14.8		
사교육비	10만원 미만	254	10.7		
	10-20만원	641	27.0		
	20-30만원	675	28.4		
	30-40만원	286	12.0	344,440	301,890
	40-50만원	214	9.0	(원)	
	50-100만원	264	11.1		
부학력	100만원이상	43	1.8		
	중졸미만	123	3.9		
	중·고졸	1636	52.3		
	대졸	1164	37.3		
모학력	석사이상	201	17.3		
	중졸미만	140	4.5		
	중·고졸	2,222	72.6		
	대졸	690	22.2		
	석사이상	51	1.6		

1) 응답거부와 결측값을 제외한 후 계산한 백분율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중학교 3학년용 패널 설문지에 포함된 설문 문항 중에서 가정의 경제적 소득, 부모의 학력, 사교육비,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학업성취에 관련된 총 20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가정의 월평균 소득과 부모의 학력(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을 사용하였다. 또한 ‘사교육비’는 평균 한 달 지출되는 사교육비를 묻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범윈드(Baumrind, 1971; 1973) 또는 키스 등(Keith et al., 1993)의 이론을 토대로 한 부모-자녀 관계라는 잠재변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부모기대, 부모감독 그리고 부모애착이라는 세 가지의 측정변인을 선택하였다. 부모기대와 부모감독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Simons-Morton & Crump, 2003). 부모기대는 부모에게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는가를 질문하는 단일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는데, 그 범위는 최소값 1(무학)에서 최대값 5(석사이상)이다. 부모감독은 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측정변인들은 해당문항에서 얻어진 점수들의 총합으로 점수화했다. 부모감독 문항은 히르쉬(Hirschi, 1969, 김준호·이동원, 1996 재인용)가 제시한 부모감독의 개념을 바탕으로 김준호·이동원(1996)이 그들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이다.

부모의 지원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는 부모애착에 관한 6문항을 사용하였다. 청소년 패널 자료에서 사용된 부모애착에 관한 문항은 히르쉬(Hirschi, 1969, 김준호·이동원, 1996 재인용)가 제시한 애착의 개념을 바탕으로 김준호·이동원(1996)이 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주로 부모와의 대화를 통한 정서적 친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와의 애착과 부모감독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부모와의 애착 및 부모감독 관련 문항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수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업성취라는 잠재변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의 반 성적을 측정하였다. 청소년 패널자료에서는 학생의 자기

보고에 기초한 반 등위, 학교등위, 전국규모 모의 성적 등위 및 각 과목별 반 성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전국규모 모의 성적은 결측치가 50% 이상을 넘고, 학급 및 학교 등위 점수는 정규분포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결측치의 수가 작고, 정규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과목별 성적점수를 사용하여 학업성취 수준을 측정하였다(김기현, 2006). 이들 변수들은 매우 못하는 수준(1점)에서 매우 잘 하는 수준(5점)까지 5점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표 VI-2> 잠재변인 구성 변수별 기술 통계치

영역	하위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범위
부모 자녀 관계	부모 기대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는가(부모가 답변)	3.93	.98	최소값: 1 최대값: 5
	부모 감독 (.87)	1.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2.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3.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4.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3.37	.85	최소값: 1 최대값: 5
	부모 애착 (.88)	1.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3.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5.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6.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3.37	.80	최소값: 1 최대값: 5
학업 성취	국어	(과목별 반 성적 정도) 국어	3.26	.84	최소값: 1 최대값: 5
	영어	(과목별 반 성적 정도) 영어	3.00	1.10	
	수학	(과목별 반 성적 정도) 수학	3.11	1.19	
	사회	(과목별 반 성적 정도) 사회	3.22	1.01	
	과학	(과목별 반 성적 정도) 과학	2.99	1.06	

() =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위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 변수의 지표들의 단순합산을 기초로 산출됨.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전형적인 종단적 조사인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2003년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하여 3,499명을 추출하였다. 그 후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그들을 대상으로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면접원들을 통하여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그 중에서 2004년에 실시한 제 2차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SPSS 12.0을 사용하였다. 한편, 기본모형 및 측정모형 분석, 인과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AMOS 5.0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통해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모형으로, 측정모형은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측정변수와 구조변수간의 관계를 의미하고, 구조모형은 측정모형을 통해 구성된 외생개념과 내생개념을 경로 분석적으로 결합하여 관계화한 모형이다(김계수, 2004).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구조방정식의 1단계 분석인 측정모형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이는 모형의 측정변인들이 이론적 개념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으며, 적합한가를 검토하는 절차로서 확인적 요인분석의 성격이 반영된 것이다. 측정모형의 분석을 한 후에, 2단계 분석인 구조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4. 결 과

1) 상관관계 분석

이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사교육비,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자녀들의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우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앞서 실시한 6개의 연구변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표 VI-3>과 같다. <표 V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인들 간의 상관은 .06~.69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의 상관은 모두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매개변인인 부모자녀관계와 종속변인인 학업성취 간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40 이하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구조방정식 모델을 검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표 VI-3> 연구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3,449)

연구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월평균가구소득	1.00											
2. 부학력	.372 **	1.00										
3. 모학력	.369 **	.694 **	1.00									
4. 사교육비	.319 **	.263 **	.291 **	1.00								
5. 부모기대	.126 **	.150 **	.153 **	.064 **	1.00							
6. 부모애착	.087 **	.131 **	.132 **	.050 **	.156 **	1.00						
7. 부모감독	.047 **	.124 **	.135 **	.061 **	.087 **	.544 **	1.00					
8. (반 성적) 국어	.079 **	.158 **	.138 **	.064 **	.157 **	.165 **	.171 **	1.00				
9. (반 성적) 영어	.212 **	.325 **	.291 **	.161 **	.184 **	.175 **	.203 **	.488 **	1.00			
10. (반 성적) 수학	.196 **	.251 **	.225 **	.125 **	.166 **	.132 **	.173 **	.341 **	.521 **	1.00		
11. (반 성적) 사회	.098 **	.181 **	.171 **	.069 **	.166 **	.170 **	.153 **	.536 **	.407 **	.326 **	1.00	
12. (반 성적) 과학	.121 **	.205 **	.191 **	.102 **	.130 **	.143 **	.156 **	.400 **	.431 **	.536 **	.506 **	1.00

* $p < .05$, ** $p < .01$

2)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검증을 통해 잠재변인이 측정변수들을 통해서 어떻게 측정되어지는가를 살피고, 측정변수들의 측정도구로서의 특성(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이상준, 2007). 매개효과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측정모형은 각각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모형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잠재변인은 독립변수인 사회경제적 지위, 매개변수인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종속변수인 학업성취이다.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VI-4>와 같다.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변수들이 각 이론변수(잠재변인)를 측정하기에 타당하며, 측정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I-4>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과 적합도

(N =3,449)

이론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표준오차
사회경제적 지위	월평균가구소득	1.000	.664		
	부 학력	.008	.757	17.855***	.000
	모 학력	.007	.752	17.755***	.000
부모자녀관계	부모기대	.300	.414	9.748***	.031
	부모애착	.889	.376	13.086***	.068
	부모감독	.1.000	.404		
학업성취	국어	1.000	.499	15.391***	.140
	영어	2.160	.819	13.320***	.145
	수학	1.937	.682	14.595***	.089
	사회	1.303	.540	12.950***	.108
	과학	1.399	.550	17.855***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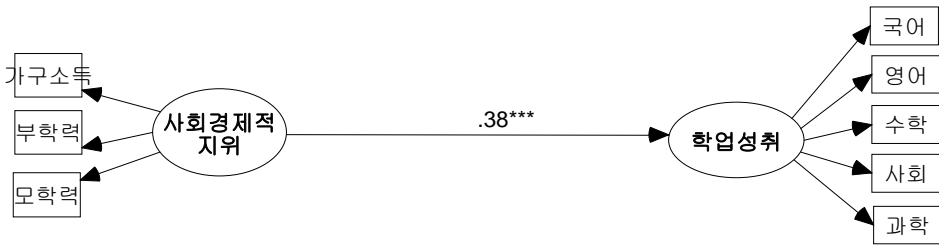
***. $p < .001$

3)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및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모

형의 사전 작업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 자녀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그림 VI-1]에서 경로 a)을 분석하였다. 경로 변수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 성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beta=.37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 성취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델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기본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TLI는 .997, RMSEA는 .037로 기본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2).



***. $p < .001$, $\chi^2 = 74.7$ $df = 13$, TLI = .997, RMSEA = .037

[그림 VI-2]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

다음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매개 변수로 설정한 사교육비와 부모자녀 관계의 매개경로 추가로 인해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 1과 2를 설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모형 1은 연구모형 2에 설정된 모든 경로가 포함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 자녀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즉, 연구모형 1은 부분매개모형이고, 연구모형 2는 완전매개모형이다. 모형들 간의 우수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모형들 간에 포함(nested)관계가 성립되어야

2) 모형 적합성의 수용가능 수준은 TLI는 .90이상일 경우, RMSEA는 .05미만인 경우이다(조현철, 2003). TLI와 RMSEA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적합도 지수로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지표이다.

한다(이학식·임지훈, 2007).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 2가 연구모형 1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χ^2 차이검증에 의한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연구모형 1과 2를 비교한 결과이다.

<표 VI-5> 각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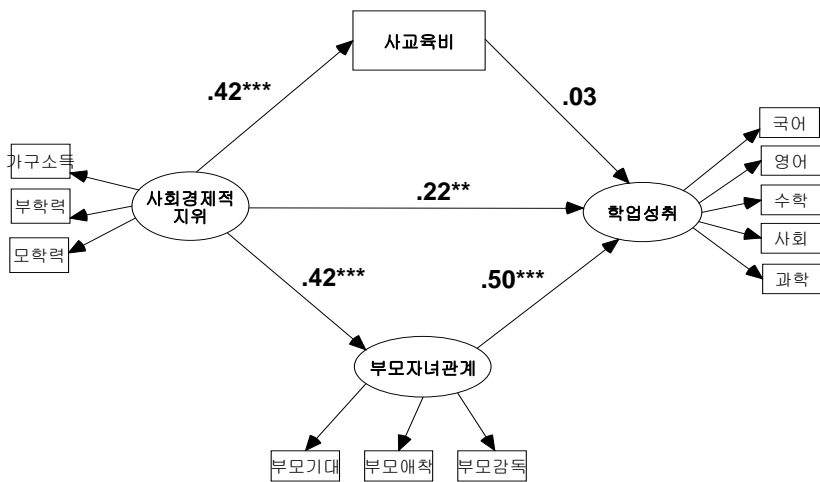
모형	χ^2	df	TLI	RMSEA
1 (부분매개모형)	123.6	36	.998	.027
2 (완전매개모형)	136.7	37	.998	.028

각 모형은 그림 VI-1을 참조.

χ^2 차이 검증에서 중요한 원칙은 χ^2 값은 작을수록, 자유도는 클수록 좋다는 것이다(이학식·임지훈, 2007; 홍세희, 2007). 그런데, χ^2 과 자유도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서로 상쇄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모형 비교에는 χ^2 값의 감소가 자유도 감소를 만회할 만큼 충분히 큰가를 고려해야 한다(이학식·임지훈, 2007). 연구모형 2는 연구모형 1에 비해 χ^2 값이 12.9 작고, 자유도도 1이 작다. 그런데, $p < .05$, 자유도 1일 때의 χ^2 값이 3.84이므로, 연구모형 1은 연구모형 2에 비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Delta \chi^2 = 12.9 > \chi^2 .05(1) = 3.84$, $\Delta d.f. = 1$). 즉 연구모형 1은 연구모형 2에 비해 자유도가 1만큼 감소하였으나, χ^2 값의 감소폭이 자유도 감소를 상쇄시킬 만큼 충분히 감소했으므로 연구모형 2보다 우수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모형 1이 연구모형 2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경로계수에서 연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VI-3]에서 제시된 연구모형 1의 경로계수 값을 보면, 사회경제적 지위 → 학업성취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회경제적 지위 → 학업성취의 경로가 포함되지 않은 연구모형 2에 비교하여 이 경로가 포함된 연구모형 1의 적합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 1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 1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모형의 TLI는 .998로 .9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는 .027로 .05미만으로 나타나 제시된 모형이 자료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개변수인 부모자녀관계와 사교육비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적합도 지수에 의해 모형의 적합도가 확인된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와 유의도 수준 추정결과를 [그림 VI-3]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VI-3]을 바탕으로 분석된 경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 p < .01$, *** $. p < .001$, $\chi^2 = 123.6$ $df = 36$, TLI = .998, RMSEA = .027

[그림 VI-3]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비,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

첫째, 가설화된 경로 중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교육비($\beta=.418$)와 부모자녀관계($\beta=.415$)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교육비 지출과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상대적 크기도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부모자녀관계, 즉 부모의 기대, 애착, 감독의 정도는 그들의 학업성취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beta=.502$)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사교육비가 자녀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beta=.033, p=.429$)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연구모형에서 가정한 간접효과에 대한 가정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 자녀관계를 향상시킴으로써 청소년기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의 사교육비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높아지고, 증가된 사교육비는 자녀들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사교육비와 부모 자녀관계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기 자녀의 학업 성취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각 매개변인들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배론과 케니(Baron & Kenny, 1986)가 제시한 공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Z_{ab} 를 구하였다³⁾(<표 VI-6> 참조). 구해진 Z_{ab} 값을 임계치인 ± 1.96 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교육비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자녀관계의 매개경로 추가로 인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376(p<.001, [그림 VI-2]$ 참조)에서 $.225(p<.001)$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 성취 사이의 기존의 인과관계는 부모-자녀 관계 매개경로의 투입으로 인해 관계성의 크기가 감소하였으나, 그 영향력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변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학업성취 사이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기 자녀의 학업성취 대한 전체 설명량(R^2)은 약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표준화된 경로계수를 비교해 볼 때,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자녀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부모 자녀관계 역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학업성취수준을 높이는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Z_{ab} = \frac{ab}{\sqrt{SEa^2 SEb^2 + b^2 SEa^2 + a^2 SEb^2}}$$

〈표 VI-6〉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사교육비와 부모-자녀관계
→ 자녀의 학업성취에 있어서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

매개 경로	추정치(표준오차)a	추정치(표준오차)b	Zab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사교육비 → 학업성취	.104(.020)	.000(.001)	.00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부모 자녀관계 → 학업성취	.005(.001)	.155(.028)	3.677*

a 첫 번째 경로에 대한 비표준화된 추정치

b 두 번째 경로에 대한 비표준화된 추정치

* p<.05

5.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가정의 사회 경제적 자원이 사교육비와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청소년기 자녀의 학업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을 증진시키는 기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얻어진 결과를 선행연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원은 ‘사교육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은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을 증진시키는데 별 다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자녀들의 학업 발달을 위해 지출하는 사교육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들의 인적 자본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되는 자원,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Becker & Thomes, 1986). 또한, 투자이론가들에 의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의 학업발달을 위해 투자하는 자원의 크기에 비례하여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이 높아지게 되므로, 부모의 투자가 학력을 대물림하고, 자녀의 인적자본을 창출하는데 매개변수로 기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Mayer, 1997).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사교육비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이 결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

육비의 효과에 대해서는 투자이론가들의 논의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족환경과 사교육, 그리고 성적 사이의 관계를 고찰한 이정환(2002)은 전체적인 가족환경과 성적 사이에서 과외가 차지하는 매개변수의 역할은 부분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으므로, 과외를 하면 성적이 향상된다는 식으로 단순히 이야기 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사교육비 수준이 높아질수록, 즉 사교육의 종류와 질이 증대할수록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 사이를 매개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의 양상이 차이가 나고, 이는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태학적이론(ecological theory)에 비추어 볼 때, 부모들이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겪은 일들이나 경험, 스트레스는, 가족 내에서 그들이 맺는 가족관계, 즉,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선행연구들은 부모들이 자신의 일이나 사회적 망에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 부모양육행동의 질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Vandewater & Lansford, 2005). 비록 자녀들이 부모들의 가족 외적 경험에 접근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부모의 정서적 상태와 양육행동을 통해서 결국 부모들의 가족 외적 경험도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가족과정론자들에 따르면, 빈곤가정에서 부모들은 재정적 압박에 의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지역사회로부터 유리되거나 소외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험은 부모의 심리적 적응과 자녀에게 행하는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McLyod, 1989; Conger et al., 1992). 따라서 경제적 빈곤상태에 있는 가정의 부모들은 애정적이고 친밀한 행동보다는, 억압적인 처벌 등 부정적인 방법을 자주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발달에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한다. 즉, 가정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부모들이 가정 내외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주고, 그들의 부모양육행동에 차이를 가져옴으로써, 자녀의 학업 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언급한 사교육비와는 달리 부모-자녀 관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학

업 성취 사이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의 교육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부모들은 과외/학원수업 등의 사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진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직접 자녀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는 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는 것이 자녀의 학업 성취 수준을 진작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모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부모들이 지게 되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는 사교육에 대한 관심을 부모-자녀 관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연구자 및 교육 정책 관련자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밀접한 관계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의 물·인적 자본이 자녀의 인적자본을 창출하는 경로를 설명할 때, 단지 부분적인 매개변수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물질 자본의 투자형태인 사교육비 자체는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부모의 물질·인적 자본은 여전히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부모의 실재자본은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얻을 수 기회, 경험, 그리고 부모들의 유전적 형질 등 다양한 형태로 자녀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인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부모-자녀 관계의 개선이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하지만, 이것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의 개선이라는 미시적이고 가족과정적인 노력에 의해서 자녀 대의 인적자본 창출과정을 설명할 수는 있다는 가족과정론적 시각은 본 연구결과 온전하게 지지되지 못했다. 아울러, 부모-자녀 관계 역시 가정의 자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로 나타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어 자녀들 자신의 인적 자원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이 제시하고 있는 시사점과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다. 부모-자녀 관계라는 가족기능이 자녀의 학업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부모가 생계유지로 인하여 자녀를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으로 인한 학력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학습 및 심리적 지원이 사회적·공적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이 같은 지원의 일례로 정부 예산을 받아 학교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실’이나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생계유지로 자녀를 돌볼 시간이나 재정적 여유가 없는 부모들을 대신하여 자녀들의 학습을 지도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이 저렴하고 질 좋은 학업 보충의 기회를 제공받고, 부모들을 대신하여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인 성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학력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심리 안정 및 자아존중감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기관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지도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및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경제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였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감소하게 되므로, 계속해서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자녀의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녀 자신의 성취동기나 학업에의 열망 등을 포함하여

분석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자녀 관계라는 개념을 변수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청소년패널 자료의 설문 문항에서 선택한 항목을 중심으로 변수들을 구성하였으므로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부모-자녀 관계 개념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변수화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교육비’라는 변수를 이용하여 사교육의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사교육비는 사교육이라는 개념을 측정하는데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으나 사교육의 전체적인 효과와 방식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 또는 ‘사교육’이라는 개념들을 변수화하기 위해서 보다 정밀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가을): 5-32.
- 김계수(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데이터솔루션.
- 김기현(2006).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중2에서 고1까지.” 『제 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409-426.
- 김두환(2005). “교육목표의 관계적 동조와 학업성취: 지위획득 연구의 새 방향.” 『교육사회학연구』 15(1): 43-64.
- 김준호·이동원(1996).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현주·이병훈(2006). “학업성취에 대한 가족배경의 영향: 성 차이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66: 138-161.
- 박창남·도종수(20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2: 281-303.
- 방하남·김기현(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8(4): 193-222.
- 양정선·김순미(2003).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연구: 사교육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5): 221-232.
- 양정호(2005).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중단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5(2): 121-145.
- 이기홍(2005). “한국노인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한국노년학』 25(3): 1-21.
- 이상준(2007).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과 탄력성에 대한 보호요인의 매개효과.” 『가족과 문화』 19(1): 147-172.
- 이성립(2006). “도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과 지출전략.” 『소비자학연구』 17(2): 115-132.
- 이승신(2002).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40(7): 211-227.
- 이정선(2001).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사회, 문화적 관계: 콜맨의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4(2): 147-181.
- 이정환(2002). “가족환경, 과외, 성적.” 『한국사회학』 36(6): 195-213.
- 이학식·임지훈(200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6.0』 법문사.
- 장미혜(2002). “사회계층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 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38(4): 223-251.

- 장상수·손병선(2005). “가족배경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9(4): 198-230.
- 조현철(2003). 『구조방정식 모델 Simplis & Amos』 석정.
- 한대동(2001). “고등학생 학업성취에 대한 학교효과와 과외효과의 비교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1(1): 33-54.
- 한주리·허경호(2005). “가족의사소통 패턴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노출, 내적통제성 및 의사소통 능력과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49(5): 202-227.
- 홍세희(2007).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연세대학교.
- Baron, R.M. & D.A. Kenny(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umrind, Diana(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1: 1-103.
- Baumrind, Diana(1973).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Ab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56-95.
- Becker, G.S(1993).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s to Educ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cker, G.S. & N. Thomes(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 S1-S139.
- Blau, P.M. & O.D. Duncan(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Y: John Wiley & Sons.
- Bronstein, P., P. Duncan, A.Dari, J. Pleniadz, M. Fitzgerald, C.L. Abrams, B. Frankowski, O. Franco, C. Hunt, & S. Cha(1996). “Family and Parenting Behaviors Predicting Middle School Adjustment.” *Family Relations* 45(4). 425-426.
- Boike, M.F., E .L. Gesten, E. Cowen, R. D. Felner & R. Francis, R(1978). “Relations Between Family Background Problems and School Problems and Competencies of Young Normal Children.” *Psychology in the Schools*, 15, 283-290.
- Brooks-Gunn, J. & G. Duncan(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Children and Poverty* 7(2): 55-71.
- Campbell, J.R. & F. Mandel(1990). “Connecting Math Achievement to Parental Influence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5, 64-74.
- Carlson, Maria, J. & M. E. Corcoran(2001).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s Behavioral

- and Cognitive Outcom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 779-792.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Coleman, J. C. & L.B. Hendry(2006). *The Nature of Adolescence*. 강영배·김기현·이은주 역. 2006. 『청소년과 사회』 성안당.
- Conger, R.D., G. H. Elder, F.O. Lorenz, K. J. Conger, K. J. Simons, R. L. Whitbeck, S. Huck, & J. N. Melby(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2: 643-656.
- Conger, R.D., K. J. Conger, G.H. Elder, F.O. Lorenz, R.L. Simons, & B. Whitbeck(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54.
- Conger, R.D., K.J. Conger, G.H. Elder, F.O. Lorenz, R.L. Simons, & B. Whitbeck(1993). "Family Economic Stress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Girls."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206-219.
- Conger, R.D., G.R. Patterson, & X. Ge(1995). "It Takes Two to Replicate: A Mediation Model for the Impact of Parents' Stress on Adolescen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80-97.
- Duncan, G. & J. Brooks-Gunn(1997).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Y: Russel Sage Foundation.
- Entwisle, D.R. & K.L. Alexander(1996). "Family Type and Children's Growth in Reading and Math over the Primary Gra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341-355.
- Epstein, J(1987). "Toward a Theory and Family-School Connections: Teacher Practices and Parent Involvement." In K. Hurrelmann, F. Kaufmann and F. Losel (eds.). *Social Intervention: Potential and Constraints*. Berlin: Water de Gruyter.
- Featherman, D.L. & R. M. Hauser(1978). *Opportunity and Change*. NY: Academic Press.
- Heatherington, E.M. & W.G. Clingempeel(1992). "Coping with Marital Transi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57(2-3).
- Jackson, A.P., J. Brooks-Gunn, C. Huang & M. Glassman(2000). "Single Mothers in Low-Wage Jobs: Financial Strain, Parenting, and Preschoolers' Outcomes." *Child Development* 71(5): 1409-1423.
- Jencks, C(1972).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NY: Basic Books.

- Jencks, C. & M. Philips. (eds.)(1998). *The Black-White Test Score Gap*.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Keith, Z.T., P. Keith, G.C. Troutman, P.G. Bickely, P.S. Trivette, & K. Singh(1993). "Does Parental Involvement Affect Eighth Grade Student Achievement?: Structural Analysis of National Data." *School Psychology Review* 22: 474-496.
- Ketsetzis, M., B.A. Ryan, & G.R. Adams(1998). "Family Processes,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Child Characteristics Influencing School-based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374-387.
- Lee, S(1993). "Family structure effects on students outcomes." In B. Schneider & J.S. Coleman(eds.). *Parents, Their Children and Schools* (pp.43-75). CO: Westview.
- Lee, V. E. & R.G. Croniger(1996). *Social Capital and Children's Development: The Case of Education*. ED: 412-629.
- Mayer. S.E(1997). *What Money Can't Buy: Family Income and Children's Life Chances*.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cLyod, V.C(1989). "Socialization and Development in a Changing Economy." *American Psychologist* 44, 293-302.
- McLyod, V.C., T.E. Jayaratne, R. Ceballo, & J. Borquez(1994). "Unemployment and Work Interruption among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s: Effects on Parenting and Adolescent Socioe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5, 562-589.
- McLanahan, S. & G. Sandefur(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What Hurts, What Helps*.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cel, T. & M.J. Dufur(2001). "Capital at Home and at School: Effects on Child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 32-47.
- Paxton, P(1999). "In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nited States? A Multiple Indicator Assessment."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 (1): 88-127.
- Simons-Morton, B. & A.D. Crump(2003). "Association of Parental Involvement and Social Competence with School Adjustment and Engagement among Sixth Graders." *Journal of School Health* 73(3): 121-126.
- Teachman, J.D., K. Paasch & K. Carver(1997). "Social Capital and the Generation of Human Capital." *Social Forces* 75(4): 1343-1359.
- Vandewater, E.A. & J.E. Lansford(2005). "A Family Process Model of Problem Behaviors in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7: 100-109.
- Yeung, W.J., M.R. Linver, & J. Brooks-Gunn(2002). "How Money Matters for Young

Children's Development: Parental Investment and Family Processes." *Child Development* 73(6): 1861-1879.

Zill, N. & C. W. Nord(1994). *Running in Place: How American Families Are Faring In a Changing Economy and an Individualistic Society*. Washington, DC: Child Trends.

VII. 국가별 청소년 자녀와 부모관계의 성차: 부모의 지지와 통제 차원을 중심으로

1. 문제제기
2. 기존연구 고찰
3.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4. 토의와 결론

VII. 국가별 청소년 자녀와 부모관계의 성차: 부모의 지지와 통제 차원을 중심으로*

1. 문제제기

현대 가족은 많은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근대 산업화 이후 가족에 대해서 사회화 기능과 정서적 지원의 기능이 강조되어 왔으나(파슨즈, 1955), 후기 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약화되거나 사회로 이양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엘킨드, 1999). 맞벌이 가족의 증가, 이혼의 증가¹⁾와 한부모 가족의 증가²⁾와 같은 변화는 현대사회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규범이나 부모자녀 간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부모자녀관계의 약화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신과 지원의 감소(엘킨드, 1999), 가족구성원들의 헌신에 기반한 사랑의 보금자리로서의 가족개념(Lasch, 1979)의 쇠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과 맞벌이 가족의 증대, 이혼과 한 부모 가족의 증가로 인해 부모자녀관계-특히 접촉빈도와 관계의 질 측면-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부모자녀 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관계의 질에 있어서는 예전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방식은 다소 변화하였으나, 부모가 자녀에게 지속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관계임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Demo, 1992).

* 집필진: 이선이(아주대학교 교수), 이어봉(강남대학교 교수), 김현주(중앙대학교 교수)

1) 한국의 이혼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68,279 건에서 2004년에는 139,365건으로 증가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 DB).

2) 한국에서 한부모 가족은 1995년 960,000 명에서 2005년에는 1,247,000 명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한편,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부모의 양육방식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과거의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부모의 일방적인 통제와 훈육, 자녀의 복종이 강조되었으나, 오늘날 그러한 양육방식은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자녀 간 긍정적 관계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의 견해이다. 반대로 민주적이고 지지적인 양육방식은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이러한 지지-통제 차원의 양육행동이 지니는 효과는 매우 크다. 청소년기는 여전히 부모에 의존해 있으면서 동시에 독립적 정체성과 자립심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Fitzpatrick & Caughlin, 2002).

본 연구의 목표는 이러한 양육방식 및 부모자녀관계의 내용에 부모의 성별과 청소년 자녀의 성별이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오늘날 맞벌이 부부 및 이혼율의 증가로 어머니-친밀한 양육자, 아버지-부양자라는 전통적인 구분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 한편 어머니 역할과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성별에 따른 자녀의 가치나 역할 기대도 비슷한 전환을 겪고 있다. 자녀의 존재 의미가 가족의 후계자나 노후 부양자로서가 아니라 애정 어린 양육의 대상으로서 부상하면서, 아들과 딸이 지니는 가치상의 차이가 작아졌지만, 아들과 딸에 대한 일상적인 태도와 상호작용 방식에는 차이가 잔존해 있다. 이러한 가족관계의 전환과 연속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수행되었으며, 여기에서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부모의 성별에 따라 자녀에 대한 지지-통제 차원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지지-통제 차원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청소년개발원이 2006년에 5개국-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참조). 국가 별 비교를 통해서는, 문화의 차이나 가족구조 변화 수준에 따라 부모 및 자녀 성별의 영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변치 않는지에 대한 전망과 함의를 얻고자 한다.

2. 기존연구 고찰

1) 청소년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의 지지와 통제 차원

역사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내용과 방법은 변화되어왔다. 특징적으로 말하자면, 과거에는 자녀의 복종이 강조되고 훈육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인 사회화가 부모자녀 관계의 큰 부분을 이루었다면, 근래에는 보다 수평적이고 긍정적인 애착 관계와 (Kandel & Lesser, 1972) 자녀의 자율성과 책임 (Alwin, 1986, 1990)이 강조되고 있으며, 일방적이기 보다 상호적인 영향 속에서 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Barratt 1995; Cappella 1987).

Rollins와 Thomas (1979), Steinmetz (1979) 등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 행동을 지지적 방식과 통제적 방식으로 분류한 바 있다. 지지적 방식에는 칭찬, 인정, 격려, 애정표현, 도움주기, 협력 등의 행동이 포함되고, 통제적 방식에는 강요, 꾸짖음, 처벌, 혜택 및 애정의 철회 등이 포함된다. Noller(1995)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부모자녀 간 관계의 핵심은 지지/애착과 통제 사이의 밀고 당김이다. 통념상 청소년기는 부모에 대한 반항이 증가하고, 부모자녀 간 애착이나 지지적인 관계가 쇠퇴하는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자녀와 부모 간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청소년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높은 수준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애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Kandel & Lesser, 1972; Youniss and Smollar, 1985; 이선이·김현주·이여봉, 2006).

지지와 통제는 부모 자녀관계의 질에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부모와 자녀간의 원만하고 안정적인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중감, 진실하고 공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Rogers, 1961; 김영애, 1990; 이금, 1993).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 아버지/어머니의 정서적 지원변수가 긍

정적인 부모자녀관계 변수의 변량을 50% 이상 설명한다 (문수경, 2005). 부모의 통제가 심한 경우,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상에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거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 (Vangelisti, 1992; 박보경, 2002). 또 부모의 통제적 행동이 심할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상대적으로 또래관계에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Fuligni & Eccles, 1993), 비행청소년 집단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Hagan, 1991).

또한 부모의 정서적 지지나 통제는 자녀에게 중요한 발달적 맥락을 제공한다 (Darling & Steinberg, 1993; 이시형, 1997). 통제수준이 낮고, 지지와 애착의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기의 발달과 적응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부모의 인정, 격려, 애정표현 등의 지지적 태도나 행동은 자기통제력이나 자긍심, 의사소통 능력, 학교생활 적응 등의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Eaton, 1997; Stafford & Bayer, 1993; 김문혜·강문희, 1999; 도현심·최미경, 1998; 백경숙·권용신, 2004). 또 청소년 자녀에게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의견을 존중하는 등의 민주적인 태도는 자녀의 자신감과 자긍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문혜·강문희, 1999; 도현심·최미경, 1998; Eaton, 1997; Grotevant & Cooper, 1986; Dornbush & Ritter, 1991; Rosenberg, 1985).

반대로 부모의 통제적 행동이나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심리적 행복감이나, 자긍심, 자아 효능감, 학업 성취, 창의성 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Fitzpatrick & Caughlin, 2002; Glasgow, Dornbush, Troyer, Steinberg & Ritter, 1997; 이영숙·김정옥, 2002; 박영애, 1995; 장혜순·강태완, 2005). 또한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행청소년 집단에 소속하거나, 비행이나 마약사용 등에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Kandel & Andrews 1987; Marcos, Bahr, & Johnson 1986; Massey & Krohn, 1986). 부모가 통제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상대적으로 또래관계에 몰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Fuligni & Eccles, 1993), 부모의 통제수준이 낮으면 비행청소년 집단에 관련될 가능성이 낮다

(Hagan 1991).

2) 부모의 성별에 따른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역사적으로 성별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즉, 좋은 어머니 역할(mothering)과 좋은 아버지 역할(fathering)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변화되어 왔다. 부모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변화는 성역할 규범의 변화를 반영하는 경향이 크다. 과거에는 구조기능주의 입장대로 아버지는 부양자 역할에 충실하고 어머니는 양육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기대하였다면, 어머니 취업비율의 증가와 함께 근래에 아버지의 부양자역할에 대한 기대는 약화되고(Coltrane, 2004), 부양자로서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대로 자녀양육이나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의 적극적 참여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수행해야 하는 역할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물론 후자의 변화는 성역할의 변화 뿐 아니라 사회화 방식이 훈육중심의 방식으로부터 애착형성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과거의 지배적인 기대는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있고 참을성 있게 자녀중심적인 입장에서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역할 기대는 근래에 심각한 도전을 받기도 하였다 (Walzer, 1998, 2004; Thompson & Walker, 1989; Hayes, 1996; Oakley, 1979). 이전에 모성(motherhood)은 지속적이고 유일하고 특수한 책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가 됨은 그 자체로서 본질적인 보상이 제공되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본능적인 속성이라고 인식되었다 (Boulton, 1983). 그러나 모성이 본능이 아니라 사회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Bernard, 1974),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모성과 이것이 지니는 ‘문제’, 즉 제도로서의 모성(motherhood)과 경험으로서의 어머니 역할수행(mothering) 간의 갈등에 대한 논의들이 (예컨대, Rich, 1976)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Walzer, 2004). 고립된 핵가족에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폭력이 증가하는 사례(Arendell, 2000; Demo, 1992)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특성은 본능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종 인용되기도 한다. 또 어머니의 애정적

특성이 특정 사회적 맥락-예를 들어 홀벌이로 가족부양이 가능한 경제적인 호황기와 같은 맥락-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어머니 역할에 대한 기존 개념이 이와 같이 도전을 받는 와중이지만, 다른 한편, 어머니들에게 전통적인 역할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것을 강조하는 규범적 압력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Hayes, 1996).

최근 아버지 역할수행과 관련하여서는 좋은 부양자역할(good provider role)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는 경향에 대한 논의가 있다 (Coltrane, 2004). 근대산업사회 이전의 부성(fatherhood) 개념은 자녀에 대한 도덕적 스승이요, 애정 없는 엄격한 모습으로 존재하였으나 (Coltrane, 2004), 근대산업사회이후에는 가족 밖에서 일하며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으로서의 아버지상이 강조되었다 (Coltrane & Galt, 2000).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다시 이러한 아버지상에 변화가 생겨나서, TV나 잡지, 영화 등에는 아버지들이 애정적이고, 사려 깊으며, 감정도 풍부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Furstenberg, 1988). 일찍이 1970년대 말에, 미국의 아버지들이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어머니와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보고한 비교문화적 연구도 있었는데 (Mackey & Day, 1979),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성상과 모성상 간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는 추세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이상적인 아버지 역할에 대한 오늘날의 사회적 기대는 두 가지 갈등하는 모습이 공존하는 형태라고 주장한다. 즉, 한편으로는 자녀에 대한 직접적이고 친근하게 관여하는 모습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제한된 가운데 경제적인 지원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Coltrane, 2004; Furstenberg, 1988). 새로이 부상하는 아버지상과 관련해서도 때로는 자녀와 함께 할 것에 대한 권고와, 너무 많이 관여하는 것은 주의하라는 권고가 교차하기도 한다 (Kimmel, 1996).

부모자녀 간 관계에 대한 근래의 경험적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부모의 성별은 여전히 자녀와의 상호작용 내용에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아버지에 비해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더 빈번하며, 집중적이고, 지속적이다. 모든 형태의 가족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와 더 많은 접촉을 갖는다 (Nock & Kingston, 1988). 또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자녀와 공감적인 관계 형성을 더 잘하며, 자녀에 대한 인식이 이상적이기 보다 현실적일 가능성이 높다 (Youniss & Smollar, 1985). 한국에서도 어머니들의 삶의 목표는 자녀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확대된 자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박영신·김의철, 2004). 특히 청소년 어머니 집단은 유아 어머니 집단보다도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의철·박영신·권용은, 2005).

또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역할이 어머니와의 맥락관계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Walter & Walter, 1980), 어머니들이 딸과 아버지의 관계를 매개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Aquilino, 1994; Rossi & Rossi, 1990).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자녀관계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중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시사한다.

3) 자녀의 성별에 따른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자녀관계는 부모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다른 한편, 부모의 성별뿐 아니라 자녀의 성별도 부모의 자녀 양육에의 참여정도나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arner & Steel, 1999; 문수경, 2005; 이선이·김현주·이여봉, 2006).

우선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가치를 달리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딸이나 아들에게 부여되는 사회문화적 가치는 부모자녀 간 관계 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비교문화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들은 가문을 잇고, 부모에 대한 경제적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호되고, 반면에 딸은 심리적인 이유로 선호될 수 있다 (Arnold et al., 1975). 따라서 부계적 전통이 강한 사회에서는 아들 선호도가 높았겠지만, 가계 계승의 의미가 희박해지고 자녀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더 중요한 가치로 부상됨이 따라 딸에 대한 선호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부모자녀 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자녀 성별이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아버지들은 아들이 있는 경우에 자녀 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 (Harris & Morgan, 1991; Morgan, Lye & Condran, 1988). 또한 아버지들은 아들과 텅굴고 거친 장난을 하는 경향이 강하며, 딸보다 아들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Parke, 1996; Pleck, 1997). 한편,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자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소멸하고 있거나 (Fagan, 1998; Hofferth, 2003), 아들과의 상호작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약화되고 있다는 보고도 최근에 생겨나고 있다 (Pleck & Masciadrelli, 2003).

한국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애정표현이나 정보교환에 있어서 딸이 아들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발견된 바 있다 (이선이·김현주·이여봉, 2006).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들이 딸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존재한다(문수경, 2005).

자녀의 성별은 특정 양육행동의 효과를 매개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향이 자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어머니의 과잉기대와 간섭이 남자 청소년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윤지은·최미경, 2004).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부모 성별의 영향과 자녀 성별의 영향을 따로 고려하지만, 일부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 성별과 자녀 성별은 그 조합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이성의 부모자녀관계보다 동성의 부모자녀관계에서 자녀들이 동일시를 잘 하고, 활동이나 관심을 공유한다 (Aquilino, 1994; Lamb, 1981; Lee, Dwyer & Coward, 1993). 특히 모녀관계는 다른 어떤 부모자녀관계의 조합보다 가까운 사이임이 보고된 바 있다 (Kaufman & Uhlenberg, 1998).

Youniss와 Smollar (1985)에 의하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들과 공감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며, 따라서 자녀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의 교류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특히 딸의 경우는 아들에 비해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의 범위가 폭넓고, 따라서 어머니가 미치

는 영향의 범위도 가정 내에서의 행동방식, 실용적 지식, 감정상태, 대인관계 등 폭넓게 망라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아버지의 경우는 어머니와 달리 자녀와 비대칭적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규칙을 부과하거나 실용적인 조언이나 충고를 하는 유형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바로 이러한 성향 때문에 딸은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을 기피하게 되고, 역설적으로 아버지가 딸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아들의 경우는 여가활동이나 기타 도구적 활동 영역에서의 교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 성별과 자녀 성별 각각의 독립적인 효과에 따른 차이보다 그 조합에 따른 차이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초도로우(1992)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성별 조합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역설한 바 있다. 딸들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애정적 욕구를 억압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동일시가 강하게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러나 아들의 경우는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의 여부가 부모자녀 간 관계 형성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경우 아버지와의 친밀한 동일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남성성에 대한 동일시 대상의 결여로 인해 여성성의 비하와 비난을 근거로 자신의 정체체성을 형성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제약을 받게 된다 (Hewlett, 2000).

4) 종합과 가설설정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부모자녀관계 변화는 종전에 아버지가 권위적인 입장에서 자녀를 대하던 방식 보다는 애착을 바탕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작용하던 방식보다는 어머니와 딸이 상호작용하던 방식이 현재 부모자녀 관계가 달라지는 추세와 보다 근접하게 일치한다.

한편,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긴밀하게 관여하고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고, 또 아들과 아버지보다는 딸과 어머니 사이에서 긴밀하고 빈번하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향도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어머니와 딸이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유형이 지지적 관계형성을 유리하게 하고, 통제적 관계의 발생을 억제하는 유형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가설을 설정하여 검정하기로 한다.

가설 1: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즉,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에 대해 더 지지적이고 덜 통제적일 것이다.

가설 2: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즉, 부모는 아들보다 딸에게 더 지지적이고 덜 통제적일 것이다.

가설 3: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의 교호작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지지적인 특성이 모녀관계에서 더욱 강화되고 통제적인 특성은 부자관계에서 강화될 것이다.

3.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청소년개발원이 2006년에 5개국-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참조). 이 자료는 동일한 설문 문항을 각국의 언어로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된 것이며, 국가별로 수집된 표본의 크기도 충분히 크기 때문에, 동일한 변수 및 변수들 간 관계에 대한 국가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자료는 몇 가지 제한점으로 인해, 분석에 주의가 요구되는 면이 있다. 이 조사에서 한국 자료는 전국단위 표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반면, 일본은 동경에서, 독일은 베를린에서, 그리고 스웨덴은 스톡홀름과 기타 대도시를 기반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또, 미국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어, 다른 국가와는 전혀 상이한 방법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처럼 표본 추출의 범주 및 방법 그리고 설문 조사 방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문지에 기초하여 수집된 국가 간 자료가 희소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상기자료는 한국 표본 3,747 사례, 미국 표본 1,875 사례, 일본 표본 489 사례, 독일 표본 497 사례, 그리고 스웨덴 표본 514 사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들을 다음의 세 기준에 비추어 선별하였으며, 나머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첫째, 아버지와 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사 당시 양친 모두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 사례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외의 가족형태 속에서 사는 사례들은 제외하였다.

둘째, 계부나 계모, 양부나 양모의 경우 친부나 친모와는 부모자녀 관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고려하여, 친부, 친모와 거주하는 사례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친부·친모와 거주하는 사례와 다른 사례의 비교도 흥미로운 연구주제이기는 하나, 주어진 자료에는 친부·친모가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³⁾ 다른 가족 형태를 이루는 표본이 동급의 비교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 적으므로, 친부·친모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셋째, 청소년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다를 것이므로, 국가별 비교를 위해서 동일한 연령대의 청소년 범주를 비교할 필

3) 한국과 일본의 경우 친부친모 사례가 전체 표본의 88%를 차지하며, 스웨덴은 71%이다. 독일의 경우 친부친모 사례가 77%이고, 양부친모 사례가 7%를 차지한다. 친부친모 사례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경우는 미국의 64%로, 13%가 양부친모 사례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의 가족형태는 어느 국가의 표본을 막론하고 1-2%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자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부모조합을 고려하기에는 각 형태별 사례가 충분치 않다.

요가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2006년을 기준 시점으로 한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1988년생부터 1993년생까지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세 조건에 부합하는 한국의 3,296 사례, 미국의 1,138 사례, 일본의 428 사례, 독일의 343 사례, 그리고 스웨덴의 273 사례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다.

청소년 자녀의 연령대를 이와 같이 일정하게 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과 일본은 그 외의 3국에 비해 응답자녀의 평균 출생연도가 이른 편이고 표준편차 역시 적어서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청소년들에 편중되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음이 관찰된다.

<표 VII-1> 국가별 응답자의 연령 분포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스웨덴
연령(yr.)	평 균	15.34	16.64	15.71	15.68	17.29
	표준편차	1.19	0.88	1.33	1.31	0.71

연령은 조사년도인 2006년에서 출생년도를 감하여 계산함.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청소년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지지와 통제가 부모의 성별 및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국가 별 비교를 통해서, 문화의 차이나 사회변동에 따라 부모 및 자녀 성별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또는 달라지지 않는지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지지적 차원과 통제적 차원은 부모의 훈육 방식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관적 지각과 응답을 근거로 측정하였다. 즉, 청소년 자녀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부모의 훈육 방법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에 이르는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한 응답지에 기초하였으며, 내용적 특성을 기준으로 지지적 훈육방식에 해당하는 문항과 훈육방식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선택하여 각각 지지적 관계척도와 통제적 관계척도로 구성하였다. 지지적 관계 척도는 10개의 문항을, 통제적 관계 척도는 7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들 문항은 <표 VII-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 척도는 가법척도화(additive scale)하여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다섯 국가별로 각기 모녀관계, 모자관계, 부녀관계, 부자관계로 나누어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를 측정 한 결과는 <표 VII-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VII-2> 관계척도의 구성 항목과 국가 및 부모·자녀 성조합별 신뢰도 (Chronbach's α)

	관계척도를 구성하는 항목	국가	어머니		아버지	
			딸	아들	딸	아들
지 지 적 관 계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한국	.88	.85	.89	.87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일본	.87	.85	.89	.89
	나와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와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미국	.92	.92	.94	.94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준다.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독일	.80	.84	.86	.85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나의 능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	스웨덴	.90	.90	.93	.90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 준다.						
통 체 적 관 계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	한국	.78	.79	.80	.80
	나를 심하게 때릴 때가 많다.					
	내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가한다.	일본	.79	.70	.82	.80
	내게 이유 없이 화풀이를 한다.					
	내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	미국	.88	.88	.88	.89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한다.	독일	.83	.78	.73	.82	
	스웨덴	.80	.74	.73	.71	

한편, 원 자료는 부모의 성별을 변수화 하고 있지 않고,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 각각에 대해 동일한 문항을 제시하여 얻은 응답형태로 수집되어 있다. 따라서 부모의 성별을 주요 독립변인 중 하나로 삼아, 이것이 종속변인(부모와의 지지적 관계 및 통제적 관계)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자료의 조작이 이루어졌다. 즉 아버지의 태도와 어머니의 태도가 별도로 반복하여 측정된 점에 착안하여, 이들을 두 쌍의 자료집단

(data set)으로 간주하고, 각각의 자료집단에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의 성’을 별개의 변수로 추가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의 자료집단에는 ‘부모자녀 관계’ 변수의 값을 ‘아버지와의 관계’에 일치시키면서 ‘부모의 성’을 ‘남성’으로 코딩하고, 나머지 또 하나의 자료집단에는 ‘부모자녀 관계’ 변수의 값을 ‘어머니와의 관계’에 일치시키면서 ‘부모의 성’을 ‘여성’으로 코딩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두 개의 자료집단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이는 하나의 실험사례에 대하여 여러 번 처치한 결과를 비교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반복측정기법(repeated measures design)에 착안한 조작이다.⁴⁾

부모 성별과 자녀 성별 그리고 이들 간의 조합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지적 관계 척도와 통제적 관계 척도를 각각별도의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 그리고 이들 간의 교호작용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에서는 두 개의 종속변수-지지적 관계와 통제적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지만, 이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데다, 공분산행렬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표 VII-3 참조). 따라서 다변량분석(MANOVA)을 시도하지 않고 종속변수의 두 차원 각각에 대해 이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표 VII-3> 지지적 관계와 통제적 관계 간 상관관계 및 공변량에 관한 동질성 검정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스웨덴
상관관계 (Pearson's R)		252**	.214**	.361**	.316**	-.377**
동질성 검정 (Box's test)	Box's M	45.79	41.60	228.87	41.01	27.05
	F	5.09**	4.60**	25.39**	4.53**	2.99**

** p<.01 (양측 검정)

4)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작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계처리 과정에서 사례수가 배가(倍加)되고 변수들의 반복됨에 따라 다중공선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에는 부모의 성과 자녀의 성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변수만을 활용하므로 반복되는 변수는 자녀의 성 뿐이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나, 자유도의 변동에 따른 검증결과의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분석결과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을 기준으로 4가지 성별조합-모녀관계, 모자관계, 부녀관계, 부자관계-으로 구분하여, 지지적 관계 척도와 통제적 관계 척도의 평균값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표 VII-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지지적 관계 척도의 평균값의 범위는 2.57~3.62로서, 통제적 관계 척도의 평균값의 범위인 1.32~1.62에 비해 현저히 높다. 즉,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통제적이기 보다는 지지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지적 관계 척도의 평균값의 변이가 상대적으로 크며, 반면에 통제적 관계 척도의 경우 변이가 작다. 즉, 지지적 차원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또 딸과 부모의 관계가 아들과의 관계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제적 차원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VII-4> 부모 및 자녀 성별 지지적 관계 척도와 통제적 관계 척도의 평균값

국 가	자녀 성별	지지적 관계			통제적 관계		
		어머니	아버지	sig.	어머니	아버지	sig.
한 국	아들	2.90	2.68	부모성별*** 자녀성별***	1.55	1.62	부모성별+ 자녀성별***
	딸	3.09	2.69	교호작용***	1.53	1.51	교호작용***
일 본	아들	2.97	2.57	부모성별*** 자녀성별***	1.33	1.38	-
	딸	3.24	2.69	교호작용+	1.42	1.39	
미 국	아들	3.58	3.23	부모성별*** 교호작용+	1.49	1.62	부모성별*** 자녀성별*
	딸	3.62	3.18		1.46	1.52	
독 일	아들	3.25	3.09	부모성별*** 자녀성별***	1.37	1.40	-
	딸	3.48	3.13	교호작용*	1.40	1.35	
스웨덴	아들	3.07	2.87	부모성별***	1.34	1.34	-
	딸	3.11	2.87		1.36	1.32	
국가 간 평균	아들	3.15	2.89	X	1.42	1.47	X
	딸	3.31	2.91		1.43	1.42	

국가 간 평균은 국가별 평균치의 평균임.

(1) 부모 성별과 자녀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차이 검정 결과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 그리고 이들 간의 교호작용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변량분석 결과를 <표 VII-5>에 제시하였다.

첫째로, 부모 성별이 지지적 관계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든 국가에서 그 효과가 높은 수준에서 유의하다 ($p<.001$). 즉, 국가를 불문하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비해서 자녀에 대해 더 지지적이다. 반면에, 통제적 관계 차원에서는 부모 성별의 효과가 미국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없다. 미국의 경우 가설이 예측한 대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통제적이다 ($p<.001$). 한국의 경우도 $p<.1$ 의 오차허용범위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설 1의 부모 성별의 효과는 지지적 차원에서는 확인되었으나, 통제적 차원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에서만 인정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자녀 성별이 지지적 관계에 미치는 효과는 한국과 일본, 독일에서만 확인되고 있고 ($p<.001$), 미국이나 스웨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 일본, 독일에서는 예측했던 대로 딸이 아들보다 지지적 관계의 평균값이 높다. 통계적 관계에 대한 자녀 성별의 효과는 한국($p<.001$)과 미국($p<.05$)에만 있다. 이 경우 예측한 대로 딸보다 아들에 대해서 통제적 관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가설 2의 자녀 성별 효과는 국가에 따라, 또한 관계 차원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유일하게 지지적 관계와 통제적 관계 차원 모두에서 자녀 성별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일본과 독일에서는 지지적 관계 차원에 대해서만 자녀 성별 효과가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통제적 관계에 대해서만 있다. 스웨덴에서는 자녀 성별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I-5> 부모성별과 자녀성별의 효과 검정 (ANOVA)

종속변수 -->		지지적 관계					통제적 관계				
국 가	소 스	제3유형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sig.	제3유형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sig.
한 국	부모성	158.01**	1	158.11	502.59	.000	.23	1	.23	.93	.336
	자녀성	16.66**	1	16.66	52.99	.000	6.86**	1	6.86	27.41	.000
	부모성*자녀성	12.01**	1	12.01	38.21	.000	3.34**	1	3.34	13.34	.000
		R 제곱 = .087					R 제곱 = .006				
일 본	부모성	46.69**	1	46.69	142.28	.000	.32	1	.32	1.43	.233
	자녀성	7.88**	1	7.88	24.02	.000	.25	1	.25	1.13	.288
	부모성*자녀성	1.13+	1	1.13	3.44	.064	.15	1	.15	.66	.418
		R 제곱 = .174					R 제곱 = .004				
미 국	부모성	89.53**	1	89.53	261.77	.000	4.53**	1	4.53	12.82	.000
	자녀성	.05	1	.05	.15	.703	2.01*	1	2.01	5.68	.017
	부모성*자녀성	1.35*	1	1.35	3.94	.047	1.16+	1	1.16	3.29	.070
		R 제곱 = .102					R 제곱 = .009				
독 일	부모성	11.18**	1	11.18	39.81	.000	.46	1	.46	1.91	.167
	자녀성	2.49**	1	2.49	8.88	.003	.09	1	.09	.36	.551
	부모성*자녀성	1.06+	1	1.06	3.77	.053	.26	1	.26	1.10	.294
		R 제곱 = .068					R 제곱 = .004				
스웨덴	부모성	7.92**	1	7.92	23.98	.000	.05	1	.05	.33	.565
	자녀성	.03	1	.03	.08	.780	.01	1	.01	.03	.854
	부모성*자녀성	.06	1	.06	.19	.660	.07	1	.07	.44	.507
		R 제곱 = .037					R 제곱 = .001				

+ p<.1, * p<.05, ** p<.01 (양측 검정)

세 번째로 부모 성별과 자녀 성별의 교호작용은 지지적 관계의 경우는 한국(p<.001)과 독일(p<.05)에서 그 효과가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1 수준에서는 일본과 미국에서도 교호작용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교호작용의 방향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 독일은 예측한 대로 모녀 관계에서 지지적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교호작용의 방향이 약간 다르다. 한국, 일본, 독일에서는 전반적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지지적이고, 또 아버지/어머니를 막론하고 아들보다 딸에게 더 지지적이며,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딸에 대해 더욱 차별적으로 지지적이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들에게 더 지

지적이고, 특히 아들보다 딸에게 더욱 그러하고, 반면에 아버지는 전반적으로는 어머니보다 덜 지지적이기는 하지만,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지지적이라는 것이다. 앞서 가설2의 검증과정에서 미국에서 자녀 성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통제적 관계의 경우 부모 성별과 자녀 성별의 교호작용은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유의하다 ($p < .001$). 교호작용의 방향은 예측한대로 부자간에 통제적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국가에서는 통제적 관계에 대해서는 교호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가설 3의 부모 성별과 자녀 성별의 교호작용은 부분적으로만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지적 관계 차원에서는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교호작용이 확인되었으나, 통제적 관계 차원에서는 한국에서만 확인되었다. 스웨덴에서는 자녀 성별 효과와 마찬가지로 교호작용 효과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3개 가설 검정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자녀 관계의 통제적 관계 차원 보다는 지지적 관계 차원에서 더욱 일관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었다. 또한 자녀 성별보다는 부모 성별이 보다 일관성 있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요약하면, 지지적 관계와 통제적 관계 차원 모두에서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 이들간 교호작용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임으로써 세 개의 가설 모두에 대해 경험적 뒷받침을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한국 사례 뿐이다. 미국에서도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이 지지적 관계와 통제적 관계 모두에 대해 효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여하의 성별 조합보다 부자 관계가 특이한데, 지지적 차원이나 통제적 차원 모두가, 부자관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는 지지적 관계 차원에서만 가설들을 지지하며, 반면에 통제적 관계 차원에서는 부모 성별이나 자녀 성별이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에서는 지지적 관계 차원에 대한 부모성별의 효과 외에는, 부모나 자녀 성별의 효과가 미미하다.

(2) 성별 조합 간 부모자녀 관계 차이

분석결과를 좀 더 면밀히 관찰하기 위하여, 성별 조합 별로 부모자녀 관계 척도의 평균들을 비교해 보고, 차이가 어느 집단 사이에서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또 국가별 차이는 어떤 집단 사이에서 유의한지 검증을 시도하였다. <표 VII-6>과 <표 VII-7>에 개별 집단군으로 나누어 유의미한 차이를 가시화하였다).

<표 VII-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섯 국가 모두에서 예외 없이 모녀관계가 가장 지지적이다. 다만 한국과 일본 및 독일의 경우에는 모녀관계가 독보적으로 지지적인데 반해, 미국과 스웨덴은 모녀관계와 모자관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VII-6>. 또한 특이한 점은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들에 대한 지지적 관계가 약한 편인데, 이러한 특성이 딸이건 아들이건 별 차이 없이 5개국 모두에서 공통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부모와 자녀가 지지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부모 성별이 자녀 성별 우선하여 작용하고 있으며, 그 차이가 국가들을 막론하고 보다 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간 지지적 관계에 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 및 독일의 경우에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딸이 아들보다 더 지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모 성별 뿐 아니라 자녀 성별에 있어서 역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지지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유리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하지만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는 이에 관한 어떤 해석도 의미를 찾기 힘들고, 따라서 딸과 아들 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통제적 관계 형성과 관련해서 볼 때, 일본과 독일 및 스웨덴은 부모 성별과 자녀 성별 중 어떤 것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표 VII-4, 표 VII-6>. 그래서 이들 나라의 경우 부모나 자녀의 성별과 부모자녀관계에서의 통제성 간에 의미 있는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 부자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 통제적이다<표 VII-6>. 그런데 미국은 부자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세 관계-모녀, 모자, 부녀-가

5) 본 분석은 표본의 크기에 있어서 국가별 차이가 극심하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간 평균 비교를 하는 방법으로 Turkey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통제적 차원에 있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한국은 통제성의 강도에 있어 부자관계와 부녀관계가 양 극단에 위치함으로써 부녀 관계에서의 통제성이 가장 낮은 특성을 보인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경우 통제적 관계형성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성별이 꼭 자녀의 성별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그보다는 한국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강한 기대와 통제를 행하는 반면 딸에게는 매우 관용적인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표 VII-6> 종속변수에 대한 부모·자녀 성별 조합 간 평균 차이 검증(Turkey's HSD)

국 가	지리적 관계			통제적 관계		
한국 (평균)	부자 2.68 부녀 2.69	모 자 2.90	모녀 3.09	부녀 1.51 모녀 1.54	모녀 1.54 모자 1.56	부자 1.62
미국 (평균)	부녀 3.18 부자 3.24		모자 3.58 모녀 3.62	모녀 1.48 모자 1.49 부녀 1.52		부자 1.62
일본 (평균)	부자 2.57 부녀 2.69	모 자 2.97	모녀 3.24	부자 1.38 부녀 1.39 모자 1.39 모녀 1.46		
독일 (평균)	부자 3.10 부녀 3.15	부 녀 3.15 모 자 3.28	모녀 3.48	부녀 1.37 부자 1.39 모자 1.40 모녀 1.46		
스웨덴 (평균)	부녀 2.87 자 2.87		모자 3.07 모녀 3.11	부녀 1.32 모자 1.34 부자 1.34 모녀 1.36		

1. 제3유형 제곱합에 기초하였음.
2. 위의 국가군 분류는 개별 국가간 평균에 대한 차이 검증 수준 $p < .05$ 에서 유의함.

(3) 국가간 부모자녀 관계 차이

미국의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지지적인 동시에 가장 통제적인 군으로 분류되는 반면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는 통제성이 가장 높은 반면에 지지적 관계 정도는 가장 낮게 분류된다<표 VII-7>. 이러한 경향은 지지적 관계와 통제적 관계 차원을 막론하고 그리고 자녀의 성별과 부모의 성별을 막론하고, 일관적이다.

<표 VII-7> 종속변수에 대한 국가 간 평균 차이 검증(Turkey's HSD)

국 가	지지적 관계				통제적 관계		
모녀 관계 (평균)	한국 3.09 스웨덴 3.11	일본 3.24	독일 3.48	미국 3.62	스웨덴 1.36 일본 1.46 독일 1.46 미국 1.48	일본 1.46 독일 1.46 미국 1.48 한국 1.54	
모자 관계 (평균)	한국 2.90 일본 2.97	일본 2.97 스웨덴 3.07	독일 3.28	미국 3.58	스웨덴 1.34 일본 1.39 독일 1.40	일본 1.39 독일 1.40 미국 1.49	미국 1.49 한국 1.56
부녀 관계 (평균)	일본 2.69 한국 2.69	스웨덴 2.87	독일 3.15 미국 3.18		스웨덴 1.32 독일 1.37 일본 1.39	일본 1.39 한국 1.51	한국 1.51 미국 1.52
부자 관계 (평균)	일본 2.57 한국 2.68	스웨덴 2.87	독일 3.10 미국 3.24		스웨덴 1.34 일본 1.38 독일 1.39	한국 1.62 미국 1.62	

1. 제3유형 제곱합에 기초하였음.
2. 위의 국가군 분류는 개별 국가간 평균에 대한 차이 검증 수준 $p < .05$ 에서 유의함.

독일은 모녀 및 모자 사이는 지지적 관계 차원과 통제적 관계 차원 모두에서 중간 정도에 머무는 반면, 부녀 및 부자 사이는 지지적 관계 정도가 높

고 통제적 관계 정도가 낮은 군에 분류된다.

반면 일본과 스웨덴은 지지적 관계 및 통제적 관계에 있어 중간 혹은 낮은 군에 분류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표 VII-7>에 나타난 일본과 스웨덴의 결과를 곧바로 해당 국가의 문화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본 분석을 위해 응답자의 연령범위를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스웨덴 응답자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쪽에 몰려 있음<표 VII-1>에 기인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4개의 비교국 중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하고 문화적 동질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부모자녀 관계가 한국과 유사할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만하지만, 현실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섯 국가 모두 각각의 양상들이 혼재하는 속에서, 한국의 결과는 오히려 미국과 더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에 따라 지지적 관계와 통제적 관계가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한국이다. 한국의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지지적 관계 정도는 중간 혹은 다소 낮은 반면에 통제적 관계 정도는 높다. 또한 이는 다섯 나라 중 한국부모들이 가장 권위주의적(authoritarian)인 방식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4. 토의와 결론

우선 이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차이를 막론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에 대해 지지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아들보다 딸에 대해 더 지지적이다. 단, 예외적으로 미국의 아버지들은 딸보다 아들에게 더 지지적이다. 셋째, 한국과 미국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통제적이고, 딸보다 아들에게 더욱 통제적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와 관련하여 발견되는 흥미로운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사점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질적으로 낮고, 아들보다 딸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물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가별 차이가 다소간 있기는 하지만, 다음의 진술은 본 연구 결과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긍정적 애착관계와 자녀의 발달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부모자녀관계의 모형을 찾는다면, 일단 모녀 관계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시사점은 청소년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성별로 인한 차이가 자녀의 성별로 인한 차이보다 더 강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표 VII-4>의 지지적 관계 차원에 대한 국가 간 평균값을 보면, 부모의 성별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자녀의 성별에 따른 평균의 차이보다 월등이 크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또 국가별 자료를 살펴봐도 이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다시 표현하면, 부모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녀를 구별하여 대하는 것보다, 자신이 실천하는 자녀양육방식이 젠더화(gendered)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를 구별하는 것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자녀 성별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녀의 가치나 존재 의미가 성별에 따라 구별되는 현상은 보다 빠르게 약화되고 있으며, 이미 습득한 젠더화 행동방식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변화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세 번째 시사점은 한국의 청소년 자녀와 부모관계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대체로 지지적 관계 척도의 평균치는 낮고, 통제적 관계 척도의 평균치는 높다. 각 국가별로 4가지 관계별 평균값의 평균을 계산하면, 지지적 관계 차원의 경우 미국 3.41, 독일 3.24, 스웨덴 2.98, 일본 2.87, 한국 2.84의 순서로 한국이 가장 낮다. 통제적 관계 차원의 경우는 한국 1.55, 미국 1.52, 독일과 일본 1.38, 스웨덴 1.34의 순서로 한국이 가장 높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지적인 태도가 약하고, 반대로 통제적 태도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도

한국만큼 통제적 관계의 수준이 높기는 하지만, 지지적 관계의 수준이 5개국 중 가장 높기 때문에 통제적 양육방식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 하다는 점이 한국과는 다르다. 이 결과는 한국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를 양육방식에 제한점이 있음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표 VII-5>에 나타난 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이 지닌 설명력(R 제곱)이 미미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성별 이외에도 부모의 학력 및 소득 수준, 부모와 자녀의 연령, 자녀의 성적, 해당 자녀의 출생순위(birth order)와 자녀의 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문화적 기대 및 가치관 등과 같이 부모자녀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분석을 단순화하여 기술적 통계에 의존한 현 연구의 제한점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성별 자체가 가진 내재적 차이가 부모자녀 관계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문혜·강문희. 1999.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애. 1990. “모-자녀간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청소년의 사회성 및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철·박영신·권용은, 2005. “한국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의식 비교: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1(1) : pp.109-142.
- 도현심·최미경. 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 19-33.
- 문수경. 2005.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한국가족복지학』 10(3) : 105-125.
- 박보경. 2002.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자녀관계 및 부모간 갈등과 또래 괴롭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김의철. 2004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애. 1995.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백경숙·권용신. 200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6(2) : 87-99.
- 엘킨드(Elkind, D., 1995). 1999. 이동원·김모란·윤옥경. 『변화하는 가족』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윤지은·최미경. 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간 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 이금. 1993.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이·김현주·이여봉. 2006.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교환관계 분석”. 『한국인구학』 29(1) : 97-131.
- 이시형. 1997.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기 심리 사회적 적응”. 삼성생명사회정신건강연구소. 96(2)
- 이영미·민하영·이윤주, 2005.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 이영숙·김정옥. 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 133-159.
- 장혜순·강태완. 200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3(2) : 104-130.
- 정윤주. 2002.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청소년과 어머니의 지각 차이와 청소년의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0(9)
- 초도로우(Chodorow, N.). 1992. 박숙자역. 1995. “가족의 정신역학”. 『가족과 성의 사회학: 고전사회학에서 포스트모던 가족론까지』 사회비평사. 385-409.
- 최인재. 2005.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징-부자유친 성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7(4) : pp.1059-1076.
- 파슨즈(Parsons, T.). 1955. 박숙자역, 1995. “미국가족: 인석 및 사회구조와의 관계”, 151-180. 『가족과 성의 사회학: 고전사회학에서 포스트모던 가족론까지』 사회비평사.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1.” 경제·인문사회협동연구 총서.

- Alwin, D. F. 1986. "Religion and parental child-rearing orientations: Evidence of a Catholic-Protestant converg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92 : pp.412-440.
- Alwin, D. F. 1990. "Cohort replacement and changes in parental socialization valu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 pp.347-360.
- Arendell, T. 2000. "Conceiving and investigating motherhood: The decade's scholar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 pp.1192-1207.
- Arnold, F., R. A. Bulatao., C. Buripakdi., B. J. Chung., J. T. Fawcett., T. Iritani., S. J. Lee., and Wu, T. S. 1975. *The Values of children: A cross-national study. Vol 1.* Honolulu: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 Aquilino, W. S. 1994. "Later life parental divorce and widowhood: Impact on young adults' assessment of parent-child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 pp.908-922.
- Barratt, M. S. 1995. "Communication in infancy." Pp. 5-33 in M. A. Fitzpatrick and A. L. Vangelisti (Eds.), *Explaining Family Interaction*. Thousand Oaks, Calif.: SAGE.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1) : pp.1-102.

- Bernard, J. 1974. *The Future of Motherhood*. New York: Dial.
- Boulton, M. G. 1983. *On Being a Mother*. New York: Tavistock.
- Braver, S. L. 1998. *Divorced adds*. New York: Jeremy Tarcher/Putnam.
- Cappella, J. N. 1987. "Interpersonal communication: Fundamental questions and issues." Pp. 184-238 in C. R. Berger and S. H. Chaffee (Eds.), *Handbook of Communication Science*. Newbury Park, Calif.: SAGE.
- Chodorow, N. 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Psychoanalysis and the sociology of gender*.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llins, W. A. 1990.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the transition to adolescence: Continuity and change in interaction, affect, and cognition." pp. 85-106. in R. Montemayor, G. R. Adams, & T. P. Gullotta (Eds.). *Advanced in adolescence development: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 transitional period?*
- Coltrane, S. 2004. "Fathering : Paradoxes, Contradictions, and Dilemmas." in Marilyn Coleman & Lawrence H. Ganong (Eds.). : pp.224-243. in *Handbook of Contemporary Families. Considering the Past, Contemplating the Future*. Sage publications.
- Coltrane, S. and Galt, J. 2000. "The history of men's caring." : pp.15-36 in M.H. Meyer(Ed.). *Care work: Gender, labor, and welfare states*. New York: Routledge.
- Darling N., and Steinberg, I.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 : pp.487-496.
- Demo, H. 1992. "Parent-Child Relations: Assessing Recent Chan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1) : pp.104-117.
- Dornbusch, S. and P. Ritter. 1991. "Family decision-making and authoritative parenting."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 Eaton, M. 1997. "Positive discipline: fostering the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53(6) : pp.43-46.
- Fagan, J. A. 1998. "Correlations of low-income African American and Puerto Rican fathers' involvement with their children." *Journal of Black Psychology*. 3 : pp.351-367.
- Fitzpatrick, M. A. and J. P. Caughlin. 2002.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 Family Relationships." Pp. 726-777 in M. L. Knapp and J. A. Daly (Eds.),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Thousand Oaks, Calif.: SAGE.

- Fulgini, A. J. and J. S. Eccles. 1993. "Perceived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early adolescents' orientation toward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9:622-632.
- Furstenberg, F. F. 1988. "Good dads-bad dads." : pp.193-218. in A. Cherlin (Ed.). *The changing American family and public policy*.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Press.
- Glasgow, K. L., Dombusch, S. M., Troyer, L., Steinberg, L. R., and Ritter, P. L. 1997. "Parenting styles, adolescents attributions, and educational outcomes in nine heterogeneous high school." *Child Development*. 68(3) : pp.507-529.
- Grotevant, H. and C. Cooper. 1986. "Individua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 perspective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identity and role-taking skill in adolescence." *Human Development* 29:82-100.
- Hagan, J. 1991. "Destiny and drift: Subcultural preferences, status attainments and the risks and rewards of you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567-582.
- Harris, K. M., and S. P. Morgan, 1991. "Fathers, sons, and daughters : Differential paternal involvement in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 pp.531-44.
- Hayes, S. 1996.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Hewlett, B. S. 2000. "Culture, history, and sex: Anthropological contributions to conceptualizing father involvement." *Marriage and Family Review*. 29 : pp.59-73.
- Hofferth, S. L. 2003. "Race/ethnic differences in father involvement in two-parent families: culture, context, or economy." *Journal of Family Issues*. 24 : pp.185-216.
- Kandel, D, and K. Andrews. 1987. "Processes of adolescent socialization by parents and peers." *International Journal of Addictions* 22:319-342.
- Kandel, D. and G. Lesser. 1972. *Youth in Two Worlds*. San Francisco: Jossey-Bass.
- Kaufman, G., and Uhlenberg, P. 1998. "Effects of Life Course Transitions on the Quality of Relationship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4) : pp.924-938.
- Kimmel, K. 1996. *Manhood in America: A cultural history*. New York: Free Press.
- Lamb, M. E. 1977. "The role of the father: An overview." : pp.1-63.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Lamb, M. 1981. "Fathers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grated overview." pp. 1-70. in M. Lamb(Ed.). *The rol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 Lasch, C. 1979. *Heaven in a Heartless World: The family besieged*. Basic Books. .
- Lee, G. R., Dwyer, J. W., and Coward, R. T. 1993. "Gender differences in parent care: Demographic factors same-gender preference."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 48 : pp.9-16.
- Lerner, R. M., and G. B. Spanier (Eds.). 1978. *Child Influences on Marital and Family Interaction: A Life-Span Perspective*. New York: Academic Press.
- Marcos, A., S. Bahr, and R. Johnson. 1986. "Test of bonding/association theory of adolescent drug use." *Social Forces* 65:135-161.
- Morgan, S. P., D. N. Lye, and G. A. Condran, 1988. "Sons, daughters, and the risk of marital disrup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 pp.110-29
- Nock, S. L., and Kingston, P. W. 1988. "Time with children: The impact of couples' work-time commitments." *Social Force*. 67 : pp.59-85
- Noller, P. 1995.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Pp. 77-111 in M. A. Fitzpatrick & A. L. Vangelisti (Eds.), *Explaining Family Interaction*, Thousand Oaks, CA: Sage.
- Oakley, A. 1979. *Becoming a Mother*. New York: Schocken.
- Parke, R. D. 1996. *Fatherhoo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ke, and O'Leary, and S. O'Leary. 1975. "Father-mother-infant interaction in the newborn period: Some findings, some observations, and some unresolved issues." : pp.653-663. in K. F. Riegel and J. A. Meacham (Eds.). *The Developing Individual in a Changing World. 2.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 Pleck, J. H. 1997. "Parental involvement. : Levels, sources, and consequences." : pp.66-103. in M. E. Lamb (Ed.). 3rd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Pleck, J. H. and Masciadrelli, B. P. 2003. "Parental involvement: Levels, sources, and consequence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Rich, A. 1976. *Of Woman Born*. New York: Norton.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MA: Houghton Mifflin.
- Rollins, B. C. and D. L. Thomas. 1979. "Parental support, power, and control technique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Pp. 317-364 in W. R. Burr, R. Hill, F. I. Nye,

- and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New York: Free Press.
- Rossi, A. and Rossi, P. 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Sanday, P. R. 1981. *Female Power and Male Domina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afford L. and C. L. Bayer. 1993. *Interac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Newbury Park, CA: Sage.
- Steinmetz, S. K. 1979. "Disciplinary techniques and their relationship to aggressiveness, dependency, and conscience." Pp. 405-438 in W. R. Burr, R. Hill, F. I. Nye, and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2). New York: Free Press.
- Thompson, L. and Walker, A. J. 1989.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 pp.845-871.
- Vangelisti, A. L. 1992. "Older adolescents' perceptions of communication problems with their par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382-402.
- Walzer, S. 1998. *Thinking about the bab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Walzer, S. 2004. "Encountering Oppositions : A Review of Scholarship About Motherhood." : pp.209-223. in Marilyn Coleman & Lawrence H. Ganong (Eds.). *Handbook of Contemporary Families. Considering the Past, Contemplating the Future*. Sage publications.
- Walter, J. and Walter, L. H. 1980. "Parent-Child Relationship: A Review, 1970-1979."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4) Decade Review : pp.807-822
- Warner, E. L., and B. S. Steel. 1999. "Child rearing as a mechanism for social change : The Relationship of child Gender to parents' Commitment to Gender Equity." *Gender Society*. 13 : pp.503-515.
- Youniss. J and J. Smollar. 1985.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A Sullivan-Piaget Perspec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III. 4개국 청소년의 성역할인지와 가족관계 요인분석: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1. 청소년 성인지에 있어서의 가족관계의 영향
2. 설명변수와 연구방법
3. 4개국 청소년 성역할 인지도의 비교
4. 성역할 인지와 성별차이
5. 가족관계의 영향 : 가정내 가사노동분담
6. 가족관계의 영향 : 가정내 부모-자녀간
소통방식
7. 가족관계의 영향 : 부모와의 자녀 일체화
정도
8. 다변인분석 (Multivariate analysis)
9. 결론

VIII. 4개국 청소년의 성역할인지와 가족관계 요인분석: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1. 청소년 성인지에 있어서의 가족관계의 영향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자아와 성에 눈을 뜨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성의 역할이다(Toder & Marcia, 1973; Perry & Bussey, 1979; Gilligan, 1982; Adams & Gulotta, 1989; Patterson, Sochting & Marcia, 1992). "나는 여자/남자로서 어떤 것이 적절한 처신인가?" "나는 여자/남자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사회적 규범에 맞는 것일까?" 하는 질문들을 성장하면서 제기한다 (Kohlberg, 1966; Hurlock, 1981).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자녀들이 성(性)과 관련된 여러가지 가치기준과 사회적 통념, 그리고 행동의 규범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형성되고 습득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게다가 문화와 역사, 그리고 교육체계, 가족관계 등이 상이한 국가를 비교할 때 이들의 가치기준과 태도, 그리고 행위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근본적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과 스웨덴같이 완전히 상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성역할의 인식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 차이를 보인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청소년 사회화 과정의 중요한 장(場)으로서 가정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중의 하나이며, 인격형성과 사회에 대한 시각과 가치기준을 갖게 하는데 부모의 역할은 어떤 요인보다도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부모의 성에 대한 가치기준과 태도, 인식, 통념 등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과정에서 성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의미도 자녀들이 함께 물려 받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자녀의 사회화 과정의 틀로서 가정내에서 부모와의 관계속에서 성과 관련된 사회적 역할의 가치기준이 상이한 문화 속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와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 집필자 : 최연혁(남스톡홀름 대학교 교수)

2. 설명변수와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가정내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주축으로 한 가족관계에서 자녀의 인성과 사회화의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주된 관심이다. 자녀의 인성형성과 사회화의 과정은 분절되거나 단절된 형태로 발전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 학교, 친구관계 등의 다양한 경로와 네트워크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며 발전될 것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가정내 부모와의 관계만을 떼어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앞에서 언급한 4개국 청소년들의 성역할의 인지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의 주된 원인을 가족내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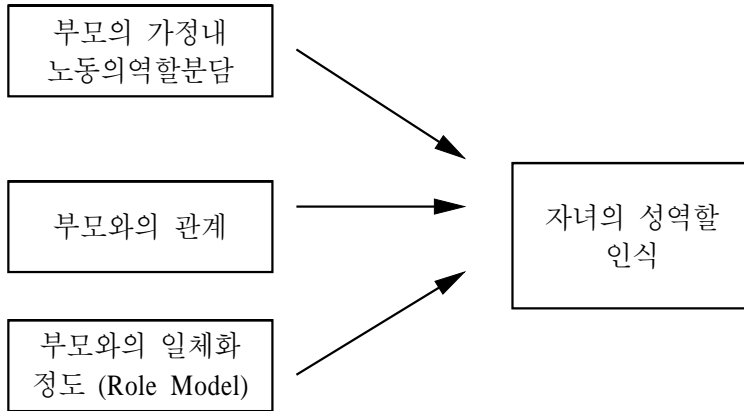
이 연구를 위해 다음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세 가지 독립변수 즉 설명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자녀의 성역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사회적 학습이론에 기초한 가정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사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들 수 있다 (Mischel, 1970; Johnson, 1977). 물론 아버지가 직장생활을 하고, 어머니가 전업주부로 가정에 있을 경우 아버지의 가사분담의 비중은 낮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이전보다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가사노동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역으로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할 때 상정되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에 참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어머니가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다면 분명 가정내 성역할에 대한 부모의 시각과 현실적 분담의 정도가 아이들에게도 직접적으로 가치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두번째로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하게 되는 중요한 물로서 성역할 습득을 위한 훈육자로서 또는 모델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남녀 각각 다른 성역할을 강조하고 교육시키며, 그들의 가치기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부모가 가정내에서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

서 모델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따라 많이 좌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역할에 대한 입장이나 가치기준을 측정해 보는 변수를 포함한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부득이 자녀의 성역할에 대한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부모간의 관계에 있어, 얼마나 대화를 통해서 자녀의 정서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느냐를 알아보고자 한다. 가족내 의사소통이 민주적이고, 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부모의 교육 방식을 통해 자녀들은 가부장적이며 남성중심의 세계관보다는 성평등적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가설에 입각한다. 반면 부모가 매우 비민주적으로 대하거나 자녀를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지 않고 종속적, 혹은 예측적 대상으로 보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부모의 교육방식에서는 사회의 위계질서적 세계관을 통해 남성우위의 사회질서, 혹은 이성보다는 폭력, 평등보다는 힘이 주된 가치기준이 되는 사회를 모방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도 이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Maccoby & Jacklin, 1974; Goldman & Goldman, 1983).

세번째로 자녀의 성역할에 대한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변수로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일체감을 들 수 있다 (Freud, 1933; Kohlberg, 1966 Mischel, 1970). 만약 아들이 아버지처럼 혹은 딸이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강하다면 귀감적 역할모델(Role Model)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볼 수 있다. 즉 자녀들이 일체화를 통해 성역할의 시각과 가치판단이 형성되며 모방의 양태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변수는 위에서 언급한 가정내에서의 의사소통의 방식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결과적 내용을 담고 있다.

위의 내용을 하나의 도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은 연구모델을 추출할 수 있다. 각 변수의 성역할의 인식에 미치는 개별 변수의 영향과 2개 이상의 변수가 복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보기위해 양변량분석(Bivariate analysis)과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 상관관계표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 연구를 위해 2006년 청소년 개발원이 실행한 5개국 연구 프로젝트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청소년의 가족내 사회화과정의 연구’를 위해 5개국에서 실시된 조사통계 자료를 사용한다1).



[그림 VIII-1] 자녀 성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의 제 설명 변수

3. 4개국 청소년 성역할 인지도의 비교

먼저 4개국의 성역할 인지도의 실태를 비교해 보면 각국의 성역할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를 측정하기 사용한 6개의 항목은 성에 따른 사회적 역할과 성의 기대치를 살펴보자. 먼저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가족 경제와 가사의 구분이다.

2차대전 이후 후기산업주의 시대에 접어들기 전에는 여성이 집안에 머물며 육아 등 가사를 거의 전담하면서, “남자는 밖에서 여자는 안에서” 일하는 형태가 전형적인 모습이었다(Darvishpour, 2004). 그러나 경제사회가 발전하면서 여성이 가정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현상이 더욱 현저해 지면서 전통적인 성역할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4개국의 비교에 있어 어떤 차이가 보여지고 있는가?

<표 VIII-1>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전반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젊은 4개국 청소년들의 시각이 매우 이전 세대와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활동에 있어 안과 밖의 담을 허물고자 하는 청소년

1) 저자는 연구프로젝트의 스웨덴 책임자로 Peter Strandbrink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를 위해 사용한 4개국 자료의 설문서, 표집방법, 응답률(Response rate) 등은 연구프로젝트의 보고서를 참조.

대다수의 시각이 확연히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스웨덴은 절대 우위인 94.1퍼센트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가정 안과 밖이라는 구분은 이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터부시 될 정도의 수준이다. 즉 이제 여자니까 가사에 전념한다든지, 남자니까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 역할 정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에 이어 85.2퍼센트로 독일이, 근소한 차이로 한국이 84.6퍼센트의 수준으로 뒤를 잇고 있다. 특이한 것은 일본의 청소년 4명중 1명꼴로 아직 남자는 가족경제, 여자는 가정이라는 전형적 틀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자의 가정경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알아보는 세번째 항목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표 VIII-1> 4개국 청소년의 성역할 인지도

항 목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차이 ^a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사를 돌봐야 한다	84.6	75.3	85.2	94.1	18.8
남자는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	52.6	42.5	74.3	76.4	33.9
사회적 성공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	76.6	69.5	80.0	93.3	23.8
여자에게는 사회적 성공보다 행복한 결혼이 더 중요하다	67.6	66.5	59.9	76.4	16.5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책임이 더 크다	71.2	71.6	61.9	76.2	14.3
여자는 얌전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	86.5	87.9	89.1	97.8	11.3
평 균 치	73.2	68.9	74.9	85.7	

설명: a. 차이는 4개국의 수치중 최고치와 최저치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1. 위 표의 성역할인지도의 측정은 다음의 질문에 근거한다. "아래 사항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2. 위 표의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반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거나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더욱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 같은 현상은 여타 국가들 특히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확연히 나타난다. 거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47.4가 남자에게 경제적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

다. 이같은 현상은 일본과 한국에 비하면 미약하지만 1/4에 해당하는 독일, 스웨덴 청소년들도 남성이 가정경제에 책임이 있음에 동의한다. 이는 스웨덴, 독일의 경우 80퍼센트 내외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해석은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경우 남자의 가정경제기여도가 높다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같은 양상은 출산 유급휴가의 사용양태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스웨덴의 경우 부모 유급출산휴가를 대다수의 경우 여성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가정경제 기여도가 남성이 높아 가정경제 손실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성공에 대한 4개국 청소년들의 인식은 어떠할까? 먼저 일본 청소년 중 70퍼센트가 사회적 성공은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는 시각에 있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30퍼센트의 일본 청소년들은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의 성공에 비해 덜 중요하다고 본다. 위의 항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의 경제적 책임은 사회적 성공을 통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 점이었다. 일본보다는 다소 미약하지만 대다수 한국의 청소년들도 사회적 성공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와 비교하면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의 사회적 성공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 즉 스웨덴 청소년의 경우 6.7퍼센트의 극히 적은 그룹만이 남성의 성공이 여성의 그것보다 중요하다는데 동의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활동, 그 안에서의 성공은 중성의 것, 혹은 두 그룹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물론 여성의 노동시장진출이 일본과 한국에 비해 높은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남성의 성공이 여성의 것에 비해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에 있어 독일 청소년의 80퍼센트가 그렇지 않다고 답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따른 진급, 급여의 증가 등을 통한 사회적 성공의 척도는 남녀성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위의 연장선상에서 여자의 성공과 결혼생활에서의 행복을 비교할 때는 어떠한 양태가 나타날까? 즉 스웨덴에서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여성의 사회

적 성공도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를 결혼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목표의 지향점, 즉 가정을 갖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하는 질문이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스웨덴 청소년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즉 노동시장에 기왕에 참여를 했다면 남녀 구분없이 성공을 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인생의 목표이자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이 굳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사회적 성공은 덜 중요할 것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상충이라고 할 수 있다. 예상대로 행복한 결혼이라는 것은 사회활동과 버금가는, 혹은 더욱 중요한 인생의 목표라는데 상당수가 동의한다. 스웨덴 청소년의 경우 93.3퍼센트가 남성의 성공이 여성의 성공보다 중요할 것이라는 데는 부정하면서도, 여성에게는 행복한 결혼생활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23.6퍼센트를 차지한다. 즉 4명 중 1명에 가까운 23.6퍼센트의 청소년 들은 사회에서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행복을 결혼에서 추구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사회적 성공이라는 측면을 남성과 비교해 볼 때는 여성도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하지만 여성의 행복의 잣대를 결혼에 비유할 때는 이 또한 중요할 것이라는 표현일 뿐이다. 즉 사회활동과 결혼생활의 선택을 강요할 때 생기는 갈등의 괴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별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를 보면 분명 40퍼센트의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시각은 여성은 사회활동보다는 행복한 결혼생활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독일 사회가 아직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있어 전반적으로 전통적 형태가 많이 남아 있다는 단서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은 스웨덴과 독일의 중간수준에 위치하지만 3명 중 한사람은 여성이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얻을 수 있는 성공보다 훨씬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책임 소재에 대한 각국 청소년들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 시각을 보여주면서도 다른 항목에 비해 4개국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거의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에

서 조차 여성이 자녀교육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24퍼센트 즉 4명중 1명이 차지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이같은 시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독일에서는 아직 상당히 많은 40퍼센트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론에 무게를 실어줌으로써 위에서 논의되었던 여성의 가정에서의 행복추구권과 같은 비슷한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는데 유념해야 한다고 본다. 즉 독일사회에서는 자녀교육에서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것은 상당부분 엄마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자녀의 인성교육, 학업성취 등에 있어서 어머니의 가정에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짐작하게 해 준다.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독일과 다소 차이는 있기는 하나 30퍼센트 정도의 청소년이 자녀의 교육의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두 사회에서도 어머니의 전통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단 한 가지 항목에서는 예외없이 모든 4개국의 청소년들이 여성의 소극적 성향이나 남성에 대한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에는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강하게 보여준다. 부정적 시각이 가장 강한 스웨덴과 가장 낮은 한국의 차이가 겨우 11.3퍼센트에 지나지 않으며 4개국 모두 80퍼센트를 훨씬 상회한다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 그리고 위상이 더 이상 남성의 예속적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4개국 중 스웨덴은 모든 항목에 있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고 평균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85.7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스웨덴 사회가 성평등에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구현되었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다. 스웨덴의 경우는 잘 짜여진 복지제도가 여성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바탕으로 구축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더욱 성평등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북유럽에 위치하고 있지만 스웨덴의 뒤를 이어 10퍼센트 정도의 평균차이로 이를 뒤따르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다. 약간의 근소한 차이로 한국이 뒤를 따르고 평균점수에서 가장 낮은 68.9를 기록하여 4개국 비교에서 일본이 가장 가부장적인 사회, 혹은 전통적 남

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잔재 등이 가장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라 평가할 수 있다.

사안별 차이는 있지만 남자의 가정경제에 대한 책임, 여자의 결혼을 통한 행복추구, 그리고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 등에 있어서는 4개국 사회에서 아직 상당한 논쟁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가 서구에 비해 낮은 한국과 일본에서의 남성은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통적 사고 방식이 아직도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고, 독일사회에서 자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은 여성이 직장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고 하겠다.

4. 성역할 인지와 성별차이

이 같은 성역할에 있어서 각 국의 차이는 분명 복지수준, 여성의 사회참여수준, 그리고 역사와 문화적 뿌리에 기반을 둔 사회적 가치기준과 전통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차이의 본질을 한거풀 더 벗겨보기 위해 4개국 청소년을 성별로 구분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만약 성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먼저 <표 VIII-1>에서 비교해 본 바와 같은 차이와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면 사회의 보편적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성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남성과 여성간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면, 아직까지 성역할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는 상당한 변화를 겪으며 갈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만약 성역할의 시각에 있어 남성과 여성간 큰 차이없이 유사한 양태를 보여준다면 그 사회는 자라나는 신세대인 청소년간의 성 갈등구조 혹은 대립양상보다는 합의된 사회적 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통념, 그리고 가치기준에 대한 성별차이의 4개국 비교에서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6개 항목의 4개국 비교를 통한 성별 시각의 평균차이는 낮게는 5퍼

센트, 높게는 17.8퍼센트에 이른다.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책임성에 대한 항목의 5퍼센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4개국 평균차이가 10퍼센트 이상의 수준을 나타낸다. 그 중에서도 남자는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항목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무려 17.8퍼센트까지 나타난다.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성에 있어서는 남성, 여성간의 차이가 독일을 제외하고는 매우 미미한 차이만을 보여줄 뿐이다. 독일의 경우는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양육 특히 교육의 책임을 바라 보는 시각에 있어 남성의 경우 거의 과반수(56.8%)가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68.8퍼센트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다르게 표현하면 43.2퍼센트의 남성이 아직 아동의 가정교육은 어머니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31.2퍼센트만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은 독일사회가 여성의 전통적 역할에 있어 남성과 여성간에 일정의 괴리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국가별로 보았을 때 가장 첨예하게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나라는 한국과 독일이다. 남자의 경제적 책임 (21.6), 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성공여부의 차별성(23.3), 여성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서 양전함과 남성에게 대한 순종에 대한 시각(17.4) 등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다. 독일에서는 남자는 경제-여자는 가사(15.1) 그리고 여자의 결혼과 사회적 성공의 비교(13.3), 그리고 자녀 교육의 어머니 책임 항목 (11.8) 등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현저히 나타난다. 이는 두 사회에서 남녀 청소년의 성에 기초한 사회적 역할, 기대와 인식에 있어 아직도 상당한 괴리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성의 사회적 역할과 기대에 대한 남성과 여성간의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거나, 혹은 약간의 갈등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하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남성은 아직 전통적이며 가부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여성은 변화된 여성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III-2> 성별 성역할인지와의 교차분석: 4개국 비교

항 목	국 가	남성	여성	차이	평균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사를 돌봐야 한다	한국	77.7	92.3	14.6	17.8
	일본	69.8	80.5	10.7	
	독일	78.7	93.8	15.1	
	스웨덴	88.0	98.6	10.6	
남자는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	한국	42.4	64.0	21.6	13.0
	일본	32.6	51.5	18.9	
	독일	66.4	84.4	18.0	
	스웨덴	81.9	94.4	12.5	
사회적 성공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	한국	65.6	88.9	23.3	12.8
	일본	63.7	75.6	11.9	
	독일	75.4	86.2	10.8	
	스웨덴	89.9	95.9	6.0	
여자에게는 사회적 성공보다 행복한 결혼이 더 중요하다	한국	61.9	74.0	12.1	12.0
	일본	61.7	71.8	10.1	
	독일	54.2	67.5	13.3	
	스웨덴	69.3	81.8	12.5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책임이 더 크다	한국	69.8	72.6	2.8	5.0
	일본	72.3	71.8	0.5	
	독일	56.8	68.6	11.8	
	스웨덴	73.3	78.2	4.9	
여자는 얌전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	한국	78.3	95.7	17.4	10.4
	일본	83.4	93.1	9.7	
	독일	83.0	97.2	14.2	
	스웨덴	95.3	95.7	0.4	
평균치	한국	65.9	81.3	15.4	
	일본	63.9	74.1	10.2	
	독일	69.1	82.9	13.9	
	스웨덴	82.9	90.8	7.9	

설명 : <표 VIII-1>에서와 같이 1과 2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한 청소년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밑줄로 표시된 수치는 4개국 비교에서 가장 높거나 혹은 낮은 경우이다.

셋째, 4개국의 평균적 성별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는 한국이 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별 차이가 가장 큰 15.4퍼센트에 이르고 스웨덴은 가장

낮은 7.9퍼센트의 차이에 머문다. 즉 성역할에 대한 인식에 있어 한국이 4개국 비교에서 남성과 여성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스웨덴에서는 성역할의 인식에 있어서 남녀성간의 시각차가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스웨덴에서 여성의 사회적 성공(6.0), 자녀교육의 어머니책임(4.9), 그리고 여자의 암전함과 남성에 대한 순종(0.4) 등에 있어 남녀성간의 차이가 거의 없이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 그만큼 스웨덴 사회가 남녀평등적 사회에 진입하고 있거나, 이미 진입했다는 상당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일본의 경우는 매우 특이하다. <표 VIII-1>에서는 일본의 청소년들이 있어서 가장 가부장적 사회, 혹은 그런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사회로 간주되었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치 비교에서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즉 기존 사회적 질서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증거로 성별에 관계없이 성인식에 있어 비교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스웨덴에 이어 두번째로 차이의 정도가 낮다. 즉 남녀간 10.2퍼센트만의 차이만 보일 뿐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스웨덴의 경우 남성-여성 모두 전통적 성인식 변수에 있어서 강한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남녀간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차이가 남녀 공히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동시에 두 성별간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일본 사회의 가족에 대한 규범과 인식의 틀에 대한 기존의 시각이 남녀 모두에게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스웨덴은 4개국중 가장 안정적인 남녀평등적 사회구조를 구축해 놓았고, 일본은 남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시각이 가장 보수적 측면을 나타내고 있으나, 남녀간의 시각차에 있어서는 스웨덴이 가장 낮고 한국이 가장 높은 양상을 보여준다. 그만큼 스웨덴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역할에 대한 시각이 남녀모두가 사회변화와 함께 변화의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 폭넓은 사회진출, 여권신장의 확대, 호주제의 폐지 등 사회적,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는 동시 가부장적인 전통사회에 대한 시각이 아직도 남자청소년

년 들에 있어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성역할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태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즉 왜 스웨덴에서는 기존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에 있어 부정적이며 일본에 있어서는 왜 상대적으로 기존질서적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과 독일에서는 아직도 성의 차이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일련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가정내 부모의 역할분담 여부와 정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녀들의 성역할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자녀가 부모와의 일치화를 통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역할을 모방하는지 또한 그 정도가 성역할의 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양변량분석(Bivariate analysis)과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을 통해 각개의 설명변인의 상관관계와 3개변수의 복합된 영향력을 각각 측정해보자 한다. 이 분석에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중요한 제3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의 차이를 통제변수(Control variable)로 사용하고자 한다.

5. 가족관계의 영향 : 가정내 가사노동분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족간의 관계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통해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다. 산업사회가 도래하기 전에는 여성과 남성간에 안과 밖의 일을 나누어 보는 경향이 강했다. 즉 여성은 집안 살림과 자녀양육, 그리고 남자는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것이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차대전 이후의 서구 산업사회의 공통된 현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가정경제에의 기여, 그리고 늘어난 무급휴가일수와 주5일제 근무를 통한 여가시간의 증가와 남성의 가족과의 공동시간의 증대 등을 통해 성역할에 대한 가치기준과 통념에서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부의 전유물 혹은 가정주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빨래, 설거지, 밥짓기, 청소와 같은

가정내에서의 노동에 있어서 남성의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 복지제도의 확대를 통한 남성의 육아휴가 등도 남성이 여성대신 육아휴가를 사용하여 여성은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남성이 집안일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삶의 양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연구는 자녀의 성역할에 대한 시각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정내에서의 노동분담의 유무, 그리고 그 정도의 차이가 아이들의 성평등적 사고와 행동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로부터 출발한다. 4개국에 있어서 위와 같은 가설은 얼마나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을까?

4개국을 차례로 보면 가사노동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집에서 아버지가 하나의 가사노동에 참여할 때 나머지 가사노동도 어머니와 분담하고 있는 행동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식사준비를 도와주는 아버지가 있다면 나머지 가사노동에 참가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양태는 독일을 제외한 한국, 일본, 스웨덴에서 확인된다. 일본과 스웨덴에서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가사노동의 분담이 4개 부분에서 모두 강하게 나타난다. 유의도에 있어서도 99%의 통계적 유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가사노동의 분담여부가 자녀들의 성역할 인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자. <표 VIII-3>에서 보여지듯이 아버지의 적극적 가사노동 참여가 자녀들의 성역할 인식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가사 노동의 분담여부와 성역할 인지변수와 상관관계의 유의도에 있어서 모두 99%를 만족하나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VIII-3〉 자녀의 성별로 통제된 가정 내 부모의 가사노동의 참여정도와
자녀의 성역할 인지와의 관계- 한국

통제변수			q6_1	q6_2	q6_3	q6_4	성역할 인지
성별	q6_1	상관	1.000	.659	.543	.621	-.046
		유의도	.	.000	.000	.000	.009
		df	0	3139	3139	3139	3139
	q6_2	상관	.659	1.000	.626	.645	-.066
		유의도	.000	.	.000	.000	.000
		df	3139	0	3139	3139	3139
	q6_3	상관	.543	.626	1.000	.612	-.066
		유의도	.000	.000	.	.000	.000
		df	3139	3139	0	3139	3139
	q6_4	상관	.621	.645	.612	1.000	-.048
		유의도	.000	.000	.000	.	.007
		df	3139	3139	3139	0	3139
	성역할 인지	상관	-.046	-.066	-.081	-.048	1.000
		유의도	.009	.000	.000	.007	.
		df	3139	3139	3139	3139	0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	성인지 역할
부모의 가사일 공유	상관	1.000	-.041
	유의도	.	.021
	df	0	3139
성인지 역할	상관	-.041	1.000
	유의도	.021	.
	df	3139	0

설명: 1. q6_1 (식사준비), q6_2 (설거지), q6_3 (청소), q6_4 (세탁). 상세한 코드 값은 부록 1을 참조할 것.

2. 자녀의 성역할인지 변수는 6개의 성역할 변수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으로 추출된 값을 하나의 요인변수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앞으로 사용될 모든 분석은 이 변수를 사용한다.

〈표 VIII-4〉 자녀의 성별로 통제된 가정 내 부모의 가사노동의 참여정도와
자녀의 성역할 인지와의 관계- 일본

통제변수			q6_1	q6_2	q6_3	q6_4	성역할 인지
성별	q6_1	상관	1.000	.499	.351	.621	-.032
		유의도	.	.000	.000	.000	.508
		df	0	437	437	437	437
	q6_2	상관	.499	1.000	.551	.530	-.008
		유의도	.000	.	.000	.000	.875
		df	437	0	437	437	437
	q6_3	상관	.351	.551	1.000	.446	-.003
		유의도	.000	.000	.	.000	.947
		df	437	437	0	437	437
	q6_4	상관	.327	.530	.446	1.000	-.012
		유의도	.000	.000	.000	.	.810
		df	437	437	437	0	437
	성역할 인지	상관	-.032	-.008	-.003	-.012	1.000
		유의도	.508	.875	.947	.810	.
		df	437	437	437	437	0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	성인지 역할
부모의 가사일 공유	상관	1.000	-.017
	유의도	.	.726
	df	0	437
성인지 역할	상관	-.017	1.000
	유의도	.726	.
	df	437	0

설명: 1. q6_1 (식사준비), q6_2 (설거지), q6_3 (청소), q6_4 (세탁). 상세한 코드 값은 부록 1을 참조할 것.

2. 자녀의 성역할인지 변수는 6개의 성역할 변수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으로 추출된 값을 하나의 요인변수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앞으로 사용될 모든 분석은 이 변수를 사용한다.

〈표 VIII-5〉 자녀의 성별로 통제된 가정 내 부모의 가사노동의 참여정도와
자녀의 성역할 인지와의 관계- 독일

통제변수			q6_1	q6_2	q6_3	q6_4	성역할 인지
성별	q6_1	상관	1.000	.370	.150	.237	-.096
		유의도	.	.000	.006	.000	.080
		df	0	330	330	330	330
	q6_2	상관	.370	1.000	.422	.288	-.145
		유의도	.000	.	.000	.000	.008
		df	330	0	330	330	330
	q6_3	상관	.150	.422	1.000	.288	-.138
		유의도	.006	.000	.	.000	.012
		df	330	330	0	330	330
	q6_4	상관	.237	.288	.288	1.000	-.056
		유의도	.000	.000	.000	.	.306
		df	330	330	330	0	330
성역할 인지		상관	-.096	-.145	-.138	-.056	1.000
		유의도	.080	.008	.012	.306	.
		df	330	330	330	330	0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	성인지 역할
부모의 가사일 공유	상관	1.000	-.162
	유의도	.	.003
	df	0	330
성인지 역할	상관	-.162	1.000
	유의도	.003	.
	df	330	0

설명: 1. q6_1 (식사준비), q6_2 (설거지), q6_3 (청소), q6_4 (세탁). 상세한 코드 값은 부록 1을 참조할 것.

2. 자녀의 성역할인지 변수는 6개의 성역할 변수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으로 추출된 값을 하나의 요인변수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앞으로 사용될 모든 분석은 이 변수를 사용한다.

<표 VIII-6> 자녀의 성별로 통제된 가정 내 부모의 가사노동의 참여정도와
자녀의 성역할 인지와의 관계- 스웨덴

통제변수			q6_1	q6_2	q6_3	q6_4	성역할 인지
성별	q6_1	상관	1.000	.530	.418	.356	-.053
		유의도	.	.000	.000	.000	.287
		df	0	408	408	408	408
	q6_2	상관	.530	1.000	.558	.438	-.128
		유의도	.000	.	.000	.000	.010
		df	408	0	408	408	408
	q6_3	상관	.418	.558	1.000	.499	-.099
		유의도	.000	.000	.	.000	.044
		df	408	408	0	408	408
	q6_4	상관	.356	.438	.499	1.000	-.044
		유의도	.000	.000	.000	.	.372
		df	408	408	408	0	408
성역할 인지		상관	-.053	-.128	-.099	-.044	1.000
		유의도	.287	.010	.044	.372	.
		df	408	408	408	408	0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	성인지 역할
부모의 가사일 공유	상관	1.000	-.106
	유의도	.	.031
	df	0	408
성인지 역할	상관	-.106	1.000
	유의도	.031	.
	df	408	0

설명: 1. q6_1 (식사준비), q6_2 (설거지), q6_3 (청소), q6_4 (세탁). 상세한 코드 값은 부록 1을 참조할 것.

2. 자녀의 성역할인지 변수는 6개의 성역할 변수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으로 추출된 값을 하나의 요인변수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앞으로 사용될 모든 분석은 이 변수를 사용한다.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아버지가 많다고 해서 남성의 사회적 역할과 통념에 있어서의 인식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든지 여성의 성평등인식이 강하게 바뀐다든지 하는 등의 결과변수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한국, 일본에서는 부모의 가사노동의 분담 여부

가 자녀의 성역할 인식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아버지의 설거지, 청소, 밥짓기 등에서의 역할분담이 어느 정도 자녀의 성역할 인식에 있어서 99%의 유의도 내에서 상관관계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 강도에 있어서는 -0.1 정도의 상관도를 보여줄 뿐이다. 4가지 가사노동변수를 요인분석(Factor Analysis)기법으로 하나의 요인 변수를 추출하고, 6개의 성역할 변수들로부터 하나의 성역할인식 변수를 추출한 후의 상관도를 보면 독일의 경우 -0.16, 스웨덴 -0.10의 낮은 상관도를 보이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더욱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도를 나타낸다.

이같은 결과는 특히 일본에서 남편들이 가사노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아직 서구 특히 스웨덴에 비해 미미하여 이 변수의 영향이 성역할의 인지에 아주 미미하게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밥짓기, 설거지, 청소, 빨래 등의 가사노동에 남자들이 최소한 반반씩 참여하는 비율이 각각 13.4%, 20.6%, 29.6%, 14.5%에 머물고 일본에 있어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5.8%, 10.2%, 11.8%, 7.8%에 머물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설거지, 특히 청소 정도는 함께 공유하는 경우가 2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지만 나머지 설거지, 빨래 등은 낮은 10% 수준을 약간 상회한다. 이는 일본과 비교하면 약간 높은 비율이지만 스웨덴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럽의 전통적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의 경우 가사노동 중 밥짓기(23.1%), 설거지(40.1%), 청소(22.7%), 빨래(11.5%) 등으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밥짓기, 설거지에 있어서는 두 국가보다 눈에 띄게 앞서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스웨덴의 경우 43.5%, 56.8%, 40.4%, 25.6% 등으로 남성의 가사노동의 참여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밥짓기 등에서도 남녀가 반반씩 분담하는 이상의 수준이 거의 과반수에 이르고, 설거지는 과반수 이상의 남자가 하고 있으며 청소에서도 가정에서 여자와 상당히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빨래에 있어서는 4명 중 1명만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인 것은 왜 남여의 가사노동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스웨덴에서 남녀의 성역할 인식차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

느냐는 점이다. 아마도 이것은 성평등의식이 복지제도, 그리고 학교교육 등을 통해 스웨덴 가정내에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가사노동 분담의 정도가 이제는 성평등 의식에 미칠 수 있을 정도로 남녀간에 크게 차이를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녀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여겨진다. 즉 대다수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아버지의 가사노동 참여를 목격하며 자랐다면 아버지의 그런 행위 자체가 성을 구분하는 요소보다는 누구든지 시간이 날 때 할 수 있는 일상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져 성역할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만큼 스웨덴 사회가 성중립적, 혹은 성평등적 사고와 의식이 저변에 깔려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4개국 비교에서 부모의 가사노동의 여부와 정도가 가정내에서 자녀들에게 성역할의 사회화에 별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6. 가족관계의 영향 : 가정내 부모-자녀간 소통방식

그렇다면 가정내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방식과 유형이 어떻게 성역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것인가? 즉 어머니, 아버지의 가사노동에 있어서의 분담여부 즉 가정에서의 작은 실천이 얼마나 자녀의 가치판단 기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것인가가 첫번째 질문이었다면, 과연 부모의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인 대화방식, 말투, 자녀의 인격적 대우 등의 소통방식이 자녀의 인성형성과 성에 기초한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두번째 질문의 관심이다. 부모가 자식을 하나의 인격체로 다루며 민주주의적 세계관과 사고방식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통해 자녀들은 보다 평등적 인격체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이며, 그렇지 않고 폭력으로 아이들을 다루거나, 욕설, 체벌 등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한다면 위계질서적 세계관 즉 남성의 절대적 우위개념인 폭력성, 그리고 반발심을 자극해 여성의 비하현상, 남성의 세계관을 습득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로부터 출발한다.

4개국 부모의 자녀에 대한 소통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띤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자녀관계가 개방되어 있고 자녀를 인격체로 다룰 경우 어머니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이다. 위의 상관관계표를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관계를 보면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 즉 가정내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소통방식은 유사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독일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방식 혹은 소통방식은 상관도에 있어 일본과 스웨덴에 비해 약간 높은 0.5수준을 보여준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나타난 특징은 그렇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는 못한다. 기대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자녀들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의 소통방식이 그들의 성에 기초한 사회적 역할의 시각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개국에서 가장 그 영향력이 높은 독일의 경우 상관관계가 -0.09, -0.18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지적했던대로 독일의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의 교육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와 어머니와의 가정내 관계와 소통방식이 어느 정도 의미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어머니가 자식들을 개방적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대해줄 때 자식들은 더욱 사회의 평등적 가치를 몸소 익히고 전수받음으로써 성에 기초한 사회적 역할에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독일에서 부모의 양육방식과 행동이 동시에 자녀의 성역할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된 단일 변인과 종속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0.157을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을 제외한 여타 3개국에 있어서는 부모-자녀간의 소통방식과 부모의 양육방식이 그렇게 중요한 변수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경우는 스웨덴과 한국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들의 사회적 성역할 인식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부록2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각 변수들과의 개별적 관계도의 측정에 있어서도 확인된다.

<표 VIII-7> 자녀의 성별로 통제된 가정내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과 자녀의
성역할 인지와의 상관관계- 한국

		아버지- 자녀관계	어머니- 자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성역할 인지
아버지- 자녀관계	상관	1.000	.534	.876	.054
	유의도	.	.000	.000	.002
	df	0	3482	3482	3482
어머니- 자녀관계	상관	.534	1.000	.876	.088
	유의도	.000	.	.000	.000
	df	3482	0	3482	3482
부모와 자녀관계	상관	.876	.876	1.000	.081
	유의도	.000	.000	.	.000
	df	3482	3482	0	3482
성역할 인지	상관	.054	.088	.081	1.000
	유의도	.002	.000	.000	.
	df	3482	3482	3482	0

설명 : 부모와의 역할 변수인 q12f와 q12m 중 12개씩 24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아버지와의
관계변수 (Father-children relationship),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변수(Mother-children
relationship)라는 요인을 추출해 냈다.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변수의 상세한 코드
값은 부록 1을 참조.(아래 <표 VIII-8> <표 VIII-9> <표 VIII-10>도 상동)

<표 VIII-8> 자녀의 성별로 통제된 가정내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과 자녀의
성역할 인지와의 상관관계- 일본

		아버지- 자녀관계	어머니- 자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성역할 인지
아버지- 자녀관계	상관	1.000	-.342	.820	.014
	유의도	.	.000	.000	.778
	df	0	435	435	435
어머니- 자녀관계	상관	-.342	1.000	-.818	-.015
	유의도	.000	.	.000	.759
	df	435	0	435	435
부모와 자녀관계	상관	.820	-.818	1.000	.017
	유의도	.000	.000	.	.720
	df	435	435	0	435
성역할 인지	상관	.014	-.015	.014	1.000
	유의도	.778	.759	.778	.
	df	435	435	435	0

<표 VIII-9> 자녀의 성별로 통제된 가정내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과 자녀의
성역할 인지와의 상관관계- 독일

		아버지- 자녀관계	어머니- 자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성역할 인지
아버지- 자녀관계	상관	1.000	.516	.869	-.091
	유의도	.	.000	.000	.069
	df	0	403	403	403
어머니- 자녀관계	상관	.516	1.000	.872	-.182
	유의도	.000	.	.000	.000
	df	403	0	403	403
부모와 자녀관계	상관	.869	.872	1.000	-.157
	유의도	.000	.000	.	.002
	df	403		0	403
성역할 인지	상관	-.091	-.182	-.157	1.000
	유의도	.069	.000	.002	.
	df	403	403	403	0

<표 VIII-10> 자녀의 성별로 통제된 가정내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과 자녀의
성역할 인지와의 상관관계- 스웨덴

		아버지- 자녀관계	어머니- 자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성역할 인지
아버지- 자녀관계	상관	1.000	.419	.841	-.067
	유의도	.	.000	.000	.164
	df	0	431	431	431
어머니- 자녀관계	상관	.419	1.000	.843	-.053
	유의도	.000	.	.000	.269
	df	431	0	431	431
부모와 자녀관계	상관	.841	.843	1.000	-.071
	유의도	.000	.000	.	.138
	df	431	431	0	431
성역할 인지	상관	-.067	-.053	-.071	1.000
	유의도	.164	.269	.138	.
	df	431	431	431	0

7. 가족관계의 영향 : 부모와의 자녀 일체화 정도

위에서 확인된 점은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의 성인지적 행위와 가치기준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부모들의 성, 즉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고 딸이 어머니를 귀감으로 삼아 그들과 같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시각이 강하다면 성에 기초한 사회적 역할의 가치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이 질문은 결국 위에서 살펴본 아버지, 어머니와의 소통방식과 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 귀감적 요소가 많이 내재해 있다면 결국 그들을 본받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부모에게 귀감적 요소가 많아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본받고자 한다면 아들이든, 딸이든 관계없이 두사람을 본받고자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남성성, 그리고 어머니의 여성성 혹은 그들의 성에 기초한 사회적 가치관과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고, 성과 무관한 가치관, 즉 인격, 인간성, 근면성, 사랑 등을 본받기를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문제점은 있어도,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고 딸이 어머니를 본 받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영위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성의 소속감에 따른 가치기준도 함께 본받기를 원한다는 전체 조건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위의 <표 VIII-5>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의 귀감적 역할모델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아버지를 본받고자 하거나, 어머니를 본받고자 할 때 동시에 본받고자 한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 현상은 <표 VIII-4>에서도 논한 바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거의 유사한 양태를 띠기 때문에 부모의 본받음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은 가능하다.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람됨됨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을 하게 되었거나, 혹은 살면서 부부가 비슷한 인격체로 바뀌었을 가능성 또한 있겠지만, 자녀를 대하는 두사람의 방식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특히 한국에서 그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아버지처럼 살기를 원하는 자녀의 경우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고 할 상호간의 관계는 0.745로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다. 비슷한 유형이 나머지 3개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 변수 들 또한 자녀의 성역할 인지에 중요한 설명변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개국에서 모두 극히 낮은 상관관계 수준을 보여준다. 일본과 독일에서 아버지를 귀감으로 삼아 살고자 하는 청소년의 경우 자신들의 성역할 인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 상관도에 있어서는 0.1 정도의 매우 미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스웨덴에서 가장 미약한 수준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한국이 뒤를 잇고 있으나 그 차이는 거의 미미하여 그 의미가 매우 낮다.

<표 VIII-11> 자녀의 성별로 통제된 가정내 부모와의 일체화정도와 성역할 인지와의 상관관계- 한국

		q17_1	q17_1	부모역할 모델	성역할 인지
q17_1	상관	1.000	.745	.934	-.060
	유의도	.	.000	.000	.000
	df	0	3683	3683	3683
q17_1	상관	.745	1.000	.934	-.009
	유의도	.000	.	.000	.570
	df	3683	0	3683	3683
부모역할모델	상관	.934	.934	1.000	-.037
	유의도	.000	.000	.	.024
	df	3683	3683	0	3683
성역할 인지	상관	-.060	-.009	-.037	1.000
	유의도	.000	.570	.024	.
	df	3683	3683	3683	0

설명: 1. q17_1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q17_2 (나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상세한 코드값은 부록 1 참조.

2. 부모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Parental Role Model 변수는 q17_1과 q17_2 두 변수의 요인분석(Factor analysis)으로 추출된 요인값에 기초한다.

(아래 <표 VIII-12> <표 VIII-13> <표 VIII-14>도 상동)

<표 VIII-12> 자녀의 성별로 통제된 가정내 부모와의 일체화정도와 성역할
인지와의 상관관계- 일본

		q17_1	q17_1	부모역할 모델	성역할 인지
q17_1	상관	1.000	.677	.916	-100
	유의도	.	.000	.000	.030
	df	0	466	466	466
q17_1	상관	.677	1.000	.915	-044
	유의도	.000	.	.000	.345
	df	466	0	466	466
부모역할모델	상관	.916	.915	1.000	-079
	유의도	.000	.000	.	.089
	df	466	466	0	466
성역할 인지	상관	-100	-044	-079	1.000
	유의도	.030	.345	.089	.
	df	466	466	466	0

<표 VIII-13> 자녀의 성별로 통제된 가정내 부모와의 일체화정도와 성역할
인지와의 상관관계- 독일

		q17_1	q17_1	부모역할 모델	성역할 인지
q17_1	상관	1.000	.593	.893	-091
	유의도	.	.000	.000	.058
	df	0	433	433	433
q17_1	상관	.593	1.000	.892	-032
	유의도	.000	.	.000	.506
	df	433	0	433	433
부모역할모델	상관	.893	.892	1.000	-069
	유의도	.000	.000	.	.152
	df	433	433	0	433
성역할 인지	상관	-091	-032	-069	1.000
	유의도	.058	.506	.152	.
	df	433	433	433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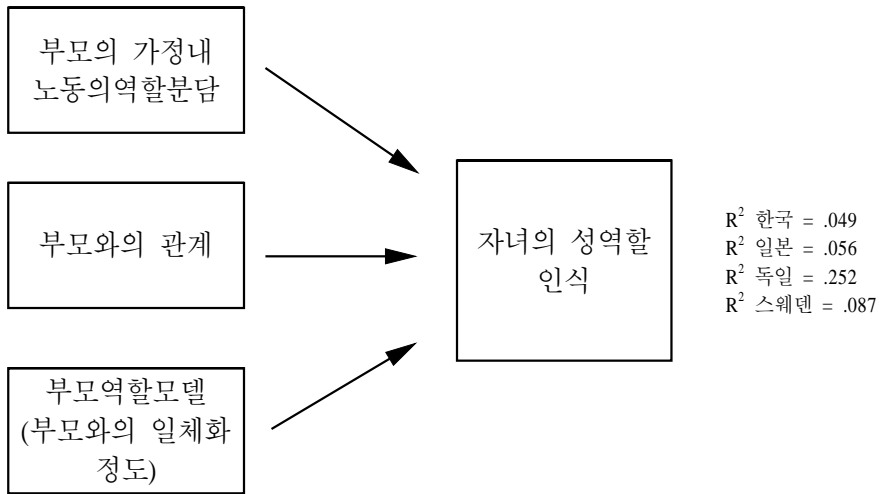
〈표 VIII-14〉 자녀의 성별로 통제된 가정내 부모와의 일체화정도와 성역할
인지와와의 상관관계-스웨덴

		q17_1	q17_1	부모역할 모델	성역할 인지
q17_1	상관	1.000	.668	.913	-.025
	유의도	.	.000	.000	.586
	df	0	469	469	469
q17_1	상관	.668	1.000	.914	.006
	유의도	.000	.	.000	.896
	df	469	0	469	469
부모역할모델	상관	.913	.914	1.000	-.010
	유의도	.000	.000	.	.821
	df	469	469	0	469
성역할 인지	상관	-.025	.006	-.010	1.000
	유의도	.586	.896	.821	.
	df	469	469	469	0

8. 다변인분석 (Multivariate analysis)

지금까지는 각 변인들의 개별적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위해 채택한 세개의 변인, 즉 부모의 가사 노동분담의 유무와 정도, 부모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일체화정도가 복합적으로 자녀의 성역할의 인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는가? 이의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해 다변인분석의 하나인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해 보자. 아래의 [그림 VIII-2]에서 먼저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속에서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세개의 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를 보면 독일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국 즉 한국, 일본, 스웨덴에서는 그렇게 통계적으로 유의도 설명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세 변수 모두 자녀들의 성역할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나머지 3개국은 이 모델이 결국 설명변수로서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사용된 모델의 설명력 (Explanatory power)에

있어서도 독일의 경우는 25.2퍼센트를 설명하고 있으나, 스웨덴 8.7퍼센트, 일본 5.6퍼센트, 가장 낮은 한국의 경우 4.9퍼센트만 사용된 세 변수가 청소년의 성역할 인지의 정도를 설명해 줌으로써 그 유용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이 최소한 독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VIII-2] 가족내 제 관계와 자녀 성역할 인식의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표 VIII-15> 가족내 제 관계와 자녀 성역할 인식의 다중회귀분석-한국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유의도
	B	표준오차	Beta		
(Constant)	.000	.018		-.021	.983
부모의 가사노동분담	-.050	.018	-.050	-2.736	.006
부모자녀 관계	.105	.019	.103	5.450	.000
부모역할모델	-.095	.019	-.095	-5.005	.000

〈표 VIII-16〉 가족내 제 관계와 자녀 성역할 인식의
다중회귀분석-일본

	비표준 계수		표준계수	t	유의도
	B	표준오차	Beta		
(Constant)	.029	.050		.583	.560
부모의 가사노동분담	.012	.051	.012	.240	.819
부모자녀 관계	.054	.053	.054	1.035	.301
부모역할모델	-.068	.051	-.069	-1.324	.186

〈표 VIII-17〉 가족내 제 관계와 자녀 성역할 인식의
다중회귀분석-독일

	비표준 계수		표준계수	t	유의도
	B	표준오차	Beta		
(Constant)	.030	.059		.509	.611
부모의 가사노동분담	-.164	.060	.012	-2.718	.007
부모자녀 관계	-.252	.062	.054	-4.084	.000
부모역할모델	-.107	.059	-.069	-1.799	.073

〈표 VIII-18〉 가족내 제 관계와 자녀 성역할 인식의
다중회귀분석-스웨덴

	비표준 계수		표준계수	t	유의도
	B	표준오차	Beta		
(Constant)	-.054	.047		-1.153	.250
부모의 가사노동분담	-.024	.048	-.027	-.509	.611
부모자녀 관계	-.068	.053	-.072	-1.283	.200
부모역할모델	.017	.049	.019	.348	.738

9. 결론

청소년의 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내에서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들은 성역할인지의 여러 가지 이론적 접근의 틀 그중에서도 사회인지이론, 심리학적 모방과 일치 그리고 부모와의 일체감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부모의 가사노동의 참가여부와 정도, 부모의 자녀와의 소통관계와 자녀의 양육방식, 그리고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일치감 등을 통해 어떻게 자녀들의 성에 기초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이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4개국 비교의 결과 스웨덴은 4개국중에서 보편적 복지제도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남녀평등적 정책을 바탕으로 가장 남녀평등적 사회구조를 갖추고 있고, 일본은 남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시각이 남성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고, 성역할의 시각에서 스웨덴의 경우 성별차이가 적고 한국의 경우 남성의 전통적 입장이 강하게 남아있어 남녀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스웨덴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역할에 대한 시각이 남녀모두에 있어 사회변화의 흐름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 폭넓은 사회진출, 여권신장의 확대, 호주제의 폐지 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도적 변화와 함께 성의식과 사고방식이 함께 변화하지 못하고 가부장적인 전통사회에 대한 시각이 아직도 남자청소년 들에 있어 폭넓게 잔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독일의 경우 폭넓은 복지제도의 구축과 여성의 사회진출에 있어 동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높다고 해도 아직 성역할에 대한 청소년들의 시각에 있어서 여성의 자녀교육 책임성의 강조, 그리고 행복한 결혼생활이 여성의 중요한 가치로 간주되는 등 전통적 요소가 아직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이 연구모델에서 사용된 부모의 가사노동의 분담, 부모-자식간의 소통방식, 그리고 부모와의 일체감 등의 변수들이 자녀 성역할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독일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있는 설명력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3개국에서는 그다지 의미있는 관계를 확인하지

는 못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연구가 가정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범주에만 국한될 때 생기는 문제점, 즉 학교생활, 친구, 선생님 등의 주변역할, 그리고 문화적 배경과 전통, 가족 관계의 다양성 즉 결혼, 이혼, 미혼모, 동거 등의 다양한 가족관계에서 과생되는 성역할의 분화, 복지제도의 수준, 미디어의 역할 등의 다양한 변수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타 환경으로부터 가족관계만을 떼어 분석하는데서 생기는 문제로 보고 다차원적 접근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방법론에 있어서도 과연 각국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본질을 설문지의 질문들이 잘 표현하고 있는지, 또 그 의미의 사용에 있어서 각국에서 같은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연구방법론의 유효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등의 문제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비교연구를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Adams, G. R. & Gullotta, T. D. 1989. *Adolescent life experiences*. Pacific Grove, California: Brooks/Cole.
- Bjornberg, Ulla & Jurgen Sass (eds), 1997. *Families with small children in Eastern and Western Europe*. Aldershot: Ashgate.
- Darvishpour, Mehrdad, 2004. *Sociologiska texter om familj, etnicitet, feminism och rasism (Sociological texts about family, ethnicity, feminism and racism)*. Centrum för Välfärdsforskning. Mälardalens högskola.
- Freud, S. 1933. *New introductory lectures in psychoanalysis*. New York: Norton.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Goldman, J.D.G. & Goldman, R.J. 1983.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s and their roles: A cross-national study in Australia, England, North America, and Sweden. *Sex Roles*, Vol. 9, No. 7, 791-812.
- Henschen, Helena, ed. 1987. *Barn i stan - från sekelskiftet till åttiotial (Child in town - from new millinium to 1980s)*. Kristiansatd: Kristianstads boktryckeri.
- Hinnfors, Jonas, 1992. *Familjepolitik. Samhällsförändringar och partistrategier 1960-1990*. (Family Policy. Social change and party strategy in 1960-1990). Göteborg. Göteborg University.
- Hurlock, E.B. 1981. *Child development*. New Jersey: McGraw-Hill.
- Johnson, N. 1977. *How to talk bak to your television*. Boston: Little, Brown.
- Jablonska, Beata, 2006. *Ungdomars psykosociala förhållanden (Psychosocial Relationship of the Youth)*. Centrum för folkhälsa (Center for Civil Health), Avdelningen för folkhälsoarbete. Stockholm.
- Juul, Jesper, 2005. *Livet i familjen - om det viktiga samspelet (Life in family - about the important interplay)*. Stockholm: Fakta.
- Kohlberg, L. A. 1966. 'Cognitive developmental analysis of children's sex-role concepts and attitude. In Maccoby, E. E., ed.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isty Press.
-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ischel, W. 1970. 'Sex typing and socialization. In Mussen, P.H., ed. *Carmichael's*

- manual of child psychology*. Vol. 2. New York: Wiley.
- The National Board of Youth Affairs, 1999. *Review of national youth policy*. Stockholm.
- Patterson, S. J., Söchting, I. & Marcia, J. E. 1992. 'The inner space and beyond: Women and identity. In Adams, G.R., Gullotta, T.P. & Montemayor, R., eds. 1992.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 Perry, D.G. & Bussey, K. 1977. 'Self-reinforcement in high- and low-aggressive boys following acts of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Vol. 48, 653-658.
- Proposition 2004/05:02. *Makt att bestämma - rätt till välfärd. (Power to decide: Right for welfare)*. Stockholm, Elanders.
- Sorrentino, Constance, 1990, 'The changing famil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Monthly Labor Review*, March 1990. 41-58.
- SOU 1994:73. *Ungdomars välfärd och värderingar. Rapport till Barn- och Ungdomsdelegationen och Generationsutredningen (Welfare and values of the youth. Report submitted to delegation of child and youth)*. Stockholm: Fritzes.
- Strandbrink, Peter and Victor Pestoff, 2006. *Small-scale Welfare on a Large Scale: Social cohesion and the politics of Swedish childcare*. Stockholm: Sodertorns hogskola.
- Toder, N. & Marcia, J. 1973. 'Ego identity status and responses to conformity pressure in colleg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26, 287-294.
- Ungdomsstyrelsen (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2005:1. *Arenor för alla (Arena for all)*. Stockholm.
- Ungdomsstyrelsen (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2005:10. *Fokus 05 (Focus 2005)*. Stockholm.
- Ungdomsstyrelsen (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2006:3. *En Beskrivning av Ungomars Villkor (A Description of Life Conditions of the Youth)*, Stockholm.
- Westholm, Anders, 1991. *The Political Heritage: Testing theories of family socialization and generational change*. Uppsala: Uppsala University.

부 록

1. 제 변수의 정의

변수	질문	항목
부모의 가사노동 참가여부와 정도 (q6)	당신의 부모님은 다음의 가사노동에 각각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준비 (q6_1) • 설거지 (q6_2) • 청소 (q6_3) • 세탁 (q6_4) 	1. 어머니가 전부한다 2. 어머니가 주로한다 3.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반반씩 한다 4. 아버지가 주로한다 5. 아버지가 전부한다
자녀-부모와 의 관계 (q12f, q12m)	아버지는/어머니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q12f_2/q12m_2) • 나와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q12f_4/q12m_4) • 나와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q12f_5/q12m_5) •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준다 (q12f_6/q12m_6) • 나의 능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 (q12f_9/q12m_9) •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 (q12f_10/q12m_10) •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 (q12f_11/q12m_11) • 나를 심하게 때릴 때가 많다 (q12f_12/q12m_12) • 내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가한다 (q12f_13/q12m_13) • 내게 이유 없이 화풀이를 한다 (q12f_14/q12m_14) • 내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 (q12f_15/q12m_15) •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q12f_16/q12m_16)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런 편이다 4. 전혀 그렇다
부모와의 일체화 정도 (Role Model) (q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q17_1) • 나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q17_2) 	1. 예 2. 아니오
자녀의 성역할인식 (q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사를 돌봐야 한다 (q33_1) • 사회적 성공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 (q33_2) • 남자는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 (q33_3) • 여자는 얌전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q33_4) • 여자에게는 사회적 성공보다 행복한 결혼이 더 중요하다(q33_5) •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책임이 더 크다 (q33_6)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런 편이다 4. 전혀 그렇다

출처: 2006년 5개국 청소년 가족내 사회과정의 비교연구 서베이 자료.

2. 가족내 제 관계와 자녀 성역할 인식의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한 국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114	,240		,472	,637
q6_1	,084	,063	,029	1,319	,187
q6_2	-,114	,056	-,048	-2,035	,042
q6_3	-,072	,047	-,034	-1,525	,127
q6_4	-,006	,063	-,002	-,095	,924
q12f_2	-,227	,066	-,082	-3,417	,001
q12f_4	,142	,047	,074	3,009	,003
q12f_5	-,097	,045	-,051	-2,135	,033
q12f_6	,080	,048	,042	1,683	,093
q12f_9	-,088	,048	-,044	-1,850	,064
q12f_10	,059	,052	,024	1,139	,255
q12f_11	,122	,086	,034	1,418	,156
q12f_12	-,168	,102	-,037	-1,637	,102
q12f_13	,031	,049	,016	,630	,529
q12f_14	,068	,080	,020	,850	,396
q12f_15	-,176	,097	-,045	-1,815	,070
q12f_16	,068	,065	,024	1,035	,301
q12m_2	,096	,074	,030	1,310	,190
q12m_4	-,038	,049	-,018	-,777	,437
q12m_5	-,008	,059	-,003	-,137	,891
q12m_6	-,111	,049	-,054	-2,270	,023
q12m_9	-,061	,049	-,030	-1,266	,206
q12m_10	,068	,054	,026	1,253	,210
q12m_11	,159	,097	,041	1,643	,100
q12m_12	,269	,102	,060	2,639	,008
q12m_13	-,034	,049	-,018	-,707	,480
q12m_14	-,127	,074	-,039	-1,720	,086
q12m_15	,305	,104	,073	2,935	,003
q12m_16	,013	,066	,004	,190	,849
q17_1	-,271	,055	-,142	-4,935	,000
q17_2	,092	,054	,048	1,713	,087

결 과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1,049	,868		-1,209	,228
q6_1	-,114	,251	-,027	-,453	,651
q6_2	,177	,230	,054	,769	,442
q6_3	-,082	,200	-,027	-,412	,681
q6_4	,025	,239	,007	,103	,918
q12f_2	,383	,216	,127	1,776	,077
q12f_4	,099	,158	,048	,624	,533
q12f_5	,093	,159	,045	,581	,561
q12f_6	,007	,143	,003	,046	,963
q12f_9	-,308	,161	-,149	-1,922	,055
q12f_10	,078	,139	,035	,561	,575
q12f_11	,150	,235	,046	,636	,525
q12f_12	,135	,356	,027	,379	,705
q12f_13	,452	,310	,112	1,457	,146
q12f_14	,045	,223	,014	,202	,840
q12f_15	,104	,296	,027	,352	,725
q12f_16	-,084	,215	-,031	-,389	,697
q12m_2	-,104	,244	-,027	-,425	,671
q12m_4	-,045	,196	-,016	-,230	,818
q12m_5	-,222	,218	-,064	-1,017	,310
q12m_6	-,147	,154	-,068	-,956	,340
q12m_9	,217	,169	,098	1,281	,201
q12m_10	,218	,178	,075	1,224	,222
q12m_11	-,042	,210	-,013	-,198	,843
q12m_12	,156	,634	,021	,247	,805
q12m_13	-,449	,462	-,083	-,970	,333
q12m_14	-,117	,169	-,040	-,693	,489
q12m_15	,138	,300	,028	,460	,645
q12m_16	,148	,202	,055	,731	,465
q17_1	-,143	,165	-,070	-,865	,387
q17_2	,081	,160	,040	,505	,614

독 일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1,481	1,093		-1,354	,177
q6_1	-,081	,149	-,033	-,546	,585
q6_2	-,315	,139	-,149	-2,268	,024
q6_3	-,332	,153	-,135	-2,172	,031
q6_4	,061	,200	,018	,305	,760
q12f_2	,421	,289	,097	1,455	,147
q12f_4	,055	,188	,026	,292	,770
q12f_5	,072	,184	,034	,391	,696
q12f_6	,152	,203	,069	,751	,453
q12f_9	-,290	,211	-,112	-1,376	,170
q12f_10	-,013	,189	-,005	-,069	,945
q12f_11	,091	,206	,033	,440	,661
q12f_12	,813	1,143	,080	,711	,477
q12f_13	-,198	,317	-,049	-,625	,532
q12f_14	-,038	,273	-,011	-,141	,888
q12f_15	,014	,394	,003	,035	,972
q12f_16	,362	,259	,136	1,394	,164
q12m_2	-,303	,359	-,059	-,843	,400
q12m_4	,057	,211	,023	,271	,787
q12m_5	-,436	,211	-,177	-2,070	,039
q12m_6	,198	,238	,071	,833	,405
q12m_9	-,355	,236	-,118	-1,500	,135
q12m_10	,115	,247	,035	,463	,644
q12m_11	,250	,189	,099	1,321	,188
q12m_12	1,539	1,318	,124	1,168	,244
q12m_13	,344	,326	,081	1,054	,293
q12m_14	-,054	,249	-,017	-,218	,827
q12m_15	-,058	,341	-,013	-,170	,865
q12m_16	,069	,264	,026	,260	,795
q17_1	-,397	,159	-,189	-2,500	,013
q17_2	,213	,159	,099	1,333	,184

스웨덴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1,527	1,254		1,218	,224
q6_1	-,003	,116	-,001	-,022	,982
q6_2	-,112	,132	-,062	-,848	,397
q6_3	-,089	,128	-,049	-,696	,487
q6_4	,123	,130	,062	,946	,345
q12f_2	-3E-005	,189	,000	,000	1,000
q12f_4	,092	,137	,051	,670	,503
q12f_5	-,224	,149	-,116	-1,502	,134
q12f_6	,111	,159	,056	,702	,483
q12f_9	-,090	,204	-,036	-,442	,658
q12f_10	,075	,168	,033	,444	,658
q12f_11	,068	,192	,024	,353	,724
q12f_12	-1,164	,867	-,097	-1,343	,180
q12f_13	-,732	,545	-,096	-1,344	,180
q12f_14	-,337	,216	-,101	-1,559	,120
q12f_15	,692	,323	,160	2,139	,033
q12f_16	-,046	,264	-,020	-,176	,860
q12m_2	-,051	,225	-,016	-,227	,820
q12m_4	-,145	,138	-,078	-1,049	,295
q12m_5	,083	,216	,031	,383	,702
q12m_6	-,014	,217	-,005	-,062	,950
q12m_9	-,304	,241	-,090	-1,261	,208
q12m_10	,096	,213	,031	,451	,652
q12m_11	-,128	,251	-,032	-,508	,612
q12m_12	1,355	,834	,138	1,624	,105
q12m_13	-,401	,750	-,047	-,534	,593
q12m_14	-,281	,202	-,088	-1,391	,165
q12m_15	,255	,268	,061	,953	,341
q12m_16	-,054	,254	-,024	-,213	,832
q17_1	-,212	,147	-,117	-1,447	,149
q17_2	,249	,142	,136	1,762	,079

IX. 인종, 계층 그리고 젠더가 미국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1. 서론
2. 학교내의 청소년들
3. 청소년의 복원력
4. 젠더와 청소년
5. 맥락 속에 존재하는 청소년들
6. 결론

IX. 인종, 계층 그리고 젠더가 미국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1. 서론

2007년 4월1일 일요일 뉴욕타임스 머리기사의 제목은 "소녀들, 자기 자신답게 살고, 그리고 완벽하기도 해야 한다"였다. 이 기사는 중상류층 십대 소녀들의 복잡한 생활과 어떻게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 가족, 학교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기대들과 힘겹게 대처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소녀들은 성적이 아주 우수하고 음악적으로나 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매우 우수한 인재들이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이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완벽해져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학교에서 학업 성적과 과외활동에서 눈에 띄게 우수한 모범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예뻐야 하거나 그들의 말로 "섹시(hot)"해야 하고 학업 외의 사회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압력하에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러한 재능 있는 아이들과 자원(resources)이 풍부한 집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또 다른 청소년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이 논문은 자원(resources)이 많지 않고, 성공한 부모의 배경이 없으며, 사회에 의해 국가와 공동체에 긍정적인 기여를 못 할 것이고 방황하고 있다고 단정되는 청소년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들은 흑인과 남미계의 청소년들로 몇 세대의 걸친 가난의 결과이거나 미국땅에 온 "호의적인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민자들이다. 이들은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다.

학계 전반에 걸친 사회과학자들은 명확하게 인종, 계층 그리고 젠더가 미

* 집필자 : 콘웨이-터너 캐서린(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Geneseo)

국 내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코넬 웨스트(Cornell West)가 그의 저서 ‘인종문제’(Race Matters, 1993)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 백인의 흑인과 남미계 형제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학습반응이 인종차별, 불평등 대우 그리고 인종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다른 집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몇몇 소수의 학자들은 다양하고 가난한 가족들과의 삶의 경험이 상류층 백인가족들과 대조적인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요즘 청소년들이 느끼는 인종차별, 성차별 또는 계층차별의 영향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드물지 않다. 사실 많은 이들이 인종, 민족 또는 사회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균등한 여건이 있다고 허황되게 믿고 있다. 그들은 높은 인정을 받는 몇몇 유색인종의 청소년들을 언급하거나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인종차별이 폐지된 학교를 그 증거로 내세운다.

많은 선행 연구(Compass, 2004; Susser, 2001; Anderson, 2001)에서 가난이 오늘날 미국의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이 증명 되어왔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불균형적으로 과도한 흑인과 남미계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극빈층으로 살고 있다.

<표 IX-1> 극빈층으로 살고 있는 청소년

미국계 흑인	33.1%
남미계	30.3%
백인	9.4%

자료: 미 교육부, 전국 교육 통계센터, NCES 2000

가난한 가정의 청소년들이 빈민가에 살고 인종, 민족 그리고 수입에 따라 수준과 교육의 질이 낮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흔히 편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50%이상의 미국계 흑인 청소년들은 편부모(어머니) 밑에서 자란다(McAdoo, 2002; Compass, 2004). 이 가족들이 겪는 가난은 저조한 학업성적, 교육의 습득감소, 육체적 질병의 증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는 더 많은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요소와 연관이 있다. (Land and Legers, 2002; McAdoo, 1995; Rankin and Quane, 2002).

2. 학교내의 청소년들

청소년들은 아주 많은 시간을 자신들의 학교에서 보낸다. 여기서 그들은 대학이나 직업 같은 인생의 다음 단계에 뛰어들기 위해 자기 자신을 준비한다. 흑인과 남미계 청소년들의 중퇴비율은 백인들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 그래서 미국계 흑인과 미국계 라틴(남미) 청소년들의 선택권은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표 IX-2> 인종/민족 별 18~24세의 고등학교 졸업 비율(1972~2000)

년도	1972	1980	1990	2000
총	82.8	83.9	85.6	86.5
백인	86	87.5	89.6	91.8
흑인	72.1	75.2	83.2	83.7
남미계	56.2	57.1	59.1	64.1

자료 : 미국 교육부, 전국 교육 통계센터 (NCES) 2000

학교 중퇴율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고등학교에서 중퇴하는 청소년의 75%가 흑인과 남미계의 청소년들이다. (Land and Legters, 2002; Connell et al, 1994; Padron et al, 2002).

많은 학자들이 이들 인종들의 낮은 고등학교 졸업비율의 원인에 대해 조사해왔다. 중퇴율과 연관이 있는 요소들은 가난, 인종/민족, 영어실력, 부모의 학력, 그리고 편부모 가정 등이다(Springfield and Land, 2002). 이 요소들이 서로 연관이 있고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재생산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부모의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중퇴하는 비율이 3배가 많았다 이 복잡한 사안은 분리하기 어렵다. 교육과정을 완수하지 못한 부모라면, 그 부모의 자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식기반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배우는 문화적 자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부터 본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가정의 부모가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졸업장이 없는 부모들은 수입이 낮을 확률이 많고 그들의 가족을 꾸려나가기엔 변변치 않은 직장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자원(resources)이 많지 않은 동네에 살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감옥에 있을 확률도 많다. 이 상황은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추가 사항을 지원하기에 어렵게 만든다. 이 요소들은 성공과는 거리가 먼 가정환경으로 연결된다(Jarrett, 1995; (Jagers and Carroll), 2002).

많은 학교 관계자들과 연구원들은 어떻게 학교환경이 청소년들의 성공적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여기에는 학교에서 성공에 장애가 되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Land and Legters, 2002; Barr and Parrett, 2000). 가정자원(resources)이 많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에서조차 의지할 곳이 별로 없다. 높은 중퇴율과 연관 있는 학교 내의 요소들은 큰 학업사이즈, 큰 학교 사이즈, 학생들에 대한 낮은 기대, 높은 정도의 교내 폭력, 큰 비율의 가난하게 사는 어린이들 그리고 관리 방침 등이다. 흑인 남자 학생과 남미계 남자학생들의 수가 불균형적으로 많은 학교에서는 특별교육이나 높은 정학 및 제적율을 보이고 있다. 높은 제적비율이나 정학비율이 고등학교 중퇴율과 깊은 연관이 있음이 증명되어 있다. 최근 20년간 우리는 정학비율이 3.7%에서 6.8%로 거의 2배 가량 증가하는 것을 보아왔다.

가난의 결과와 그것의 흑인과 남미계 청소년들에 대한 불균형적 영향이 저조한 학업성취도로 연결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들의 환경이 여기서 말한 위험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거나 그들의 학교가 저조한 학업성취도와 연관 있는 특징이 있더라도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퇴 하는 것은 아니다.

3. 청소년의 복원력

지난 20년간 논의된 문제는 무엇이 어떤 학생들로 하여금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게 만드느냐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누적 되어 있는 많은 위험을 겪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겨낸다. 어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에 더 취약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청소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설명은 적응 및 복원력(resilience)의 개념이다. 복원력은 “상당한 어려움과 충격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긍정적인 적응력을 보여주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의미로 정의될 수 있다. (Luthar and Cicchetti, 2000). 복원력(resilience)은 자세, 행동 그리고 청소년이 자신이 어려움을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의 집합이다.

캠벨 외(Campbell et al, 2002)와 왁스맨 외(Waxman et al, 2000)은 어떤 종류의 특성이 빈민층, 흑인, 남미계 그리고 최근 이민자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연구하였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 할 수 있는 능력은 복원력과 관련이 있다. 이런 특성은 학교 내, 동료들과 계층 인구를 걸쳐, 그리고 학교 밖에서 보여 진다. 이 특성은 사회적 능력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 이 자신의 행동에서 적성의 감각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낸 청소년은 대부분 성공적이다. 학자들은 개인의 성격과 복원력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McAdoo, 2004). 탄력적인 청소년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독립적이며, 목표의식이 있고 동기부여가 된 경우가 많다. 이 청소년들은 자신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등 자신을 도와주는 행동을 보이고 문제에 닥치면 끈질김을 보여주고 역동적으로 집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4. 젠더와 청소년

학자들은 성별인식의 등장과 복원력에 있어서 성별의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해 왔다(Galambos, 2004). 어떻게 성별 사회화의 과정이 복원력에 영향을 주는지는 흥미로운 사항이다. 성별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학습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일어난다. 관찰, 모방, 그리고 답습 같은 방법이 성별 역할의 성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다. 청소년들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들의 가족, 문화 그리고 민족적/인종적 배경에 따라 알맞은 성별인식과 남자/여자다움의 인식을 강화하게 된다. 성별 강화의 가설은 남자와 여자가 자신의 성별의 차이를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강화하게 된다고 주장한다(Hill, 1983).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성별 인식을 차별화 하더라도 남자아이들은 남성다움의 인식에서 긍정적 자존감을 느끼지만, 여자아이들은 두 가지 남성다움과 여자다움 모두를 개발하여야 더 높은 자존감을 느낀다고 한다(Galambos, 2004).

구체적으로 미국흑인 청소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한 것에 따르면 성별인식과 자존감의 연관은 별로 없다. 어느 정도의 자부심의 하락은 흑인소녀에 생길 수 있지만 (백인 소녀와 비교할 경우)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에서 소녀들이 몸무게와 외모에 대한 불만을 갖는다고 하였지만 특히 흑인과 남미계 소녀들은 몸과 자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경험한다. 그러나 백인 소녀들에 비해 이 부정적인 관점이 크지 않았다.

소녀들은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호소할 가능성이 더 높고 물리적인 공격에 가담할 가능성이 더 낮고 관계의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남자보다는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다(Jarrett, 1995; Galambos, 2004; Lerner and Steinberg, 2004; Leventhal, 2004).

이런 성별적 행동은 청소년들의 어떤 학교에서 보여지는 문제들과 연관이 있고 미국학교에서 정학비율과 중퇴비율과도 관련이 있다. 이 모든 행동들은 더 큰 공동체, 동네 그리고 가족의 상황 안에서 존재한다.

5. 맥락 속에 존재하는 청소년들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관련 깊은 환경 속에 있고 저소득 미국계 흑

인들과 남미계는 자신들의 지역사회·동네에 그 행동반경이 제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와 더 어린 아이들은 자신들이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반경 안 또는 자신의 부모가 태워주는 곳에서 사람들과 행사들 그리고 기관들을 접하게 된다. 하지만 학생들이 저임금 도시 공동체에서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그들의 이동성이 개인 이동수단이 줄어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변화된다(Rankin and Quane, 2002).

이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환경)은 많은 논의, 추측 그리고 연구를 만들어냈다. 논점은 대부분 무엇이 이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중요함인가 하는 것과 이러한 환경이 현재의 생활 또는 그들의 미래의 가능성에 건설적인지 해로운지 하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지역의 특징이 청소년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 왔다. 범죄율이 높고 교육과 미래취업의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서 사는 것은 청소년들의 학교에서의 저조한 학업성취와 연관이 있다(William, et al, 2002). 이 상황에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유리한 개인적 성격 또는 위에서 설명한 복원력이 꼭 지역적 압박의 영향을 능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다. 미국 흑인 남자 청소년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고 소녀들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소년들은 고등학교에서 중퇴하는 수가 증가하고, 더 낮은 학교성적을 받아가고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지원신청을 하는 수가 더 적어지고 있다(Williams, et al, 2002; Harvey, 2002; Connell, et al 1994). 이 차이가 대학을 마치는 학생의 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사무직 직업에 들어가는 수의 청소년에 영향을 미친다. 이 미래의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이 암시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다른 학자들은 가족과 종교 그리고 어떻게 가족형태 또는 독실한 신앙심이 이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교회 생활은 현재 또는 청소년들 미래의 성공에 있어 복잡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깊은 신앙심의 정도가 청소년들의 성공적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혀져 왔다(Bahr, et al, 1998; Benda, 1997; Williams, et al 2002).

교회에 가고 교회에 가는 친구를 둔 학생들은 학업 면에서 성공적인데, 심리적 강화와 교회라는 기관 내에서 권장하는 네트워크가 학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하게, 관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또래들과 사귀는 것은 학교에서 성공적인 학업을 하는 것과 부정적 연관이 있다(Case and Katz, 1991). 이 경우 관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청소년들 긍정적 사회적 행동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교회, 보이즈 앤 걸스 클럽, 오락센터, 걸스카우트나 보이스카우트 그리고 NAACP 유스 코어 같은 기관들은 미래의 성공과 연결되는 학업적 성공을 할 수 있는 습관과 태도를 강화한다.

가족적 특성과 행동 또한 이것이 현재와 미래의 청소년들의 성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토되었다. 가족 또는 가족의 스타일에 대한 틀에 박힌 "한 사이즈로 모두에게 맞게" 식의 설명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명확하고 이것은 모든 가족생활의 상황과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범죄율이 높고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은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면 더 강하고 엄격한 부모의 관리 스타일이 필요하다. 가족과 가족이 있는 지역의 현실에서 이러한 상황적인 차이 때문에, 전통적인 부모 역할에 대한 생각이 언제나 꼭 유용한 것은 아니다. 란킨과 콰 (Rankin and Quane) (2002: 82)이 설명한 대로 "부모의 전략은 지역의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문학작품 내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모의 관찰과 부모의 참여가 미국계 흑인과 남미계 청소년들의 지능발달과 학업적 성공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부모들이 깊이 자신의 성공과 학업에 관여한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성취를 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이 정해진 경우에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고 느끼는 학생일수록 긍정적 사회적 행동을 보였고 더 높은 학업 성취를 보였다(Baumrind, 1991). 미국계 흑인 청소년의 삶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였다(Nord, 1997; McAdoo, 1995). 많은 청소년들이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지만, 아버지들과 조

부모가 이 청소년들의 현재와 미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개인의 성격과 행동, 가족, 공동체 그리고 동네의 특성 등이 미국의 버려진 청소년들의 성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러한 현실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이 부분의 사람들(사회에서 소외 받는 미국계 흑인, 남미인)에게 더 희망적인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영향을 주길 원한다면, 모든 요소들이 가난하고 인종적/민족적으로 다양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압박에 대해 언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6. 결론

이 논문은 가난한 미국계 흑인과 남미계의 청소년들이 미국에서 겪는 현실에 대해 서술하였다. 연구는 어떻게 가난의 문제가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와 그들의 학업을 마칠 능력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래서 그들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확대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복원력이라는 논점이 언급이 되었고 또 어떻게 복원력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에서 오는 압박에 대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도 언급이 되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도울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는 공동체, 동네, 그리고 가족이라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References

- Anderson, M. and Collins P.(2001). Race, Class and Gender. Belmont: CA, Wadsworth Publishers.
- Bahr, S, Maugham, S, Marcos, A, and Li, B. (1998) Family Religiosity and the risk of adolescent drug us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0(4), pages. 979-992.
- Barr, R. and Parrett, W. (2000). Hope fulfilled for at Risk and Violet Youth: K-12: Programs that Work. 2nd Edition. Needham Heights, MA.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ab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11, page 56-95.
- Benda, B. (1997). An examination of a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religiosity and different forms of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2), pages 163-186.
- Campbell, J, Hombo, C, Mazzeo, J. (2000). NAED. Trends in Academic Progress: Three decades of Student Performance. NCES (2000-469), Washington, DC, Department of Education.
- Case, A. and Katz, L. (1991) The Company you Keep: The Effect of Family and Neighborhood Disadvantage. 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 3705.
- Compass, B. (2004).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During Adolescence. (In) Handbook of Adolescence Psychology. 2nd edition. Hoboken NJ: John Wiley and Sons.
- Connell, J. P., Spencer, M. B. and Aber, J (1994). Educational Risk and Resilience in African American Youth: Context, Self, Action, and Outcomes in School. Child Development. Vol 65(2). Pages 493-506.
- Galambos, N. (2004). Gender and Gender Role Development in Adolescence. (In)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2nd Edition. Hoboken NJ: John Wiley and Sons.
- Harvey, W. (2002). African American Males in Higher Education. (In). The Black Male in White America, Editor Jacob Gordon. NYC: Nova Science Publisher.
- Hill, J. and Lynch, M. (1983). The intensification of gender related role expecta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In). J. Brooks-Gunn and A.C. Peterson (Ed). Girls at Puberty: biological and psychosocial perspectives. (201-228). NY: Plenum

- Jagers, R. and Carroll, J. (2002). Issues in Educating African American Children and Youth. (In). Educating At-Risk Students. Chicago Il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arrett, R. (1995). Growing up Poor: The Family Experience of Socially Mobile Youth in Low Income African American Neighborhood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0(1). Pages 111-135.
- Land, D. and Legters, N (2002). The Extent and Consequences of Risk in U.S. Education. (In). Educating at Risk Students. Chicago, Il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rner, R. and Steinberg, L. (2004).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2nd Edition. Hoboken NJ: John Wiley and Sons.
- Leventhal, T. and Brooks-Gunn, J. (2004). Diversity in Developmental Trajectories across adolescence: Neighborhood influences. (In). Handbook of Adolescence Psychology, 2nd Edition. Hoboken, NJ: John Wiley and Sons.
- Luthar, S. , Cichetti, D. and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McAdoo, H. (2002). Black Children - Social, Educational and Parental Environments. Thousand Oaks, CA: Sage.
- McAdoo, H. (1995). Stress Levels, Family Help Patterns, and Religiosity in Middle Class and Working Class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s. Journal of Black Psychology. Vol. 21(4)
- McWright, L. (2002). African American Grandmothers' and Grandfathers' Influence in the value Socialization of Grandchildren. (In) Black Children - Social, Educational and Parental Environments. Thousand Oaks, CA: Sage.
- Nord, C.W., Brimhall, D. and West, J. (1997). Father's Involvement in their Children's School (NCES, 98-091).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 Padron, Y., Waxman, H., Rivera, H. (2002). Issues in Educating Hispanic Youth. (In). Educating At-Risk Students. Chicago Il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resident's Commission on Educational Excellence for Hispanic Americans (2003). Risk to Opportunity: Fulfilling the Educational Needs of Hispanic Americans in the 21st Century, March 31, 2003.
- Rankin, B. and Quane, J. (2002). Social Contexts and Urban Adolescent Outcomes: The Interrelated Effects of Neighborhoods, Families, and Peers on African American Youth. Social Problems, Vol. 49. No. 1, 79-100

- Springfield, S. and Land, D. (2002). Educating at Risk Students. Chicago, Il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usser, I. and Patterson, T. (2001). Cultural D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Oxford, UK: Blackwell Publishers.
- Waxman, H., Gray, J, Padron Y. (2002). Resiliency among students at Risk of Academic Failure. (In). Educating At Risk Students. Chicago Il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est, C. (1993). Race Matters. Boston: Beacon Press.
- Williams, T., Davis, L., Cribbs, J., Saunders J, and Williams, J. (2002). Friends, Family, and Neighborhood: Understanding Academic Outcomes of African American Youth. Urban Education, Col. 37(3), page 408-431.

X.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X. 요약 및 결론

1. 요약

이 보고서는 2006년에 실시한 5개국 설문조사데이터를 이용한 논문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내 사회화과정의 추가 분석보고서이다. 총 8편의 논문을 수록하였으며, 이 중 5편은 2006년 5개국 비교조사자료를 활용한 논문이며, 나머지 3편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논문 1편, 미국과 독일 청소년에 대한 문헌분석 논문 2편이다.

각각의 연구논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에게 더 지지적이며, 아버지의 직업계층에 따라서 자녀양육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상위정신노동직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그 외 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보다 자녀를 더욱 민주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직업계층에 따른 자녀양육방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은 자녀양육방식이 젠더화(gendered)되어 있다는 점이다. 부모들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녀를 구별하여 대한다기보다는 부모의 자녀교육방식이 부모의 성에 따라 패턴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좋은 관계를 갖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보다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를 찾는다면, 모녀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대체로 모녀관계가 보다 지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미국, 독일, 스웨덴의 아버지는 한국과 일본의 아버지보다 자녀를 더욱 민주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대체로 지지적 관계 정도가 낮고 통제적 관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4개국을 비교한 결과, 일본은 남녀의 사회

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시각이 남성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스웨덴이 성별차이가 가장 적고 한국이 남녀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의 경우, 부모-자녀 관계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녀의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관계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사교육비 수준은 높아지지만,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사교육비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한국, 미국, 일본 3개국 고교생의 교육포부와 가족배경의 관계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자본과 인적 자본보다 사회관계 자본이 자녀의 교육포부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며, 동시에 그 영향에 있어서의 남녀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일본은 부모의 인적 자본과 사회관계 자본이 자녀의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의 남녀차이는 작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부모의 사회관계 자본보다는 경제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영향이 크며, 그 영향이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났다.

일곱째, 2006년 웰청소년보고서에 의하면, 독일의 청년층의 대다수가 좋은 교육, 흥미로운 직업, 신뢰할 수 있는 애인과 가족을 통해 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찾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조사결과와 비교해서 ‘안전’, ‘열심히 일하는 것’, ‘야망’, ‘공손함’, ‘가족생활’과 같은 가치들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로우면서 동시에 과거의 것인 이러한 가치들은 종종 사회적 업무, 창조성 그리고 개인주의와 결합된다. 이 새롭고 실용적인 가치의 결합은 경제적 정치적 상황 변화, 특히 높은 실업률에 의한 것이다. 독일 청소년들은 경제상황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는 동시에 친구, 애인, 가족들 속으로 도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여덟째, 미국 청소년에 대한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어려운 환경을 잘 극

복하여 성공하는 이른바 청소년의 복원력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이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모든 사회적 자원의 결핍상태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것이 성격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고, 또 성별 차이, 가족, 속한 집단, 지역공동체, 종교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종교활동이나 다양한 청소년활동이 복원력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어떤 식의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2.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논문들, 즉 2006년 5개국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한 논문과 한국 청소년 패널 자료를 활용한 논문, 그리고 독일과 미국 청소년에 대한 일반 논문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지지적이지만, 아버지의 경우 상위계층의 아버지가 더 민주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덜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부모, 한국의 아버지들의 양육태도가 상대적으로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앞으로 부모들에게 어떠한 부모상을 기대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려할 때, 그리고 각국의 문화적 격차를 고려할 때, 한국의 부모, 한국의 아버지의 문제를 단순하게 문제로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부모, 특히 아버지가 자녀와 대화를 비롯한 공유하는 것들이 적다는 것은 분명하며, 동양적, 한국적 가치를 강조하더라도 소통의 장과 빈도 자체가 적은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아버지의 경우는 직장에서의 노동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며, 한국 부모들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입시 위주의 문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부모들의 문제는 전통적 가

치와는 거리가 멀 수 있다. 전통적인 가치보다는 ‘공부’ 중심주의가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2006년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한국 가족의 특성을 ‘도구주의적 가족주의’로 명명한 바 있으나, 2007년도 한국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총괄보고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I」와 세부과제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참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공부’ 또는 ‘성적’ 중심주의는 자녀들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강화하고, 이것이 갈등의 주요원인이 되며, 전반적으로 비민주적 양육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독일과 미국 청소년들의 상황을 통해서 볼 때, 각국의 청소년들이 처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차이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나 면접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회문화적 환경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2008년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이종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전태국	한국사회학회 회장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수
류성렬	백석대학교 교수
이재혁	서강대학교 교수
이명진	고려대학교 교수
김신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7-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김기현·임희진
07-R01-1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박철현
07-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 이경상·유성렬
07-R01-3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 / 김기현
07-R01-4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 임희진·유제민
07-R02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 발달지표 종합부문 / 임지연·김신영·김정주
07-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 발달지표 결과부문 / 김신영·임지연
07-R0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II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 백혜정·최우영·길은배·윤인진·이영란
07-R04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 오해섭·김영호·이민희
07-R05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이종원·장근영·김형주
07-R05-1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인권영역별 실태분석 / 이용교·박창남·이중섭
07-R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체제 정비방안 연구 / 이춘화·김희균·조아미·황성기
07-R07 신종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 신종·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 김영한·권일남·주동범
07-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 실태와 대책 / 성운숙
07-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태와 대책 / 황진구·유지열
07-R09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조사개요보고서 / 이창호·오성배·정의철·최승희
07-R10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 김경준·최인재·설인자·원구환
07-R1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이해연·서정아·조홍식·정익중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
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김은정·민경석 (자체번호 07-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
현철·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Bahira Sherif Trask, Gudrun Quenzel, Yasuaki
Aota (자체번호 07-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 김현철·
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배지혜·Bahira Sherif Trask, Melina McConatha Roske,
Bethany Willis Hepp·Gudrun Quenzel·Michaela Janotta·Janina Herrmann·Hideki Watanabe·
Shigeki Matsuda·Yasuaki Aota·Masayuki Ozawa·Peter Strandbrink (자체번호 07-R1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 김은정 · 최연혁 · 윤인진 · 정재영 · 임창규 · 이선이 · 김현주 · 이여봉 · 박천식 · 배지혜 · Gudrun Quenzel · Katherine Conway-Turner · Hideki Watanabe · Shigeki Matsuda · Yasuaki Aota · Masayuki Ozawa (자체번호 07-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 김현철 · 고미숙 · 박노자 · 권인숙 · 나임윤경 (자체번호 07-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조혜영 · 문경숙 (자체번호 07-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한민족 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혜영 · 문경숙 · 박동숙 · 양한순 · 최진숙 (자체번호 07-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윤인진 · 채정민 (자체번호 07-R13-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익기 · 이동훈 (자체번호 07-R13-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태기 · 임영언 · 박일 · 배광웅 (자체번호 07-R13-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과 생활실태연구 / 임영상 · 황영삼 · 고기영 · 박지배 · 이병조 · 권주영 · 김석원 · 최소영 · 최인나 (자체번호 07-R13-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대책방안 연구 / 강일규 · 저재식 · 길은배 · 배기형 (자체번호 07-R13-6)

■ 수시과제

- 07-R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 정하성 · 우룡
- 07-R15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 권일남 · 김혁진 · 오해섭
- 07-R16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 원구환 · 김현철 · 백혜정
- 07-R17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 우형진 · 김성벽 · 성윤숙
- 07-R18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 김경준 · 서정아 · 정익중
- 07-R19 한류가 베트남 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 서동훈 · 박영균
- 07-R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상근지도자(PM·SM)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김호순 · 김기현 · 최병훈 · 한도희 · 박재환
- 07-R21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 이종원 · 이경자 · 임희진
- 07-R22 초등학교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이경자 · 임희진
- 07-R23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 김현철 · 김진숙

■ 영역과제

- 07-R30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해섭·장근영·김남정·박정배
 07-R31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 김영한·서정아
 07-R32 2007년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안전·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신영·오성배·양계민
 07-R33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윤숙·임희진
 07-R34 청소년 자율참여형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운영모델 개발 / 임지연·연규철·이교봉
 07-R35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 김기현·조혜영·장근영·이창호·강홍렬·고원·김민·김은경·김지선·김현주·나의순·마경희·손승영·손유미·우명숙·이승현·임천순·전상진·주용국·진미석·채재은·최규종·최순종·최화영
 07-R36 청소년희망세상비전 2030총괄분야연구 / 김기현·조혜영·장근영·이창호·고원·강홍렬
 07-R37 청소년 통계 혁신방안 / 이경상·김기현
 07-R38 다문화가족자녀의 교사생활과 교사학생의 수용성 / 조혜영·이창호
 07-R39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및 가해학생선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인재·김경준·백혜정·강진구·김태희·송미경·이유미
 07-R40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 / 맹영임·조혜영·이춘화·김경준·김현철·김기현·임희진·임지연·길은배·김민·유홍식·전명기
 07-R41 청소년독서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 황진구·김은정·백원근·허병두
 07-R42 200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김은정·황진구
 07-R43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규제순응도 조사 연구 / 김영한·송병국·오홍석
 07-R44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 이종원·장근영·김호순
 07-R45 자연(생태)환경활동 영역의 학교교과를 연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명자·김승규·송순재
 07-R46 2007 청소년백서 / 문경숙·김기현
 07-R47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조사연구 / 김신영·오성배·이명진
 07-R48 질적수급전망분석 / 김기현
 07-R49 2007 서울시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백혜정
 07-R50 2007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평가 / 김현철·백혜정·김형주
 07-R51 2007 청소년쉼터시설종합평가 / 황진구·이경상
 07-R52 2007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오해섭·이혜연
 07-R53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연구 / 김신영·오성배·이명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7-S01 「2008년도 고유연구과제 발굴·선정과 경영혁신 방향설정 워크숍」(1.23~24)
 07-S02 「Internation Conference on Changing Fam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4.20)
 07-S03 「청소년의 역사사랑 토론회」(5.12)
 07-S04 「제주세계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청소년」(8.17~18)

- 07-S05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함양 방안」 (6.28)
- 07-S06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안)」 (7.3)
- 07-S07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7.5)
- 07-S08 「청소년 우대제도 국내·외 사례 워크숍」 (7.20)
- 07-S09 「다문화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방향」 (7.20)
- 07-S10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포럼」 (9.11)
- 07-S11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과 치료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9.13~14)
- 07-S1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9.14)
- 07-S13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9.14)
- 07-S14 「한민족 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 (10.30)
- 07-S15 「2007 고유과제 정책제안 검토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 (11.1~2)
- 07-S16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9)
- 07-S17 「질적연구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세미나」 (11.27)
- 07-S18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 (11.29)
- 07-S19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12.7)
- 07-S20 「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근대적 담론 형성의 기원과 그 영향」 (12.24)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1호 (통권 제45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2호 (통권 제46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3호 (통권 제47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연구보고 07-R12-3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인 쇄 2007년 12월 21일

발 행 2007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종 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경성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 978-89-7816-706-2(93330)